

속초 예술

VOL. 24

2024



아날로그여! 안녕

-동시상영 극장

장은선



장은선

해동공자 최종 문학상 대상
강원일보 신춘문예 동시 당선
설악 문우회 갈매 동인
속초 문인협회 회원
고성문학회 회원

애국가가 울리자
우리는 제식훈련 하듯이 기립했다
이윽고 수젯구멍처럼 뽕뽕 뚫린
필름이 돌아가면
숨죽인 초롱초롱한 눈동자들이
어둠 속에서 표범의 눈처럼 반짝거렸다
가끔 총알이 튀어나와 이마에 박히기도 하고
진한 키스 장면에 침을 삼키기도 했다
갑자기 필름이 끊어지면 깊은 산속의 밤처럼
여기저기서 휘파람새 소리가 심하게 들렸다
가벼운 주머니들이라 팝콘은 없었고
풍선껌 씹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전편이 끝나면 암모니아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영화는 대부분 권선징악으로 끝나서
우리 세상은 언제 그렇게 되나 하고
주먹을 쥐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남녘에서 개나리 울타리처럼 스크럼행진을 했다는
카더라통신이 들려왔으나
저녁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다
희망의 실오라기라도 붙잡듯
그렇게 익명과 불온의 청춘 시절이 가고
드디어 짙은 안개가 걷혀가고 있었다
우리는 산탄처럼 흩어져
몇몇은 유탄에 맞았고
몇몇은 성공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어느 날 영화관은 없어졌고 스타벅스가 들어선 앞
젊은 남녀가 승용차 안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우리는 결핍과 상실의 계절을 지나왔으나
아무도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목차

속초예술 2024 VOL. 24



표지작가 : 김영미(미술협회 부지부장)
표지그림 : 자연의 섭리(Dreaming)



한국예총 속초지회

속초시 번영로 155(속초문화예술회관 내)
T 033-631-8070 F 033-632-8072
E art8070@hanmail.net

발행인 박치영
편집위원 박대성
편집인 이선형, 한유리
발행일 2024. 12.24

[비매품] 후원 :  속초

권두시

000 이날로그여! 안녕-동시상영 극장 : 장은선

커버스토리

- 010 'ART모꼬지' 특별한 변화를 맞이한 예술과 문화의 대축제
- 012 문화도시 속초, 음식문화를 통해 미래를 준비한다.
- 016 갤러리 동행 '예술과 여행의 아름다운 만남'
- 018 국립산악박물관 작은전시 '산의 다양한 얼굴을 만나다'

예술산책

- 020 윤홍렬 추모 10주기를 기리며 지역 작가 평론 '권정남'
- 025 최명길 추모 10주기를 기리며 시인 '박호영 교수'

회원특집

- 027 음악협회 : 바이올리니스트 이도영의 '클래식, 우아함'
- 030 미술협회 : 고주리 작가 '섬유미술의 조형성, 자연과의 어울림'
- 034 연극협회 : 냉면 한그릇 후루룩 넘기듯 공연을 준비하며
- 038 문인협회 : 시화전 '속초, 시로 피어나다'
속초문학 4집 출판기념회 '시민과 함께하는 속초문학'
- 040 사진협회 : 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정기 회원전
- 042 영화인협회 : 정태진 : 속초의 문화와 예술을 잇다

미술이야기

- 046 김도연(수련이 피어있는 연못)
- 047 김병택(울산암가는 길목)
- 048 김유훈(강아지)
- 049 김태완(그리움)
- 050 박귀례(설악산 계곡)
- 051 박종칠(낙수천석)
- 052 박흥기(기억공간 2403)
- 053 장국보(회귀 : 그냥 돌이고 싶은 돌)
- 054 장국철(설악의 달마봉)
- 055 최월순(화양연화-접시꽃)

*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공간을 프레임에

- 056 유홍균 : 바단지린 사막
- 057 선종용 : 가을날 아침
- 058 배현숙 : 안개속의 바위들
- 059 이금자 : 작은일상
- 060 장창근 : 별의 흐름
- 061 김용환 : Hard work
- 062 강영진 : 파도 속의 꿈결
- 063 김정희 : 봄을 그리다
- 064 엄창운 : 고성외 바위
- 065 이춘자 : 전통 간장의 맥을 찾아서

속초에 흐르는 문학의 숨결

- 066 김춘만 : 도치
- 067 박대성 : 설악산
- 068 신민걸 : 돈돌라리
- 069 정명숙 : 갯배와 철삭
- 070 지영희 : 속초에는 섬이 살고 있다
- 071 최명선 : 모노드라마
- 072 권정남 : 자일리톨을 씹다
- 073 심재현 : 공부시간에
- 074 최재도 : '세발자전거'의 부가 가치
- 075 서미숙 : 모네의 정원에서

설악청소년미술작품 공모

- 078 유치부·초등부 금상 작품 : 4점 / 중고등부 대상 금상 작품 : 3점

예총 이모저모

- 080 한국예총 속초지회 올해(2024)는





(사)한국예총 속초지회장 **박 치 영**

“ 예술인들이 함께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

2024년의 끝자락에서 여러분과 함께 속초예술지를 발간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과 기쁨을 느낍니다. 이번 속초예술지는 한 해 동안 우리 속초예총이 이루어낸 다양한 예술 활동과 성과를 담아내어, 우리 예술인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속초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낸 결과물입니다.

올 한해는 속초예총에게 있어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회장으로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예술의 경계를 넓혀가고 여러분과 함께 속초예총을 새롭게 바꿔나가고자 더없이 노력했습니다. 우리 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속초 시민들이 더 가까이에서 예술을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많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특히, 속초종합예술제를 ‘속초예술제’로 새롭게 변화시켜, 예술과 축제가 하나 되는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 축제는 속초의 문화와 예술을 한데 모아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산문화축전, 실향민축제, 설악문화제 등 속초의 크고 작은 행사들을 다양하게 맡아오면서 속초예총의 입지는 더욱 밝아졌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 속초예총은 지역 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며, 속초의 예술적 풍요로움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와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예술은 단순히 작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속초예술지 속에는 우리 예술인들이 함께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모여 큰 예술로 피어나고, 그 예술이 다시 우리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예술의 꽃을 피워낸 모든 예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변함없이 우리 예총을 응원해 주신 속초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도 속초예총은 여러분과 함께 더 큰 꿈을 꾸며,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의 길에 따뜻한 마음과 변함없는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속초예총의 회장으로서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속초예술지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술을 즐기고,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속초예총 회원 여러분, 진심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2024.12
(사)한국예총 속초지회장 박치영

“
속초의 예술과
문화의 흐름

속초시장 이 병 선



안녕하십니까, 속초시장 이병선입니다.

존경하는 속초 시민 여러분, 그리고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사)한국예총 속초지회 관계자와 예술인 여러분께 진심 어린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속초예술지 제24호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속초예술지는 우리 속초의 예술과 문화의 흐름을 담아내고,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기록해온 소중한 매체입니다. 매년 출간되는 속초예술지에는 예술가들의 열정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속초 문화예술의 역사와 현재를 이해하는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24호는 속초의 문화예술 정책과 발전 방향, 예술가들의 창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하니, 시민 여러분께도 특별한 의미로 다가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화와 예술은 우리 삶에 감동과 활력을 불어넣으며, 지역사회를 하나로 이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속초시는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들이 활발히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께서도 예술을 통해 더 많은 감동을 느끼고, 속초가 예술로 하나 되는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습니다.

이번 속초예술지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사)한국예총 속초지회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은 속초 문화예술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속초예술지 제24호가 속초의 문화예술을 더욱 빛나게 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시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전해 주는 매체

제9대 속초시의회 의장 방 원 욱



속초시의 문화와 예술을 이끌어 나가시는 박치영 속초예총회장님을 비롯한 속초예총 가족 여러분! 제9대 속초시의회 의장 방원욱입니다.

문학, 미술, 사진, 음악 등의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2024 속초예술 24호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술인 여러분!
인간의 삶은 예술의 자유를 통해 신장되고 더 다양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예술은 인간의 정신세계 속에 발현되는 미래이며, 인간의 의지로부터 만들어 지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술이 이제는 어느 특정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시민들의 일상이고 호흡이 되었습니다. 예술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를 선사하고, 또한 삶에 대한 의욕과 정신적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시에도 점차 질 높은 문화예술 콘텐츠들이 발굴되어 시민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속초예술 24호에 담긴 훌륭하고 수준 높은 작품들이 속초의 구석구석을 아름답게 빛내주고, 많은 시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전해 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술의 향연이 속초시민 속에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예술인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RT 모꼬지

특별한 변화를 맞이한 예술과 문화의 대축제

속초예총의 대표적인 행사 중 하나인 속초예술제 ‘ART 모꼬지’는 매년 봄에 개최되는 예술과 문화의 대축제로, 속초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는 중요한 축제이다. 2024년에는 예년과 달리 ‘속초종합예술제’에서 ‘속초예술제’로 이름을 바꾸고 특별한 변화를 맞이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 변화의 시작 - 새로운 축제 형식 도입

매년 각 협회가 2~3개월에 걸쳐 전시와 공연을 진행하던 것과 달리, 2024년에는 전시를 제외하고 공연과 체험을 3일로 집중시켜 진정한 축제의 느낌을 살리고자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들에게 더욱 축제다운 경험을 제공하고 참여의 즐거움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도였다. 축제는 2024년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속초문화예술관에서 펼쳐졌다.

2. 새로운 접근 - 홍보와 참여 극대화

올해 속초예술제 ‘ART모꼬지’는 새로운 축제 방식을 시도하였기에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게임존, 경품 이벤트를 준비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특히, 대형이벤트로 준비된 골드바 이벤트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으며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되었다.

3. 개막식과 시상식의 콜라보

이번 속초예술제의 개막식은 학생미술작품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진행되어, 개막식 참여 인원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를 통해 많은 가족과 학생들이 축제에 참여하게 되어, 개막식의 분위기가 한층 더 활기차고 다채로웠다. 개막식에서는 속초예총 회장의 개회사 속초시장의 축사, 종이비행기를 던지며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성대한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4. 다양한 협업과 체험 프로그램

올해는 특별히 군포국악협회의 콜라보를 통해 전통 국악 공연이 선보였고, 푸드트럭과 연극협회의 일상 연극을 통해 축제의 새로운 묘미를 발산하였다. 특히, 속초의 대표적인 극단 ‘파람불’의 일상형 연극 ‘속초연극상회’는 관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연극의 형태를 보여주며 큰 호평을 받았다. 다양한 예술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속초영화인협회에서는 VR 체험을 속초국악협회에서는 전통놀이 체험으로 버나돌리기, 투호 던지기, 지게지기 등이 진행되었다.

5. 축제의 성과와 평가

2024 속초예술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된 첫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많은 시민들이 축제에 참여하여 예술과 문화를 즐겼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 덕분에 축제의 만족도가 높았다. 속초예총은 앞으로도 속초예술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술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축제를 통해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 나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속초시의 예술적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힘쓸 예정이다.

6. 내년을 향한 기대 - ‘속초, 푸른 섬표’

2025년 제36회 속초예술제는 ‘속초, 푸른 섬표’라는 컨셉으로 푸른 산, 푸른 바다, 푸른 예술, 푸른 섬이 함께하는 속초 예술인들의 공간 예술축제를 기획 중이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엑스포 피노디아 광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가장 큰 메인 컨셉은 섬이 있는 공간을 만들고 예술을 접목하여 힐링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2024 속초예술제 ‘ART모꼬지’의 변화와 성과를 돌아보며, 예술과 문화의 중요성을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속초예총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예술 축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속초, 음식문화를 통해 속초시의 미래를 준비한다.

속초시가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비전은 <‘맛’으로 엮여가는 도시의 ‘멋’ 음식문화도시 속초(Culinary City, SOKCHO)>입니다.

2019년부터 속초시는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형)조성사업’(이하 문특사업)을 시작으로 문화도시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0년 속초문화재단(현재 속초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하면서부터는 문특사업을 재단이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2021년에 처음 문화도시 지정에 도전하여 제4차 예비문화도시 미선정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겪었으나, 2022년에는 제5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되며 다시 한번 도전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제5차 예비문화도시 지정 평가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게 되었지만, 현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대상지’로 지정되어 더욱 큰 기대를 모아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준비해 왔습니다.

속초시는 새로운 법정 문화도시 사업인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에 도전하며, 음식문화가 도시의 정체성과 문화를 반영하고 공동

체의 기억과 전통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라는 점을 인식하였습니다. ‘멋’이라는 단어가 ‘맛’에서 유래했다는 사실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속초는 천혜의 자연환경 덕분에 다양하고 신선한 수산물, 임산물을 활용한 계절별 음식이 발달하였고, 이러한 음식문화는 분단의 아픔을 겪은 실향민들을 통해 더욱 다채로워졌습니다. 함경도 음식문화가 속초에 깊이 녹아들어 있으며, 수산업의 발달로 인해 모여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다양한 음식문화가 함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음식문화에서 출발하여 우리는 맛에서 멋을 찾는 음식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속초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은 음식문화도시 속초를 목표로 설정하고, 컬러너리 속초 도시앵커사업, 컬러너리 속초 도시활력사업, 북위38°문화권 광역연결사업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며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속초의 특색있는 음식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기존 시민의 문화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의 사업기간 동안 가시적이고 실제 확인 가능한 성과를 이끌어 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속초시에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 기반이 되는 중요한 앵커 사업을 ‘음식문화복합공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청호초등학교 옆에 위치한 ‘속초시 수산물 공동활복장’을 리모델링하여 음식문화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속초의 음식문화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영북지역의 음식문화 자료를 비롯한 국내의 음식문화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라이브러리, 영북지역의 음식문화를 연구하는 음식문화연구소, 공연예술과 연계한 다이닝프로그램공간 등이 포함됩니다. 이 곳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제공되고, 관광객들에게는 속초의 음식문화를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음식문화복합공간’은 속초의 음식문화와 예술이 결합하여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속초시는 예비사업 단계에서 단순히 음식을 이야기하는 도시가 아니라,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복합적인 음식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음식문화와 관련한 영화를 테마로 하는 ‘2024 속초국제음식영화제’를 청호 해변에서 개최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서 대중적인 콘텐츠 산업으로 국제음식영화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다이닝프로그램 ‘동쪽의 밥상’에서는 전문 셰프와 지역 주민이 함께 사라져가는 식문화를 발굴하고 발전시켜 체계화된 레시피와 메뉴로 개

발하고, 속초연극협회와 협력하여 음식 메뉴 관련 에피소드를 담은 공연을 제작하여, 음식과 공연이 결합된 형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고성군, 양양군이 함께 참여하는 광역연계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속·고·양의 미술작가들이 함께 참여한 설치미술전시 ‘동행아트 프로젝트’에서는 속초시 수산물 공동활복장과 고성 명파아트호텔에서 지역과 도시를 리서치하고 창작한 작품을 설치미술로 전시하는 과정을 통해 작가의 영감 확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예술작업의 대중화 가능성을 보았으며, 마을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예술가들의 활동을 통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속초, 고성, 양양의 로컬브랜드와 로컬크리에이터가 함께 참여한 ‘북위38 브랜드팝업 「시너지워크」’를 추진하여 로드쇼, 전시, 프리마켓, 킥 퍼런스에 지역에서 혼자 성장해오던 대표님들이 직접 기획자이자 참여자로 함께하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를 통한 협업 창출로까지 발전해가는 계기도 만들었습니다.

이번 속초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에서 제시한 광역연계사업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문화도시에 지정된 도시가 문화도시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인근 지자체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수준을 넘어, 고성군과 양양군이 일정 부분 지자체 예산을 각각 부담하여 광역연계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2023년 8월 속초, 고성, 양양의 3개 문화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북지역으로 불리며 하나의 문화권과 생활권으로 묶이는 속·고·양이 함께 연계사업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로, 중앙정부 사업에 실질적으로 예산까지 연계하는 계획을 제시하였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도시 전체가 문화사업을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동력을 마련해가는 사업으로 기존 문화도시 사업과는 조금 차별화된 사업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문화예술사업과는 다르게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민과 연결되는 문화활동과 연계되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추진해 가야하는 사업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문화예술로 인식되던 문화사업 분야에서 좀 더 폭넓은 인문적 가치를 포괄하는 사업으로 확대되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속초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법정 문화도시에 최종 지정이 되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추진해가는 사업입니다. 법정 문화도시의 지정은 문화도시가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며 지속가능한 문화도시가 될 수 있는 씨드머니인 예산을 지원받게 되는 것으로, 향후 3년간 속초시가 발전 가능한 기반과 발판을 마련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속초시가 법정 문화도시에 지정되어 2025년부터 영북지역 문화



예술인과 속·고·양 시민,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맛>으로 엮어가는 도시의 '맛' 음식문화도시 속초(Culinary City SOKCHO)>라는 비전을 실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단법인 속초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장 김민혁



갤러리 동행 : 예술과 여행의 아름다운 만남



▲Gallery.1.

2024년 2월, 속초의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는 시기에 시작된 ‘갤러리 동행’ 사업은 지역 예술가와 속초를 방문하는 여행자와 관광객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프로젝트이다. 마레몬스 호텔, 롯데 리조트 속초, 한화리조트 설악 쓰라노, 체스터튼스 속초 등 4곳의 아름다운 호텔과 리조트에서 펼쳐진 이 프로젝트는 지역 예술가들의 독창적인 작품을 통해 여행자와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다.

‘갤러리 동행’은 Gallery.1부터 Gallery.4까지 총 4개의 구성으로 2024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진행된다. Gallery.1에는 고명녀, 고주리, 구민선, 조성호 작가가, Gallery.2에는 루다김, 김소연, 이영선, 권영희 작가가, Gallery.3에는 윤석선, 김주향, 이순재, 이미연 작가가, Gallery.4에는 정혜진, 정미, 김정희, 조정남 작가가 참여하여 각

자의 개성과 열정을 담은 작품을 선보였다.

‘갤러리 동행’은 단순한 전시를 넘어 지역 작가와 여행자, 관광객이 서로의 삶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자 했다.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속초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속초 예총과 민예총 소속 예술가들과 협력하여 지역 작가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담은 작품을 호텔·리조트에 전시하고, 소규모 아트마켓을 통해 속초의 예술을 속초를 방문하는 여행자와 관광객들에게 소개했다. 예술이 여행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스며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특별한 경험은 속초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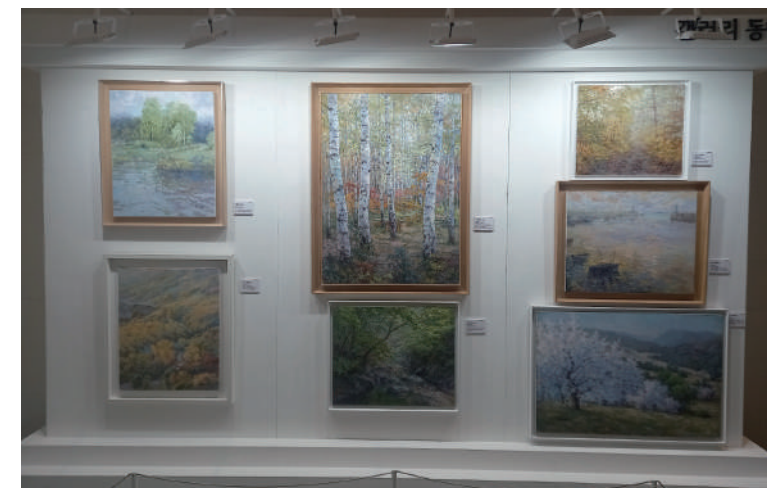
‘갤러리 동행’의 시작은 2023년으로, ‘속초 예술관광 시범사업(음



▲Gallery.2.

직이는 미술관’)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며 지역 예술의 가능성을 확인하면서부터였다. 어영옥, 임홍빈, 추니박, 지오희 작가의 작품이 속초의 여러 호텔에서 순회 전시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여행자, 관광객들이 지역 예술의 매력을 발견했다. 이후 2024년 ‘갤러리 동행’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더욱 확대된 사업으로 인해 지역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여행자, 관광객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아름다운 만남의 장이 되었다.

앞으로도 ‘갤러리 동행’은 지역 예술의 가치를 높이고, 속초를 문화 여행지로서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이 사업이 사람들의 여행에 예술의 감동을 더하고, 지역 작가들의 꿈을 이루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Gallery.3.



▲Gallery.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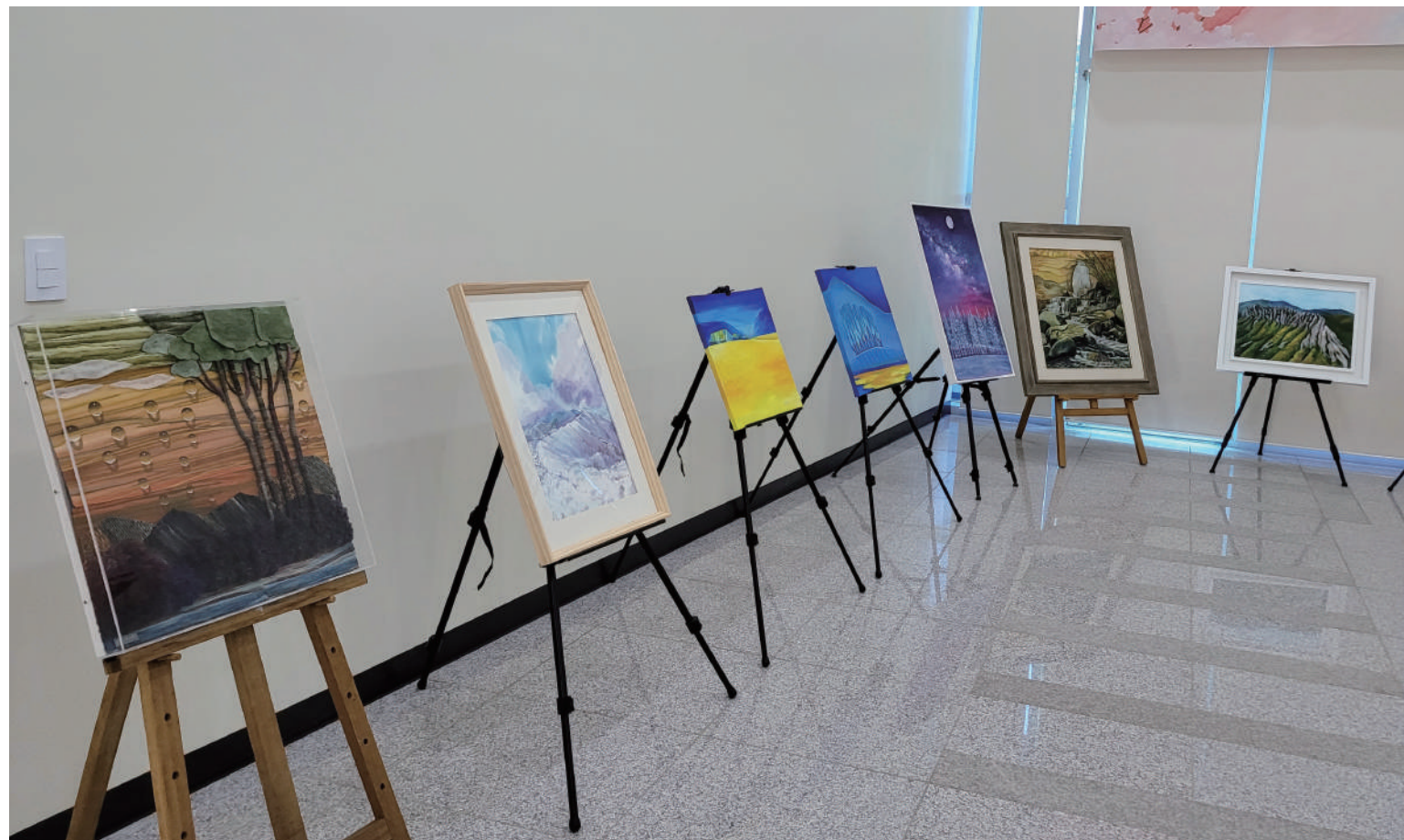
국립산악박물관 작은 전시 ‘산’의 다양한 얼굴을 만나다

속초 국립산악박물관에서는 ‘산’을 주제로 한 작은 전시가 열렸다. 이 전시는 산악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속초예총의 사진작가협회와 미술협회가 참여하여 각각의 예술적 시각을 통해 ‘산’을 조명하였다.

1. 첫 번째 전시 : ‘산, 거닐다’

2024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속초사진작가협회는 ‘산, 거닐다’라는 주제로 첫 번째 전시를 선보였다. 이번 전시에는 속초사진작가협회의 회원 10명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각 작품은 산의 다양한 면모를 사진으로 담아내어, 관람객들에게 산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전달하였다.

‘산, 거닐다’ 전시는 산을 거닐며 마주한 순간들을 포착한 사진들로 구성이 되었으며 각 사진은 산의 웅장함과 고요함, 그리고 그 속에 깃든 자연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담아낸 작품들이었다. 각 작품들은 산의 잘 알려지지 않은 공간들과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산의 아름다움, 사계절의 변화 등 다양한 모습들이 사진작가들의 시선



을 통해 새롭게 해석되었다. 이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산을 더 깊이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2. 두 번째 전시 : ‘산, 풍경속으로’

이어지는 전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속초미술협회가 주관한 ‘산, 풍경속으로’였다. 이 전시에는 총 11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각자의 예술적 감각과 스타일로 산을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속초미술협회의 작가들은 유화, 수채화, 수묵담채의 고전적인 멋, 그리고 섬유재료의 독특한 질감을 통해 산의 다양한 면모를 선보였다.



이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산의 다양한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예술을 통해 산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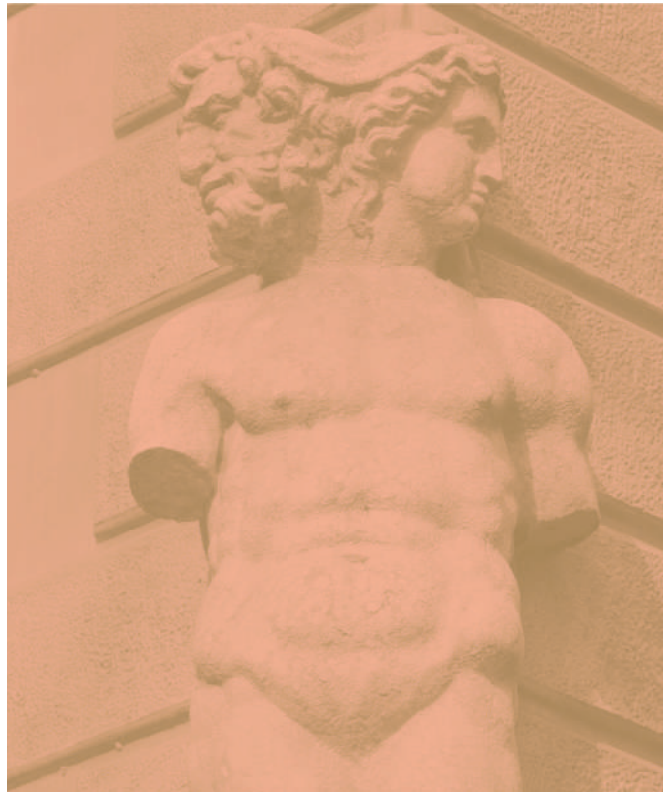
3. 전시의 의의와 평가

이번 국립산악박물관의 작은 전시는 산을 주제로 한 다양한 예술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산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속초사진작가협회와 속초미술협회의 참여로 이루어진 이번 전시는 각기 다른 예술적 시각을 통해 산을 새롭게 조명하며, 많은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속초예총은 앞으로도 이러한 전시를 통해 예술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간을 제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산악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지속적으로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며, 속초의 예술과 문화를 널리 알릴 계획이며 이번 전시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사람들이 예술을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길 기대하고 있다.

윤홍렬 소설 「입산증」에 나타난 선과 악, 두 얼굴의 변주곡과 원조 보이스피싱voicepishing

시인 권정남



1. 처음 얘기

제임스 조이스는 “소설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 인생을 나타내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소설은 대부분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체험에서 있을 법한 가상의 세계를 산문 형식으로 써낸 이야기이다. 소설이 허구의 세계인 줄 알면서도 작품을 읽고 나면 그 울림이 오래도록 가슴에 여운으로 남아 있을때가 있다. 우리는 그 여운을 감동이라고 한다. 예술은 독자에게 주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작가들은 창작에 몰입을 하게 된다.

누구나 본인이 선택한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문학작품을 통하여 독자들은 또 다른 삶을 간접 체험하게 된다. 과학이나 물질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어 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작가는 그런 현대인들에게 소설을 통하여 인간들이 소유하고 있는 참다운 본성은 무엇인가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윤홍렬 소설가의「입산증」은『갈피』7집에 게재되었으며 50여 년 전에 발표한 작품으로 작가가 1970년대 중반에 쓴 작품이다.「입산증」은 인간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본 성정인 선과 악의 양면성을 적나라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작가는 주인공인 문복근 같은 부정적인 사고와 왜곡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며 소설을 썼다. 마치 오늘날 보이스피싱 같은 비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듯하다. 작가는 먼 미래를 내다보며 현대 사회와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을 소설의 주제로 택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 본다.

「입산증」에 등장하는 장천만과 문복근 그리고 문복근 처를 비롯한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 삶을 돌아보게 하고 주인공들의 성장과 그들 삶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숙명적인 가난과 치열한 삶, 외면한 양심은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체험의 잔재나 사물을 새로운 이미지로 형상화시키는 것을 상상력이라고 한다. 루이지 피란델로는 “작품 속의 인물이 실존 인물일 때는 작가 자신의 독특한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러나 단지 등장인물에 의해 시사되는 상황에서 그들의 행동이나 언어 등을 그대로 묘사하는 길 밖에는 별도리가 없다.”라고 했다.

과학이 이론을 추구하는 지적 사유능력에 의존한다면 예술은 예술가의 체험과 이상을 작품 속에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묘사하는 것을 말한다. 작가는 삶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얻은 체험을 통해 픽션 즉 허구적인 스토리를 창출하게 된다. 발단부터 전개 위기 갈등 결말까지 등장인물들을 선별하며 한 편의 소설을 골똘히 엮어 가는 것이다.

임신 중독증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 생각해 보면 아무리 만삭이라 할지라도 얼굴이 누렇게 뜨고 통통 부었으면 벌써 누구에겐가 문의를 했어야 하였을 텐데 그걸 몰랐

다니…. <중략> 그런 증세로는 몸을 풀자면 병원엘 가야 하는데…병원엘 간다 할지라도 돈을 꾸릴 수 있는 방도로 산삼까지 있었는데 말이다. <중략> 어서 문복근을 찾아가자. 아무리 읍내라 할지라도 산삼을 살만한 사람이 흔하지는 않을 것이다.

환갑 진갑 지난 주인공 장천만은 간호사한테 아내의 임신 중독증 얘기를 듣고 당황한다. 당장 병원 갈 돈도 없는데 가난과 싸우는 주인공 장천만이 아내를 살리기 위해 갈등하고 당황하는 모습이 소설 첫 부분에 시작이 된다. 발단부터 작가는 장천만과 문복근 두 캐릭터의 선과 악의 분명한 성정을 복선으로 깔아 놓으며 이야기를 전개한다.

제발 내가 갈 때까지, 아니 속초에 당도할 때까지는 몸을 풀지 마라. 심 값을 받으면 달려가, 차가 없으면 지게 위에 태워서라도 속초의 큰 병원에 데리고 가마….

왼쪽 다리를 절름거리리는 몸인데 막달이 차서인지 요즘은 더욱 뒤통거리며 밥 짓기조차도 힘겨워하는 아내, 근 육 년을 함께 살아오는데도 감기 한 번 앓은 적이 없는 아내가 그 몸쓸 병으로 씨근덕거리리는 것을 생각하면 불쌍하기 짝이 없다.

장천만은 출산을 앞두고 임신중독증인 아내의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산삼을 가지고 삼미정 주인 문복근을 찾아갔다. 작가는 주인공 장천만을 성실하고 순박한 캐릭터로 설정을 했다. 하지만 음흉한 문복근은 산삼을 팔아 주기보다 뺏을 생각부터 먼저 한다.

문복근은 세상 앞에 선량하고 순박한 자를 엮친 데 덮치듯 궁지에 몰아넣을 궁리를 한다.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동산여관에서 삼을 팔기위해 장천만이 문복근을 기다리는 장면이 배경으로 설정이 되었다. 작가 윤홍렬은 대비되는 두 캐릭터들의 불신과 위기 장면을 복선으로 깔아 놓는다.

그러나 오십만 환이라는 돈 액수가 하도 기가 차는 큰돈이어서 감히 입이 벌어질 것 같지가 않아서 줄이고 줄여서 이십만 환을 받기로 예정하고 왔다. <중략> “어서 말씀해 봐요.” 그렇다면 아내의 일이 큰일이다. 병원엘 데리고 갈 방도가 막막하다. 최소한 이만 환은 줄 것이라는데 칠천 환도 후한 것이라면 이 일을 어떡하면 종단 말인가.

문복근의 계략에 장천만은 서서히 휘말리기 시작한다. 오십만 환이지만 산삼을 이십만 환 정도로 받아야만 아내의 병원비를 낼 수가 있었다. 하지만 문복근이 칠천 환을 얘기하니 장천만은 막막하다. 산삼을 흥정하자는 것을 장천만은 예견한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작가는 흥정이 아니고 남의 산삼을 강제로 뺏으려는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여 주며 두 주인공의 성향을 제시한다. 소설에서 전개될 위기와 갈등이 펼쳐지고 등장인물들의 삶의 위기는 독자들을 긴장시킨다. 이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도 있지만 이기적인 상반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물질을 우선시하는 행태는 50년 전이나 오늘날 현대사회나 유사하다.

선 오펜란이 “소설이란 위스키와 같아서 술통 안에서 충분히 숙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듯이, 윤홍렬 작가는 소설「입산증」작품 구성이나 소설 속 등장인물을 선별할 때 충분히 숙성되고 농익은 캐릭터들을 선정한다. 미래를 내다보며 먼 훗날의 독자를 의식하는 윤홍렬 작가의 예시 안을 느낄 수가 있다.

3. 원조 보이스피싱과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

윤홍렬 소설가의 소설을 접할 때마다 천부적 재능을 가진 작가라는 생각이 든다. 여러 편의 중 단편 소설과 미완성 장편 소설을 읽으면서도 느낀 바이지만 「입산증」 소설을 읽으며 윤홍렬 소설가의 작가적인 역량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다.

“인생과 문학을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나는 통감한다. 모든 훌륭한 것들의 배후에는 개인이 서 있으며, 인간을 만드는 것은 시대가 아니고, 시대를 창조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오스카 와일드는 말한다. 것처럼 윤홍렬 소설가가 분단지역인 속초의 시대적 상황을 소설의 배경으로 하는 글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윤홍렬 작가의 어떤 소설이든, 읽으면 필연적으로 긴장과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소설의 주제와 메시지 특히 등장인물의 선정과 주인공 캐릭터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작품의 진가를 가늠하게 된다.

1) 선함과 순수함을 유린하는 야누스적인 두 얼굴

문복근은 장천만이 가지고 온 산삼을 공짜로 빼앗고 사기 칠 궁리를 한다. 오십만 환 정도 가격이 나가는 산삼을 저울 눈금을 속여 세돈 밖에 안 나간다고 비아냥거리며 가격을 안쳐 주려고 작정을 한다. 식당 삼미정을 경영하며 물질적으로 풍족한 문복근은 삼이 비싸다고 하며 가짜 경찰을 동원하여 계획을 세운다. 예나 지금이나 성정이 올바르게 못한 자들이 가난하고 약한 자를 이용하고 등쳐먹기를 우선으로 한다. 그런 인간은 어느 시대와 사회를 막론하고 독버섯처럼 존재하고 번식하는 것이다.

작가 윤홍렬 소설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기본성향은 대부분 이타적이며 인간적인 휴머니즘에 근본을 두고 있다. 그러나 소설 「입산증」에서 작가는 한 얼굴에 두개의 탈을 쓴 야누스적인 양면성을 소유한 얼굴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선량한 주인공을 위기에 몰아넣는다. 20세기 디지털시대의 현대판 보이스피싱들의 사기 수법과 방법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노력하지 않고 남의 돈을 갈취하려는 소설 속 1970년대 아날로그 시대의 문복근과 가짜 경찰들의 수법은 무엇이 다르랴. 아내의 치료비에 보태려고 가지고 온 산삼을 빼앗으려고 가짜 순경들과 모략을 하는 문복근은 짐승의 탈을 쓴 인간이다.

“이십만 환은 받을까 하는데요.” 말이 떨어지자 예측했던 대로다. “이 십…만…환…요?” 문복근은 기절을 할 듯 놀란다. 장천만은 말하기가 싫어서 고개만 끄덕였다. 문복근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아이구, 이십만 환이 뭐유? 이십만 환이, 오천 환도 안 된다는데. 킁킁” 어처구니없다는

듯 웃어 짓히며 장천만의 표정을 훑는다. “오천 환도… 안 돼요?” 장천만도 놀란다. <중략> “집에는 돈이 없어서 나가 돈을 구해야겠으니 요뒤에 동산여관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기다리슈. 내 전화를 걸어 놓을 테니까.”

가격이 오십만 환하는 산삼 액수를 줄여서 이십만 환으로 흥정하자 문복근은 오천 환도 안 된다고 하다가 장천만이 임신 중독증 아내 얘기를 하니 이만 원에 흥정한다. 그러면서 가짜 순경들과고 무슨 모략을 하는지 동산여관에 가 있으라고 한다. 소설은 점점 장천만을 위기로 몰아가고 스토리는 절절한 상황에 직면한다. 힘들고 아픈 자를 더 아프게 하는 극적인 장면에서 독자들은 손에 땀을 쥐게 되고 소설의 주제가 드러나게 된다.

2) 형사를 위장한 원조 보이스포싱의 계략

사회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사는 곳은 어디나 마찬가지이다. 순자가 말한 성악설이 있고 맹자가 말한 성선설이 있듯이 인간은 누구나 야누스적인 선과 악의 두 성정을 가지고 있다,

어느 쪽이든 내면 깊숙이 본성이라는 것이 있다. 하지만 어떤 상황과 직면했을 때 그 두 성정 중 숙명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가끔 보게 된다. 그런데 윤홍렬 작가가 선정한 등장인물들의 캐릭터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인 선과 악의 성정이 작품 속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설「입산증」에는 악의 선정이 우위를 차지하도록 복선을 깬다. 하지만 작가는 주인공인 장천만이 선을 향해 몸부림치는 절규와 진실한 메아리에 손을 들어준다.

“저 있잖아요. 이 아저씨들이 경찰 아저씨들이래요. 근데 있잖아요? 할아버지한테 뭘 조사할 것이 있대요.” “…?” <중략>그 심인지, 산삼인지는 어딴수?” “문복근 씨가 가지고 제시니다요.” “그래요? 예또… 그 산삼은 어디서 켜수?” “저의 집 근처서 켜습니다요” <중략> “그러면… 입산증 있소?” “…네?” “왜 있잖아요? 경찰서장이 내주는, 말하자면 산에 들어가도 좋다는 허가증 말요.” <중략> 자기 집에 들어가는 데도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겠는데, 전혀 못 들었다. 문복근이 두리번거리며 들어온다. <중략> 문복근은 자못 친숙한 듯 그 청년들과 악수를 나눈다. 장천만은 두 다리를 쭉 뻗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놓인다. “그런데…” 문복근이 잠바 차림에게 묻는다. “김 형사, 무슨 일야?” “이 영감을 좀 조사할 것이 있어서 본서까지 연행을 해야겠어요.” “경찰서까지?” <중략> “경찰서에 가기만 하면 최소한 육 개월 징역 아님 오천만 환 정도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지 뭐유.” “…?” <중략> 산 넘어 또 산, 강 건너 또 강이로구나.

문복근은 가짜 경찰과 형사 노릇을 하는 남정네와 짜고 장천만의 산삼을 빼앗을 궁리를 한다. 그들은 백주 대낮에 얼굴을 훤히 드러낸 소설 속에 등장한 원조 보이스포싱들이다. 장천만이 산에 들어가는 허가증 즉 입산증을 제시하라고 한다. 선량한 장천만을 등쳐먹기 위한 문복근과 가짜 경찰들의 모략이다. 결국 문복근은 입산증 없이 산삼을 켜다는 이유로 오천만 환 벌금, 아니면 징역을 6개월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시대 보이스포싱들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뺐는다.「입산증」에 등장하는 문복근과 가짜 경찰 사기꾼들은 보이스포싱 못지 않은 거짓말로 장천만을 농락하며 사기를 치는 것이다.

요즘 보이스포싱들은 중국에 현주소를 둔 사기꾼 집단들이다. 금융기관을 자처한다든가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가족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다며 치료를 위해 사실인 양 여러 가지 수법으로 돈을 요구한다. 그렇게 감쪽같이 가족들을 속인 후 돈을 착취해가는 것이 그들의 계략이고 수법이다. 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수법이 교묘하여 전화를 받고 그들의 계략에 사람들은 자칫 많은 돈을 뺏기기도 한다. 금융기관에서도 고령층 고객들에게 주의를 주며 보이스포싱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규제를 하고 있다.

50여 년 전 윤홍렬 작가가 쓴 소설 「입산증」에 등장하는 문복근과 가짜 사복경찰들이 현대판 보이스포싱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든가. 그들은 소설 속 인물이지만 1970년대에 등장한 원조 보이스포싱인 것이다. 윤홍렬 소설가는 미래를 내다보는 예시안적인 안목을 가진 작가다. 50년 뒤에 일어날 미래 사회의 문제를 주제로 다루었으며 소설 속 문제점을 20세기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의미 있게 제시 하며 경고한 것이다.

모자와 바랑이 없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문복근의 집에서 동산여관에 갈 때에 놔두고 갔었다는 것을 알았다. 삼미정 앞에 왔다. 그런데 아까는 그렇게 아무 스스럼없이 들어설 수 있던 집인데 이제는 도무지 들어가기가 싫다. <중략> “야, 너 그 영감 다루는 품이 진짜는 왔다가 울고 가겠더라.” 밤색 잠바의 목소리 같다. “인마, 실력이 없어서 그렇지 이래 뵈도 법과대학 출신야.” 녹색 잠바의 음성이다. <중략> “그 영감탱이가 말야” 문복근의 음성이다.

“술직하게 좀 봐 달라고 했으면, 알지 못하는 거지 동냥도 주는데 말야. 더더군다나 우리 집에서 며슴살이를 평생 살다시피 한 영감이니, 몇만 환 집어 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놈의 영감탱이 하는 말이 뭐? 마누라가 임신 중독증이라나 뭐라나… 하면서 이만 환을 받겠다느니 웃 몇 벌을 해 달라느니 하는 게 밍살머리스럽더라 말야. 그래서 내 자네들을 불러 댄 거야.” “이천 환 줘. 그것도 안 줄 수도 있는데, 안 주면 또 울고불고 할까 봐 줘지.” 장천만은 마음을 가다듬었다. <중략>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는 속담이 사실이라는 것. 장천만은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이윽고 웃으며 니에서 반으로 꺾인 백 환짜리 뭉치를 꺼내 문복근의 이마에 던졌다. “성철 아버지. 그 돈도 가져요. 내가 울까 봐 줬다고 했는데, 나 울지 않아요. 내 심은 성철 아버지가 잡수슈. 제발 병이나 고치슈.” 방에서 나오니 비켜서서 엎드고 있던 문복근의 아내가 눈물을 글썽거리며 서 있다.

문복근은 경찰들과 미리짜고 입산증 없이 산에 가서 산삼을 켜니 벌금 오천만 환이나 6개월을 징역 살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던

가. 눈물 흘리며 장천만이 경찰들한테 빌자 문복근은 오십만 환이나 되는 산삼을 이천 환 던지며 동정하지 않았던가?

문복근과 가짜 형사와 순경 그들의 치욕적인 계략을 문밖에서 듣고 있던 장천만은 치를 떨며 더러운 돈의 노예가 된 그들에게 환멸을 느꼈다. 임신 중독증 아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리라고 했던 그 돈을 문복근 이마에 던져 버린다. 그리고 산삼은 문복근이 먹으라고 했다. 이 대목이 소설의 클라이맥스 즉 절정 부분이며 독자들은 대리 만족을 갖게 된다.

작가는 소설의 스토리를 여러 복선을 깔더니 클라이맥스 절정에서는 선한 장천만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던가. 윤홍렬 소설가의 소설은 읽는 맛과 스토리 전개와 반전과 역발상에 있지 않은가를 느끼게해준다. 윤홍렬 작가의 모든 소설에서 인간적이고 휴머니즘적인 메시지가 담긴 내용들이 공통적인 주제가 아니었던가.

4. 입산증이 의미하는 양면성과 인과응보因果應報의 대가

어떤 소설이든 작가는 소설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산정한 후 복선을 깔아놓고 위기와 갈등을 연출한다. 윤홍렬 작가는 소설 속 등장인물 중에 주인공을 선별할 때 인간적이며 선량한 캐릭터를 우선으로 정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1) 이타적利他的인 삶 앞에 선善이 의미하는 메시지

「입산증」에서도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유일하게 힘든 장천만을 인간적으로 대접하며 도와주는 문복근 아내를 선의 표상으로 삼고 있다. 작가는 문복근과 그의 아내 두 캐릭터를 등장시켜서 그들의 인간적인 면과 성격적인 성향을 대비시켜 진정 가치있게 살아가는 캐릭터가 누구인가를 독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 여인은 쟁반 위에 있던 누런 종이에 쓴, 수박덩이만 한 뭉치 하나를 장천만의 바랑을 당겨 쭈서 넣으며 “이거, 돼지고기 삶은 건데 아주머니 갖다드리세요” <중략>장천만은 눈시울이 더워졌다. 전에도, 경식이를 낳았을 때 축하한 다면서 모자의 내복을 한 벌씩 사 주었고, 또 지난가을에도 장천만 부부의 내복 한 벌씩을 사 준 일도 있다. 그런데 또 이제는 고기까지 한 뭉치를 싸준다. 지금까지 생애에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따듯한 대접이기에 가슴이 뭉클거린다. 그런데, 제발 얘기도 넣고 문복근이와 금실 좋게 잘 살았으면… <중략> 고맙다는 인사도 못하고 눈물에 술이 섞이고 술에 눈물이 섞이는 식으로 마셨다.

소설「입산증」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휴머니즘적인 삶을 실천하는 표상으로 문복근 아내를 작가는 선정했다. 가상의 인물이지만 혼탁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요 인물인 것이다. 윌리엄 포크너는 “작가에게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경험과 관찰력, 그리고 상상력인데 그 셋 중에서 둘, 때로는 한 가지만 있으면 비록 다른 것이 약하다 해도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듯이「입산증」에 등장하는 인물은 주로 이기적이고 사기 치는 인물들이지만 작가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문복근 아내를 선을 실천하는 캐릭터로 선정

하고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인생에 있어서 한번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진정성이 담긴 목소리로 작가는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아내 일이 몹시 궁금하고 경식이가 불현듯 보고 싶으면서도 가기가 싫다. 그저 어디론가 정처 없이 지향 없이 휘적휘적 걸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어디로 갈까. 얼마간을 공연히 두리번거리다가 발길이 큰길 쪽으로 옮겨진다. 문득 허전한 생각이 들었다. 뭘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 같다.

산삼도 못 팔고 오십만 환 하는 산삼을 이천 환을 주며 사기 친 문복근 이마에 던져 버렸으니 돈이 없지 않은가. 먹을 것도 없는 집에 아내와 어린 아들을 생각하니 불안한 예감이 들어 집으로 가는 것조차 내키질 않게 된다. 윤홍렬 작가는 生과 死를 넘나드는 장천만의 아내의 위중한 상황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며 소설을 마무리한다.

현진건의 소설「운수 좋은 날」에서 주인공 김 침지는 인력거꾼으로 생계를 꾸려간다. 며칠 굶은 병든 아내를 두고 일하러 나온 그 날은 손님이 많아서 늦게까지 일을 했다. 설렁탕이 먹고 싶다는 아내를 위해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자 아내는 죽어 있고 아들 개똥이는 빈 젖꼭지만 빨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비극적인 소설이다. 두 소설의 결말에서 처참한 生과 死의 갈림길에서 갈등한다.「입산증」의 장천만 아내와「운수 좋은 날」의 김 침치 아내와 상황이 유사하다. 소설 속 두 주인공들이 비슷한 캐릭터임을 유추해 본다. 즉 아내를 살리기 위한 그들의 치열하고도 몽클한 삶을 묘사했다고 볼 수 있다.

2) 입산증入山證의 진정한 의미와 양면성 그리고 아이러니

그래 입산증이 있어야겠다. 그 입산증만 있었더라면 그놈의 가짜 경찰 놈들에게 놀림을 안 받았었겠는데… 경찰서엘 가자, 읍에 왔던 김에 입산증을 받아 가자. 경찰서가 있는 곳은 안다. <중략> “이거 봐, 입산증 줘. 영? 빨리!” 장천만은 순경을 밀쳐내고 건물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선다. “어디로 가는 거요?” “나 입산증 받으러 갑니다요. 나리.” “입산증이 뭐요. 빨리 이리 나와요” <중략>“영감, 도대체 서장을 만나서 어찌자는 거요?” “입산증을 내란 말야. 입산증” “입산증이 뭐야?” 장천만은 의기 있게 말했다.

주인공 장천만은 경찰 서장이 발급한 입산증 즉 산에 들어가는 허가증이 없어서 오십만 환짜리 산삼을 이천 환에 문복근한테 강제로 뺏겼다. 문복근과 가짜 순경들의 모략에 장천만은 당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산속에 있는 집에 들어가자면 허가증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경찰서에 가서 산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증 즉 입산증을 달라고 떼를 썼지만 순경들은 무슨 소리인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 한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이 문명이 발달하고 현대사회가 발전할수록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기법이 늘어나고 성실하고 선량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1979년 즉 50년 전에 윤홍렬 소설가가 인간의 양면성을 주제로 한「입산증」소설을 썼다는 것은 미래 사회를 내다보는 상당한 예지력을 소유한 작

가임을 알 수 있다.

“문복근이가 죽었대.” “아니, 삼미정의 문복근이 말야?” “왜 아냐. 이 동산읍에 문복근이가 또 있나?” <중략> “심장 마비라나 봐.” “무슨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지?” “응, 한 백 만 환짜리도 넘는 산삼을 삼만 환에 때려잡으려다가 들통이 났다나 봐.” “가만있자. 그게 바로 입산증 아냐?” “그래, 이 봐요. 영감님, 죽는 게 바로 입산증이에요. 영감님도 돌아가 심 바로 입산할 자격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 이 영감이 돌 았나? 죽었나?” 장천만은 입을 벌긔이 벌린 채 멀건 눈으로 허공을 쳐다보며 뺨뺨이 서 있다.

착한 일은 권하고 악한 일은 징계를 받아야 하는 권선징악의 이치 를 윤홍렬 작가는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잘 제시해주었다. 중상모 략을 일삼는 문복근은 심장마비로 급사한다. 인과응보 죄의 대가 다. 문복근이 죽어 산으로 들어는 것이 진짜 입산증이라는 것을 작 가는 결론을 내렸다. 소설 결말에서 반전되는 작가의 역발상과 재 치에 무릎을 치게 된다.

윤홍렬 소설가는 선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캐릭터를 결말 부분 엔 벌을 받게 하던가 죄의 대가로 급사하게 한다. 작가가 의도하는 소설의 메시지가 완벽하게 전달이 되었다.

소설 속 주제가 권선징악임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현대소설에 비 하면 때론 식상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작가 윤홍렬 소설의 특징은 자기 이익에 급급하고 정의롭지 못한 캐릭터들, 왜곡된 성향을 가 진 등장 인물들에게 인과응보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 즉 올바른 사 회를 구축하며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의 진면목을 독자들에게 건 달했다고 볼 수 있다.

5. 끝 이야기와 제언

윤홍렬 작가의 소설은 직접 체험한 시간적·공간적 환경이 주로 소설의 배경이 되고 있다. 속초에서 생활하다가 보니 분단을 주체 로 한 실향민들의 삶과 오랜 세월 동안 교직에 근무했던 경험이 글 의 소재가 되어 여러 편의 소설을 썼다.

소설 「입산증」을 살펴보면 삶의 경험과는 상관없는 주제로 집필 했으며「입산증」은 인간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본 성정에서 선과 악 양면성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소설이 허구의 세계인 줄 알면서도 작품을 읽고나면 여운이 남는다. 예술의 궁극적인 목표 는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작가들은 창작에 몰입 하게 된다.

소설「입산증」의 주제는 인간의 기본 양심은 어디까지인가를 생 각해 보게된다. 그 과정에서 한 편의 소설을 창작하기위해 작가는 수많은 낮과 밤을 고뇌하였으리라.

또한 원조 보이스피싱과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에서 순수함을 유 린하는 야누스적인 얼굴을 드러낸다. 작가는 두 개의 탈을 쓴 얼굴 을 노출시키며 위기로 몰아간다.

악의 표상인 문복근 일행의 사기 수법에서 현대판 보이스피싱을 상기하게된다. 원조 보이스피싱의 모략에서 상처받은 장천만은 선 을 근본으로 하고 있으며 사기 수법이 능후한 문복근과 경찰을 위 장한다. 그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독버섯처럼 번식되고 있음을 작 가는 어필한다.

「입산증」에서 의미하는 인과응보의 대가에서 이타적인 삶과 선 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작가는 가장 휴머니즘적인 인물로 문복 근 아내를 선정했다.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는 본이 되는 캐릭 터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입산증’이 의미하는 선과악 양면성에서 인과응보이듯 문복근은 생을 마무리했다. 말 그대로 입산 즉 죽어서 산으로 가게 한 것이 바로 입산증이다. 소설 결말에서 반전되는 작가의 역발상이 경이 롭다. 즉 착한 일은 권하고 악한 일은 징계를 받아야 하는 권선징악 의 이치가 소설의 주제로 때론 식상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소설 의 결말 부분에서 삶의 분명한 목표를 암시해 주었다. 또한 윤홍렬 소설의 특징은 자기 이익에 급급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캐릭터들을 급사 시키던가 제거하므로 인과응보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 즉 작 가는 올바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의 진면 목을 미래의 독자들에게 호소했다고 볼 수 있다.

작가 윤홍렬은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는 속초에 ‘설악문우회’를 창설하였으며 속초 문학의 초석을 깔아 주었다 속초 문화에 기여 한 바가 크다. 유홍렬 작가의 작품과 삶이 지역 문인들을 통하여 꾸 준히 연구되고 저변 확대되길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권 정 남

1987년 『시와 의식』, 2016년『현대수필』 등단, 『나사뭇의 기억』 외 시집 5권, 『겨울 비선대에서』 수필집 출간, 전영택 문학상, 강원사랑시화전대상, 강원문학상 외 다수 수상, 한국문인협회, 한국시인협회, 강원문인협회 및 속초문인협회 활동

<후산 최명길 시인 10주기 추모행사 발표문>

화염과 법화의

‘인간적 우주’

- 최명길 시인의 문학 세계 -

시인 박호영

최명길 시인은 영면하기 2년 전에 펴낸 시집 『하늘 불탱』 ‘시인의 산문’에서 “나는 ‘화염’ ‘법화’의 언저리를 한동안 어슬렁거렸다. 그리고 이 『화염』 『법화』라는 미증유의 괴물을 평생 머리에 이고 이 또한 스승으로 모신 판으로까지 돼 버렸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시인이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일이 없는 ‘미증유의 괴물’이라고 할 만큼 『화염경』과 『묘법연화경』은 분량이 방대하고 그 경지가 묘오한 경전 중의 경전입니다. 시인은 두 경전을 평생 스승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시인의 시와 산문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애기와 통합니다. 오늘 저는 제 능력에 벗어난 일이긴 하나 시인의 문학에 반영된 두 경전의 흔적을 소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인이 『화염경』을 언제 대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효 사상의 대가인 불연 이기영 선생을 따라다니며 3년간 그로부터 불교의 교리를 배웠으며, 원효가 다름 아닌 화염 사상의 대표적인 인물 중의 하나라는 사실만 갖고서도 시인이 일찍이 『화염경』을 접했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염경’의 핵심은 연기론입니다. 연기론의 골자는 모든 사물들은 서로 의존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모든 현상은 인과 연

의 상호관계 속에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 아닌 것들에 의지해서 존재하니 나 아닌 것들에 대해 무심해서는 안 된다고 교설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마음」이라는 물건」이란 산문에서 “나 아닌 타자를 인정하고 배려함으로써 나 아닌 타자 또한 반짝이는 별빛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인간 세상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타자 속에는 인간만 속한 것이 아니다. 인간 이외의 자연 사물이 다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만상을 별빛 같은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찰나적인 이슬도, 징그러운 굼벵이도 배려해야 하는 타자입니다. 그들을 인정하고 배려한 결과 이슬에서 바다의 영원한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굼벵이로부터 걸림 없는 삶을 보기도 했습니다.

『묘법연화경』은 인간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갖추어져 있는 불성佛性を 인정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신뢰를 설한 경전입니다. 시인은 20세 때 대승사 주지 최수운 선사로부터 『묘법연화경』을 받았고, 그 경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평등과 조화를 시나 산문에 반영시켰습니다. 평등과 조화는 만상을 차별없이 인식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인간과 다른 중생을 모두 포괄적으로 안으려는 사유입니다. 시인이 『묘법연화경』 <상불경보살품>에 나오는 ‘상불경보살’에 눈길을 준 것은 그 보살이 “모든 사람을 가벼이 하지 않으며, 인간에 대한 가없는 신뢰와 존송을 실현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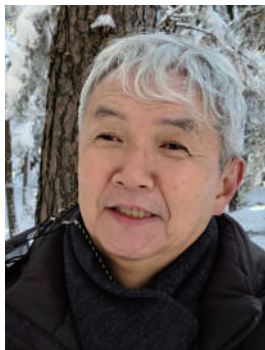
평등과 조화는 원효의 화쟁 사상과 상통합니다. 시인이 원효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은 그는 원효의 대표적인 저서인 「대승기신론소」를 논거로 하여 석사 논문을 작성했다는 데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화쟁은 이것과 저것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이것과 저것의 다를 것을 부정합니다. “하나도 아니요, 그렇다고 둘도 아니다”라는 ‘불일이 불이不二가 바로 그 철학을 대변합니다. 대립이 아닌 원용의 지혜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시인은 그의 글 곳곳에서 ‘우주’에 대한 그 나름의 견해를 표출했습니다. 거대한 바위나 나무를 ‘우주적 일심一心의 한 가족’이라고 한다든지, “내 몸이 우주와 별개가 아닌 한 몸이다. 우주와 나는 동체다.”라는 언급이 그에 해당됩니다. 운명하기 이십 여일도 안 남은 ‘남’ 시인상 수상식에서는 “내 개체의 자성自性은 우주 법계의 본질과 하나다. 내 자성을 알아차리는 바로 그 자리가 우주 법계가 현현하는 본성의 자리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소불에 기대 홀로 거닐며」라는 산문에서는 “우주 본체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다.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문득 생각나는 것이 타고르가 말한 ‘인간적 우주’입니다. 1930년 7월 베를린 외곽의 한적한 마을 카푸스에 있는 아인슈타인의 집을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열여덟 살 아래인 아인슈타인을 타고르가 찾은 것은 현실의 본성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세상과 단절된 신성한 존재가 있다고 믿나”는 아인슈타인의 물음에 타고르는 “전체 우주는 개인으로서의 우리 각자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을 ‘인간적 우주’라고 한다”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덧붙이길 “우리의 우주가 인간과 조화를 이룰 때 이것이 진실임을 알게 되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타고르의 ‘인간적 우주’는 최명길 시인의 우주 의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는 우주와 인간의 조화를 지향했습니다. 『최명길 시인 산문집』을 펴낸 김영탁 시인이 ‘후기’에서 밝힌 대로 시인은 시와 산문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꿈꾼 것이 바로 ‘인간적 우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삶의 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 독단과 아집으로 비인간적인 사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시점에서 최명길 시인의 문학 세계가 지니는 의의는 자못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가셨어도 시인의 말은 남았습니다. 그 전언傳言을 우리 모두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호 영



서울 출생. 1979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평론 당선. <시와 시학>으로 시인 등단.

시집 <오두막집에 램프를 켜고>, <그대 아직 사랑할 수 있으리>, <바다로 간 진흙소>, <저 너머>, 시선집 <아름다운 적멸>, 평문집 <몽상 속의 산책을 위한 시학>, <무명화를 위한 변명>, 저서 <서정주>, <한국 근대기 낭만주의 전개 연구>, <한국 현대시의 층위와 진폭> 등이 있다. 현재 한성대학교 명예교수.

바이올리니스트 이도영

바이올리니스트 이도영은 강원대학교 문화예술대학 음악학과를 졸업 후, 독일로 건너가 트로싱엔(Trossingen) 국립음대 석사(Master)를 졸업하며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기반을 다져나갔다.

설악콩쿨 입상을 시작으로 YWCA 강릉 학생음악콩쿨, 강원도 학생실기대회에 입상하며 어린시절부터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자질을 증명한 그는 일본대사관 주최 연주제에서 1위, 이탈리아 “Citta di Barletta” 국제콩쿨에서 2위를 차지했고 중국 항주사범대 초청연주, 중국 심양시 교류연주, 중국 창주시 교류연주, 강원대학교 현악합주단&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대관령 국제음악제 참가 등 다채로운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독일 유학당시, 도르트문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 1악장 김신경을 사사하였으며 트로싱엔(Trossingen) 국립음대에 입학 후, 지휘과 교수 Sebastian Tewinkel과 슈투트가르트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SWR)의 바이올리니스트 Stephan Bornscheuer에게 오케스트라의 악장으로 발탁되어, 오케스트레이션을 사사했으며 오페라 전국투어를 함께했다.

Essen, Trossingen, Mannheim, Konstanz, Tuttlingen, Stuttgart, Rottweil Donaueschingen, Reutlingen 등 독일의 주요도시에 위치한 콘서트홀과 문화원 등에서 실내악연주와 독주를 수차례 한 바 있으며 독일 Dinkelsbühl에서 열린 D'accord 실내악 축제 참가, 연주자와 음악코치로서 활동하였다.

한국에서는 춘천시립교향악단, 현악기와 친구들, 앙상블 더 브릿지, 강원 청소년교향악단, 삼척 윈드오케스트라, 원주 아파쇼나타 윈드오케스트라, 설악 프라임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Jacek Klimkiewicz(독일 Essen국립음대 교수), 박상우(대관령국제음악제)등의 마스터 클래스에 참가한 바이올리니스트 이도영은 최광덕, 이문규, 김신경, 이순복, Martina Trumpp, Stephan Bornscheuer를 사사하였으며 2018~2019 강원문화재단 신진예술가, 2023 제 12회 강원예술상 청년예술가상을 수상했다.

현재, 강원대학교 문화예술공과대학 음악학과에 출강하여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그는 설악 프라임 오케스트라 지휘자, 고성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 고성 청소년 교향악단 지휘자, 클래식 앙상블 클랑(Klang) 음악감독, 트리오 쏘아베(Soave), 맨온더스트링(Man on the String)의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강원대학교 문화예술공과대학 음악학과에서 이석중교수를 사사하며 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도영의 클래식, 그 우아함

일 시 2024. 11. 5. 화요일 오후 7시
장 소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강당 (전석 무료)
주최/주관 이도영
후 원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문화재단



Program

Sonata for Violin and Piano in e minor K.304 – W.A. Mozart

I. Allegro

II. Tempo di Menuetto

모차르트(W. A. Mozart, 1756-1791)는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거장이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 하나이다. 그는 35년의 짧은 생애 동안 오스트리아뿐 아니라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 활동하며 오페라, 교향곡, 협주곡, 그리고 소나타 등 다양한 장르의 명작들을 남겼다. 그는 총 37개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작곡할 정도로 바이올린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품고 있었는데 <Violin Sonata in e minor K. 304>는 그의 어머니가 작고한 1778년 파리에서 작곡하였다. 그해 모차르트는 연이은 취직 실패로 생활고에 시달렸고 설상가상으로 자신을 지지해준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서 비탄에 빠진 시기를 보냈다. 이러한 그의 불안정한 상황은 그의 유일한 단조 소나타 작품인 《Violin Sonata in e minor K. 304》에 고스란히 내포되어 있다.

제1악장, Allegro

전형적인 소나타 형식을 취한다. 도입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에서 주제선율이 무겁게 제시되고, 이어서 발전부는 밝고 가벼운 선율과 어두운 선율이 번갈아 등장한다. 그리고 곡의 주제를 재현하고 반복하며 마무리한다.

제2악장, Tempo di minuetto

론도형식 구성이며, 전체적으로 서정적 분위기 속에 우울함과 긴장감이 감돌면서 모든 선율이 애도하듯 진행된다. 피아노에서 주제가 제시된 이후, 바이올린에서 반복하는 구조를 나타낸다. 피아노 반주는 주로 분산화음 중심이며, 때로는 장식음을 활용해 음악적 주제를 강조하면서 새로움을 더한다. 그리고 주제선율을 변형한 변주 형식으로 마무리된다.

8 Pieces for Violin and Cello, Op. 39 – R. Glière

I. Prélude

II. Gavotte

III. Berceuse

IV. Canzonetta

V. Intermezzo

VI. Impromptu

VII. Scherzo

VIII. Etude

라인홀트 글리에르는 1874년 우크라이나 출신의 작곡가로, 구소련의 국민음악을 직접 이어받은 음악가이다. 20세기 전만 소련에서 활동하며 두 차례 소련 국민예술가 상을 비롯하여 스탈린 상, 레닌 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쇼스타코비치와 프로코피예프 등과 함께 사회주의 소련의 음악을 빛냈다.

특히 구소련의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등의 민족 음악의 발전을 위하여 현지의 젊은 작곡가들과 협력하여 민족적 가극을 만들었고, 또한 민족적 주제에 의한 표제교향곡을 작곡하였다.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여덟 개의 듀오, 작품번호 39번은 작곡가 글리에르가 자신의 교수님인 Boris Kaliushno에게 헌정한 작품이다. 낭만주의와 구소련의 음악적인 전통을 계승한 그는 러시아의 혁명 이후에 사회주의 미학에 순응하여 작곡 활동을 펼쳤고, 결국 러시아의 음악전통을 사회주의 음악사상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바이올린과 첼로 듀오를 위한 8개의 소품’은 근대적인 작품에서 볼 수 있는 특징과는 거리가 있는데, 두 악기를 대등한 관계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위법적인 방법을 사용해 작곡을 한 것이 아니라 한 악기가 멜로디를 연주하면 다른 악기는 단순하게 화성적인 반주를 하도록 했다.

Sonata for Violin and Piano in A major, FWV.8 – C. Frank

I. Allegretto ben moderato

II. Allegro mol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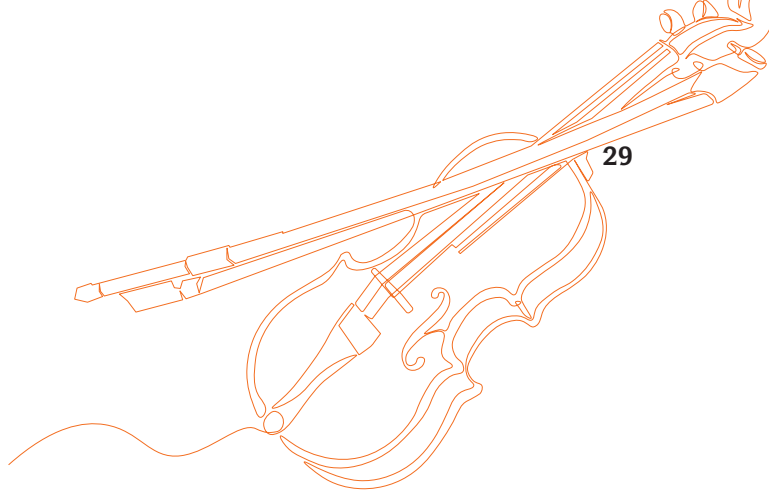
III. Recitativo – Fantasia: Ben moderato

IV. Allegretto poco mosso

세자르 프랑크는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오르가니스트였으며 많은 제자를 양성한 교육자였다. 프랑크는 교회음악뿐만 아니라 오라토리오, 교향곡, 교향시, 실내음악 등 다양한 장르에서 많은 작품을 창작했다.

그의 생애 후반기에 많은 대표적인 곡들이 작곡되었으며, 그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지고 많이 연주되는 곡으로 1886년에 작곡된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가 있다. 이 곡은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음악의 전통적인 기법과 만년의 독창적인 작곡기법이 잘 드러나고 있다. 또한 세자르 프랑크의 주요 음악특징인 순환기법과 모호한 조성의 사용은 댕디와 포레 등 프랑스 후기 낭만주의 음악뿐만 아니라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드뷔시 등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일반적으로 고전시대 소나타와 협주곡들은 3악장으로 구성되고, 템포는 “빠른악장-느린 악장-빠른 악장”으로 서로 대비된다. 하지만 이 곡은 4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악장 사이의 템포 변화가 완만하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제 3악장에 Recitativo -Fantasia라는 부제를 표시하여 오페라에서 사용하는 레치타티보 기법과 자유로운 기악음악 형식의 판타지를 결합하여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 기법을 수용하면서도 새로운 음악을 창작하고자 했던 세자르 프랑크의 음악적 경향과 낭만주의 시대 기악음악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



개인적으로는 학업을 지속하며 음악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아직도 배워야 할 것들이 많으며, 연주해보고 싶은 곡도 많습니다.

특히, 훌륭한 음악가들과 교류하며 많은 영감을 얻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작업하는 것 또한 흥미롭습니다. 국악과 클래식, 그림과 무용 등 많은 것들이 어우러지는 과정에서 예술적인 효과가 넓어지는 경험이 참 매력적이기에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인 “클래식 앙상블 클랑”과 지휘자를 맡고 있는 “설악 프라임 오케스트라” 또한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음악회> 등 속초의 다양한 곳에서 시민들을 위한 공연을 계획 중입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속초 시민의 일상적 문화 향유의 기회 및 생활예술에 대한 가치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내년에도 더욱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와 지휘자, 교육자와 기획자로서 꾸준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섬유미술의 조형성, 자연과의 어울림

속초미협 고문 고주리

섬유예술이란 영어의 패브릭(fabric), 짓다(build) 또는 짜 맞추다(fabricate)라는 뜻의 라틴어 페브리케어(fabricare)에서 유래한 말로 “섬유로 이루어진 모든 구조물”들을 총칭하는 어휘이다. 섬유예술이란 전통예술의 형식위에 작가의 창의력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예술 형태를 이야기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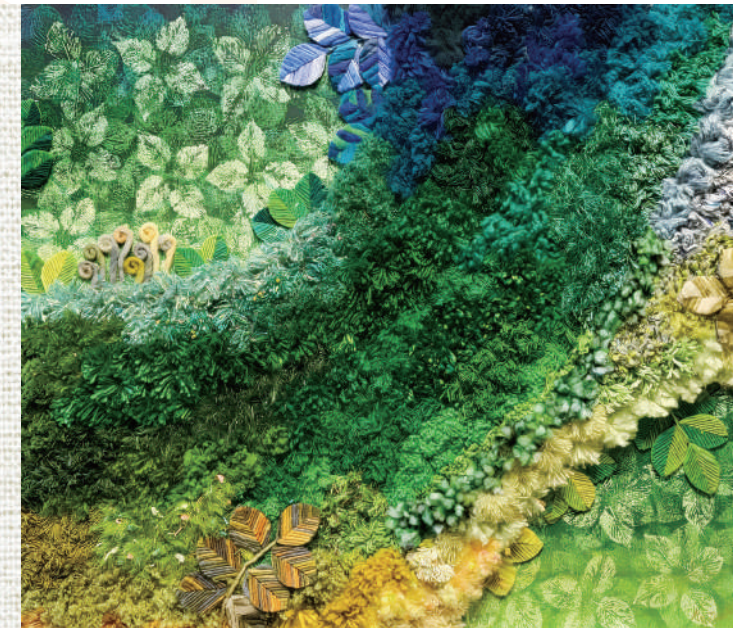
섬유미술은 섬유라는 매체를 가지고 옷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 방직 방적 염색 등을 채용하고 응용해, 미술의 한 분야로 영역을 개척한 하나의 장르이다. 현대에 이르러 회화 조각 건축 등과 마찬가지로 실용적 측면보다 예술성이 강조된 소위 현대미술이라 불리는 당당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재료나 기법 면에서도 다양한 종류가 창조되고 있다. 오늘날 섬유미술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 다양한 재료와 기법들이 모색되어지고 있다. 천, 실, 종이 등의 섬유공예의 재료가 되는 종류들은 그리 낯설지 않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재료로 좀 더 다양한 작품들이 발표되어지고, 창의적인 연구를 통해 감상하는 이들에게 보여줌으로 섬유미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새롭게 개발하고 인식시키는데 한 발짝 나아가야 한다는 사명감에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며, 섬유재료가 되는 물질들을 이용해 섬유미술 분야를 연구하게 되었고, 그것에 매력을 느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섬유예술의 출발은 섬유재료에 대한 애정과 풍요에서 출발했고 섬유라는 매개체의 개발을 통해 섬유예술도 발전 되었다. 섬유의 특징을 살펴보면 부드러운 촉감과 가벼우면서도 움직임은 예민하며, 생동감을 주며, 자유로운 움직임을 표출 할 수 있고, 유연성을 지니며, 어떤 두꺼운 소재라도 드레이프성을 지니고 있다. 섬유는 일반적으로 부드러운 특성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 강한 느낌도 낼 수 있으며, 가볍기 때문에 크기에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다. 섬유재료에 염색, 자수, 직조, 꼬임 등의 기법이 가능하다. 또한 섬유의 소재는 다양하여 재료의 선택 및 표현이 자유롭다. 면, 마, 실크 등의 고전적 소재에 비닐, 테이프, 펠름과 같은 다양한 소재들을 개발해 사용 할 수 있다. 많은 예술가들이 섬유를 매개체로 사용하는 이유는 섬유만의 독특한 느낌과 운반이 자유롭다는 점, 키네틱한 요소가 포함되고 설치가 쉽고, 다루기 편하며 여러 가지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섬유를 작품의 소재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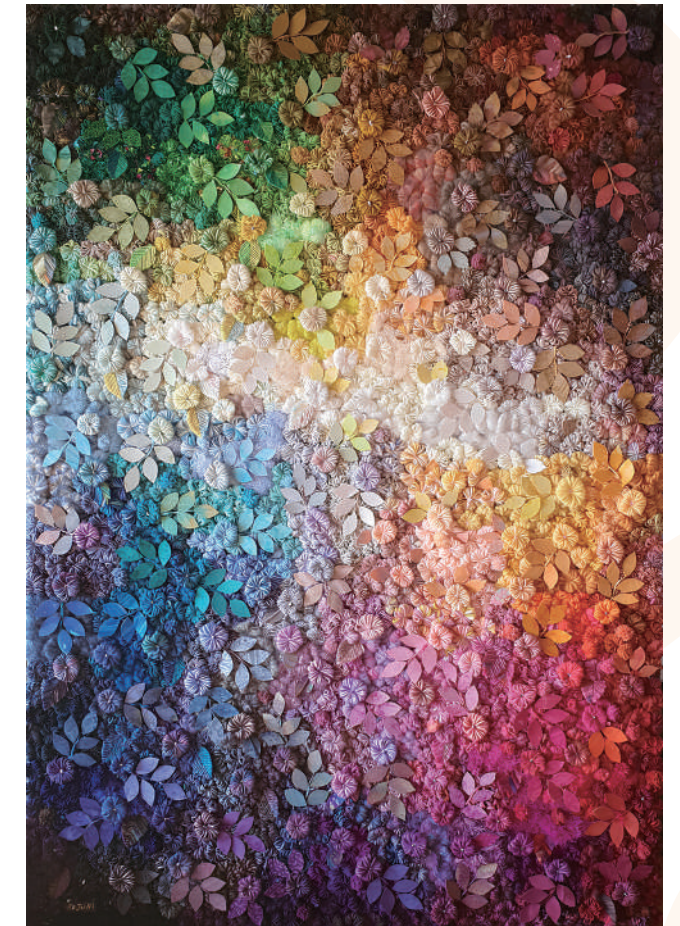
섬유예술이란 섬유에 의해 이루어진 기술로 위빙, 자수, 염색, 조형 작품등 섬유로 이루어진 모든 구조물들을 일컫는 총칭어이다. 섬유예술은 전통적인 공예의 형식위에 작가의 의도와 창의력이 더해져서 이루어지는 예술을 말한다. 섬유예술은 현대미술의 주류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고, 그 예술적 다양성을 함께 하고 있다. 섬유미술은 섬유라는 매체를 가지고 옷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 방직, 방직, 염색 등을 채용하고 응용해 미술의 한분야로 영역을 개척한

▼2024년 9월 개인전 - 작품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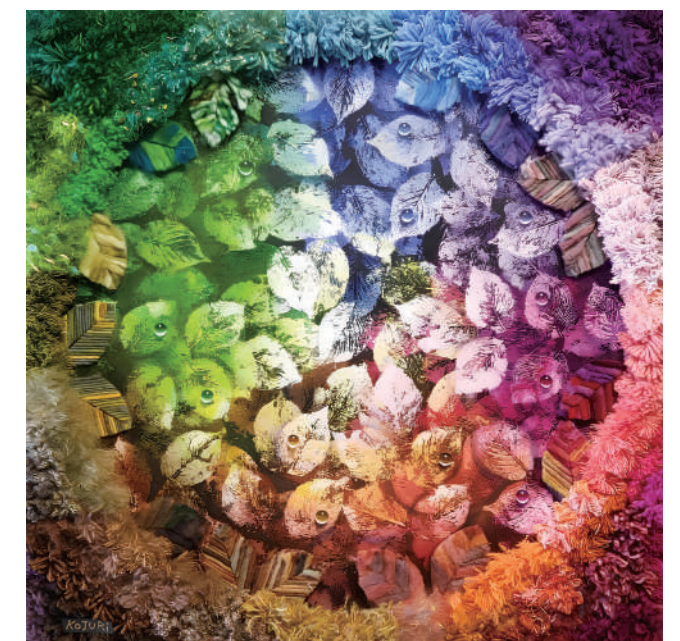


▲제목-숲 (섬유재료,아크릴) 50cm×60cm

하나의 장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섬유미술은 조형작업의 매체로서 캔버스나 흙대신 섬유를 사용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조형예술의 작업들과 별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섬유라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일반 회화나 조각에서 볼 수 없는 특수한 조형효과를 낼 수도 있다. 섬유예술은 인간을 만족시키기 위해 충분한 새롭고 풍부한 재료, 기법, 형태, 이념을 기반으로 새로운 탐구와 시도, 변혁을 추구하는 현대 조형언어로써 무한한 조형성을 제시하였다. 과거에 섬유는 전통적으로 공예개념에서 이용되었으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섬유공예가 그 도구적 기능을 상실하고 예술적 표현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이다.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 현대의 다양한 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게 되었고, 장르의 벽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바뀌게 되었다. 20세기에 들어 현대미술의 영역이 새롭게 확장되기 시작하자, 전통적인 장르의 구별과 매체사용의 규범이 상대적으로 재편성되어 지고,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섬유매체의 효용성이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태피스트리를 부조적인 것으로, 오브제적인 섬유예술로 공간과 환경의 성격을 지닌 섬유예술로, 조각의 개념을 도입시켜 부드러운 조각이라는 표현 방식으로 발전시키며 실험적인 작품을 제시하여, 새로운 조형언어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섬유예술이 건축이 주는 딱딱한 석재의 단조로움을 덜기위해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섬유가 건축과 잘 조화 될 수 있다하여 건축과 접목되었고, 더 나아가 환경조형 무대외도 관련을 맺게 되었다. 또한 대규모의 섬유재료로 환경작품이 제작되기도 했다. 이처럼 섬유예술은 과거의 실용성 장식성의 한정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법으로 인간에게 무한한 섬유예술의 발전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위와 같이 섬유예술의 이론적 배경, 특징, 조형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목-어울림 (섬유재료) 162cm×112cm



▲제목-숲 (섬유재료,아크릴)60cm×6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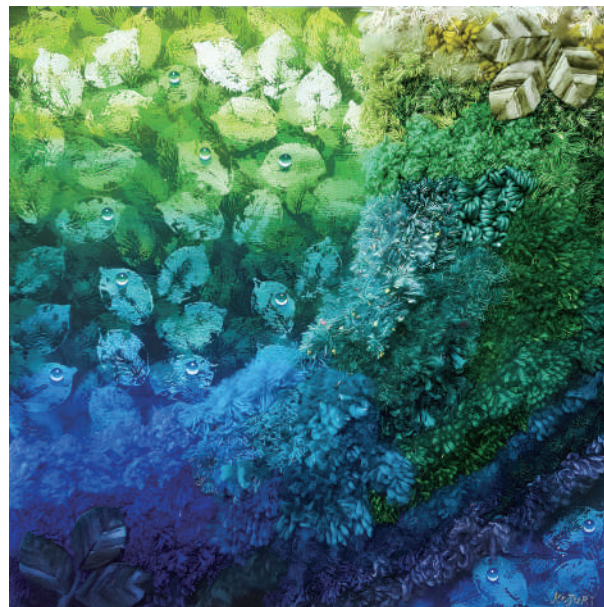


▲제목-숲 (섬유재료,아크릴) 50cm×60cm

다음은 본인의 섬유미술 작업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본인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하고 중등미술교사로 40여년을 재직하였으며, 40여년을 꾸준히 미술작가로 속초지역과 강원도, 서울지역을 기반으로 개인전 및 초대전 단체전 등 작품 활동을 해 오고 있는 섬유미술작가이다. 어려서부터 미술교사였던 아버지 덕분에 자라는 환경이 그림과 더불어 성장하며, 초등 중등 시절부터 각종 대회에 참여해 수상도 많이 했고, 어려서부터 화가가 되는 꿈을 꾸었다. 대학 때 다양한 미술영역을 접하게 되었다. 졸업 후에도 작가에 대한 꿈은 계속 꾸고 있었다. 처음부터 섬유미술을 한 것은 아니다. 초기엔 한지를 이용한 작품을 해오다가 작가로서의 토대를 쌓기 위해 권위 있는 공모전에 출품하게 된다. 내 나름대로의 천을 이용하기 도하고 사이잘 실을 이용해 작업도 했다. 나만의 창의적인 재료로 대한민국미술대전, 국제공모전에 입상하는 등 본인 나름대로의 기법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 후 본격적으로 섬유미술에 대한 공부를 독학으로 하며, 새로운 기법을 찾으려고 꾸준히 연구했고 작품발표를 해 왔다. 처음으로 섬유재료를 접한 것은 한지를 사용하기 시작부터이며 부드럽고 포근한 재료의 물성에 매료되어 접하게 되었다. 한지,사이잘실, 털실, 거즈천, 면천, 펠트지 등 다양한 섬유재료를 이용해 표현하고 실험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 새로운 것을 탄생시킨다는 것은 설렘과 고통의 연속이며, 특히 그림이 아닌 섬유의 재료를 이용해 이미지를 표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나는 섬유미술이라는 분야가 무한한 창조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다양한 조형성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시도하고 있다. 붓으로 그려지는 평면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티에르의 입체감을 다양하게 표현 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며 작업하고 있다. 털실을 풀어 사용하기도 하고 엮기도 하고 반입체적 모양을 만들어 붙이기도 한다, 색채 표현에 있어서 한정된 염료에 다양한 색채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표현하고자 하는 색들을 여러 염료들을 섞어서 천에 염색해 담아내고 있다. 최근에는 섬유재료와 아크릴 물감을 접목해서 전사기법도 연구하고 있고, 붓질이 주는 힘도 느끼며 혼합재료가 주는 다양성을 실험하고 있다.

나의 작품의 주제는 자연과의 어울림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많다. 내가 살고 있는 이 고장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곳이다.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이 행복하다. 집 앞에서 바라보면 바로 영랑호변과 숲이 존재하며, 영랑호변을 운동 삼아 걸을 땐 자연이 주는 향기와 풍경에 매료되며, 자연이 주는 치유에 항상 감사한다. 그 숲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다. 나는 작품의 주제로 자연의 이미지 특히 숲속의 다양한 형상에서 모티브를 찾았다. 나는 신선한 생명력을 지닌 숲속의 모든 존재들을 사랑한다. 숲속에 있으면 마음의 안정과 위안을 주며, 싱그러운 공기는 우리를 부른다. 숲속에 존재하는 나뭇잎사귀, 꽃, 식물류, 나비, 영롱한 이슬들이 작품의 주제로 등장한다. 푸릇푸릇한 나뭇잎의 생명력, 나뭇잎과 꽃잎에 맺힌 영롱한 이슬방울은 우리에게 신선함과 정화된 마음을 주며, 꽃이란 존재는 우리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



▲제목-숲 (섬유재료,아크릴) 60cm×60cm

고, 행복감과 희망을 주는 긍정적인 존재이다. 숲속에서 느껴지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색과 형상들의 어울림을 나의 작품에 담고 있다. “어울림“ 어울림이란 단어는 우리를 융화시키며 따뜻함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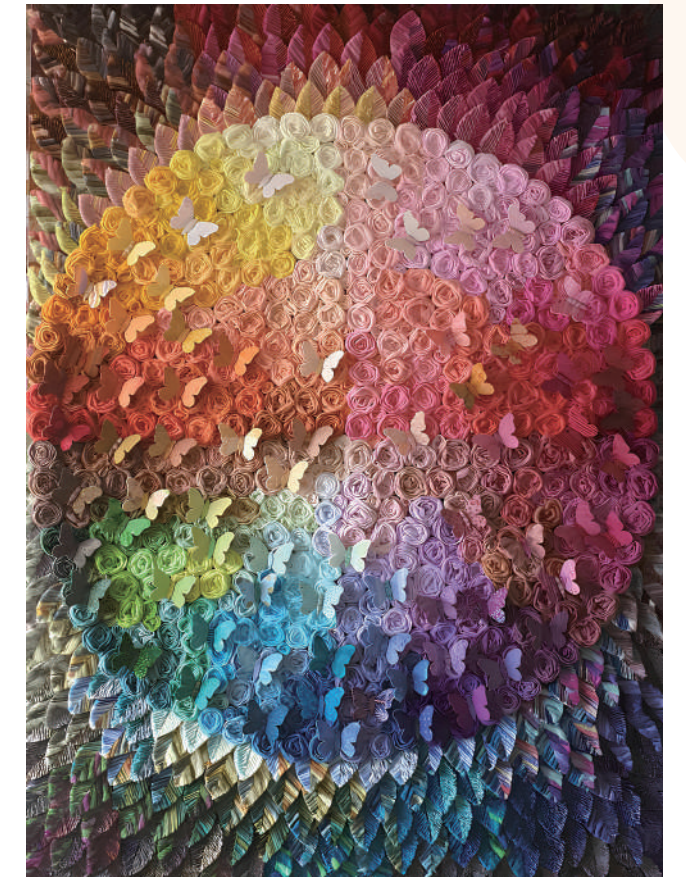
본인의 작품에 대한 임종은 미술평론가의 글을 기재해 본다. 임종은 평론가는 현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전공 초빙교수로 홍익대학교 미학과 석사 박사이며 대안공간 루프,화이트블럭 등 미술관 갤러리큐레이터 역임했다.

고주리 작가의 작업은 재료의 탐색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초기에는 한지,사이잘실등을 사용했으며 현재는 펠트까지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 재료에 대한 연구는 그녀가 작업하는 염색 외에도 쓰임새 맛도록 준비한 재료를 자르고 붙이는 등 여러 가지 세부적인 처리와 단순하지 않은 준비를 거치게 된다. 이것은 조형의 기본요소인 색채를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다. 작가가 만든 자신만의 물감은 원하는 만큼 풍부하고 충분한 색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들이 준비되면, 고주리 작가는 자연에서 받은 영감을 활용하여 준비된 물감(혹은 색면)을 패턴으로 연결하면서 추구하고자 하는 화면을 완성한다. 이렇게 만든 작품은 생동감 있는 질감을 가진 하나의 조화로운 평면이며 동시에 각각의 개체는 입체적이기도 하고 개별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또한 작품 중 일부는 이렇게 개체가 군상을 이루어 하나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꽃과 같은 하나의 입체적 구상적인 형상을 만든 것도 있다.

이 모든 과정은 매우 수행적이고, 공예적이며 섬세함을 요구한다. 관객들도 작품의 결과를 통해 이 무던한 과정을 엿볼 수 있다.예를 들어 색의 미묘한 변화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반복적인 이미지를 통해 채도와 명도의 변화를 일정한 단계로 표현했다. 그리고 조형적인 선행 자료로 옵아트 등을 참고했지만, 흥미롭게도 자연과 생명체의 포근하고 자연스러운 감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섬유라는 재료의 특성과 작가의 손길에 의해 성취되는 지점이다.

2024년 5월 스페인여행 중 - 알함브라궁전에서



▲제목-어울림 (섬유재료) 162cm×112cm



「2024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냉면 한그릇 후루룩 넘기듯
공연을 준비하며...



속초는 이북이었다.....전쟁이 나기
전까지는.....수복지구 속초.. 그안에서
어떤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는 어땠을까? 그때 당시의 속초분들은 선택권이 없었다. 남쪽인지 북쪽인지... 우연히 속초의 현대사를 찾던 중, 부월리 학살사건에 대해 찾을 수가 있었다.

속초지역에서는 1·4후퇴 전후시기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들이 확인되었다.

1950년 12월 부월리·온정리·논산리 일대 주민 수십 명이 인민군 복을 입은 국군에 의해 희생되었다. 당시는 중공군이 몰려온다는 소문이 무성하고 국군이 후퇴하던 때로서, 국군은 후퇴하기 전에 인민군을 가장하여 열성자대회를 열어 부월리 오거리에 주민들을 모이게 한 다음 나서는 사람들 수십 명을 추려내어 세우고 몸과 손을 전깃줄로 묶아매어 떠발총으로 사살하고 그 시체를 백사장에 내다버렸다.

1951년 다시 속초가 국군과 UN군에 의해 수복되자 대한청년단과 치안대에 의해 민간인 학살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한다.

이 사건이 우리극의 중요한 소재다. 그 인민복을 입은 군인과 주민이 서로 아는 친구사이였다면? 그리고 속초를 대표할 수 있는 갯배와 속초사자놀이 냉면을 소재로 작품을 만들면 어떨까? 이 궁금증이 우리의 시작이었다. 그분들은 단지 속초에 살았을뿐인데.. 속초에서 태어났을뿐인데...그 시대에 살고 태어난 이유로 그 슬픈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그분들의 이야기를 극으로 만들고 싶었다. 슬픈 속초의 역사다. 그렇다고 작품까지 무겁고, 슬플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했다. 갯배를 사이에 두고, 평양냉면과 코다리 냉면집의 갈등에서 극이 진행된다면 어떨까?? 재밌게 풀어나가고 싶었다. 그리고 이 프로덕션을 만들때, 속초 예술가들의 협업과 융합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속초에는 능력 있는 예술가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타분야 전문가들에게 작품



에 대해 설명하고, 팀을 꾸려나가기 시작했다. 음악극이기에 음악 감독은 홍정기 음악감독에게 속초사자놀이는 시립풍물단과 갯배당과의 협업을 통해 작품을 다듬고, 만들어갔다. 이 작품이 주는 의미는 컸다. 속초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색을 살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속초의 예술가들이 모였다. 공연 결과 지금까지 속초문화예술회관에 최고로 많은 관객들이 왔다. 상당히 성공적인 공연이었다.

이러한 공연들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상설 공연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다. 공연을 통해 속초를 알리고, 좋은 레파토리 공연을 만드는 극단 파람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올해 50주년이 되는 속초문인협회는 『시화전』과 『속초문학 4집』 출판기념회 외에도 장족의 발전이 있었다. 네 분의 신입회원 입회와 여섯 분의 새 작품집 발간에 이어 강원문인협회 주관의 '강원문학지 콘테스트'에서 『속초문학 3집』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그것은 우리 속초문협회원들의 수준 높은 작품성과 책 디자인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

<시화전> 속초, 詩로 피어나다

문인협회 시화전이 5월 21일에서 24일까지 속초예술제 'ART 모꼬지' 행사의 일원으로 속초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시와 더러는 수필 중의 한 문장을 시화로 한 작품들로 구성이 되었다. 아크릴판으로 제작 전시된 수준 높은 50점의 작품마다 잘 어울리는 사진과 그림을 배경으로 담아낸 시화전은 많은 관객들의 감동적인 호평을 받았다.



「속초문학 4집」 출판기념회 시민과 함께하는 속초문학

올해 50주년이 되는 속초문인협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속초문학 4집』 출판기념회를 10월 5일 오후 3시에 속초문화예술회관 2층에서 열었다. 속초시를 대표하는 내빈들과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각처에서 참석해 주셨고 여러 기관에서 축하꽃을 보내주셔서 다채롭고 화기애애했다.

회원작품낭독, 기타와 하모니카 연주에 이어 속초교육문화관 문예창작반 수강생 작품 낭독과 독자 시 낭송회로 진행되었다.

이번 4집에는 23명의 회원들이 시, 산문, 동시를 게재하였고 속초교육문화관 문예창작반 수강생들의 작품 12편이 함께 실렸다.



속초지부 정기회원전

제19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정기회원전이
오는 2024년 6월 1일 ~ 6일까지
속초 문화예술회관에서 개막하였다.



지부장 김건수 작가를 비롯해 총 32명의 작가가 참여한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자유작으로 개인 창작과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계절의 흐름에 따라 담아낸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사진은 단순한 빛과 사물, 카메라 메카니즘 기술의 종합이 아닌 작가가 담고자 하는 내용을 프레임 안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관람자로 하여금 감동을 느낄 수 있을때 비로소 사진 예술로 승화되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속초지부는 2005.12.3. 창립, 2006.3월 창립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19회 회원전을 개최하게 되었다.

2016.7. 중국 훈춘시 촬영가 협회와 MOU 체결하여 작년 제4회 한·중 국제사진교류전 개최하였고, 2005년 창립 이후 격년제로 속초 및 고성지역 전국관광공모전을 주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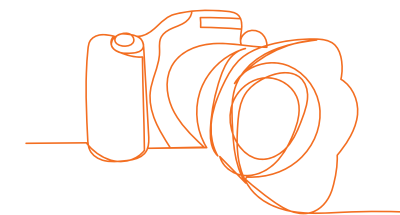
2017년 부터는 속초경찰서와 업무협약 체결하여 다문화가족 사진촬영, 2022년 부터는 속초시와 협력해서 관내 9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장수사진 촬영하여 증정하고, 속초연탄은행과 협력하여 매년 후원 봉사활동을하고 지속하고 있다.

2023년 1월부터 1년간 관내 체스터튼스 호텔에 분기마다 10점의 속초지역 풍경 사진 임대 전시하였고, 올해는 문화관광재단 주관

예술과 한걸음 더 가까이라는 갤러리 동행 타이틀로 지역작가와 여행자의 연결을 위해 관내 호텔, 리조트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지역 작가의 전시와 함께 소규모 아트 마켓의 의미를 담고자 관내 4개 호텔, 리조트에서 순차적으로 예술단체 작가의 작품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전시회는 속초지부 창립 20주년을 맞아 작가가 제일 사랑하는 『생애 최애사진전』으로 계획하고 있어 속초시민들에게 최고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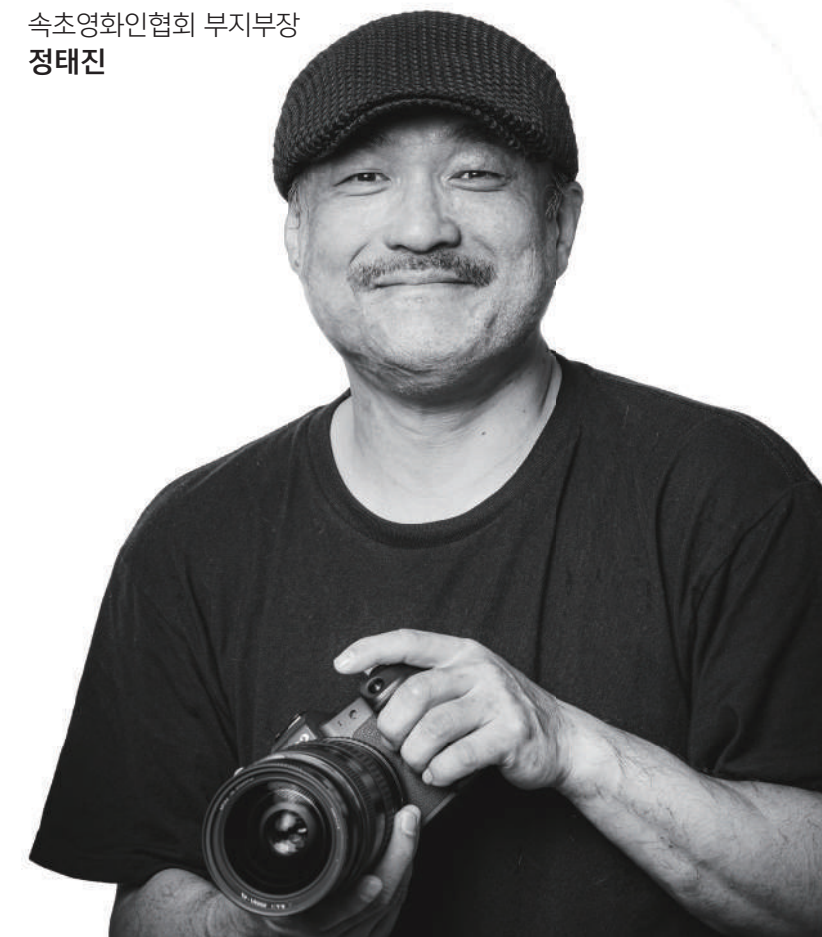
정태진 :

속초의 문화와 예술을 잇다

속초영화인협회 정태진 부지부장은 속초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취업하여 영상, 음향, 사진 제작 관련 일을 해왔다. 40대가 되어 고향인 속초로 돌아와 개인 스냅 사진 업체인 '길건너바다'를 운영하며, 상업적 사진과 개인적 예술 사진 활동을 조화롭게 이어가고 있다.

그의 목표는 매년 개인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예술적 성취를 이루고 있다. 또한, 매년 가을마다 시골 마을을 찾아다니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평소 사진(영정사진)을 찍을 기회가 없었던 노인들에게 무료로 장수 사진 촬영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속초영화인협회 부지부장
정태진





장인전 : 속초의 역사와 함께 한 사진들

정태진 작가는 올해 ‘장인전’이라는 특별한 전시회를 열었다. 이 전시는 그의 첫 개인 전시로, 오랜 세월 동안 구두 수선 일을 해온 아버지를 주제로 시작되었다. 전시회는 속초시 교동 솔트라운지에서 열렸으며, 지역의 장인 9명의 모습을 흑백 사진으로 담아내었다. 이들 장인들은 최소 40년 이상 한 가지 일을 해온 분들로, 유명 인사들이 아닌 지역에 살고 있어야 겨우 찾을 수 있는 숨은 장인들이다.

전시회는 속초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사진 속 인물들은 속초의 마지막 뽕튀기 아저씨, 35년 동안 선박 엔진 수리를 해온 형제, 40년간 철물점을 운영한 분, 한 자리에서 40년 넘게 생선 손질을 해온 어머니, 그리고 70년 넘게 방앗간을 운영하는 부부 등이다. 이들은 속초에서만 볼 수 있는 업종과 기술을 지니고 있으며, 전시 제목처럼 직관적으로 속초의 역사를 한 눈에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속초의 기억을 담아낸다.

정태진 작가는 속초에서 나고 자란 프리랜서 스냅 사진작가로, ‘길건너 바다 사진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이번 전시를 통해 아버지와 같은 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어렵다고 느꼈으며, 속초의 숨은 장인들을 찾는데 6개월이 걸렸다고 말했다. 원래 목표했던 인물은 10명이었지만 속초에 마지막 남은 해녀 한 분의 허락을 받지 못해 9명의 장인으로 전시를 준비했다.



사진 속 장인이 의미하는 것들

작가는 구두 수선일을 하던 아버지와 같은 장인들을 사진으로 담아내며, 지역 사회와 개개인이 지켜야 하는 가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한다. 그는 사진 속 장인들이 사용하는 도구를 대하는 자세와 요즘 시대의 최신 기술을 다루는 이들의 차이를 강조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운영 시대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묻는다.



앞으로의 계획



2024년 올해는 ‘길건너바다’ 사진관을 처음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사진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조희봉 배우와 함께 고성에서 단편영화를 찍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앞으로는 속초에서도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속초의 역사, 사람들, 자연을 담은 사진 전시회를 꾸준히 열고, 예술 봉사 활동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매년 가을 시골 마을을 찾아가 장수 사진을 무료로 촬영해드리는 봉사 활동은 큰 보람을 주는 일입니다. 영화 제작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싶으며, 이를 위해 영화 워크숍을 열어 지역의 젊은이들과 함께 작업하고 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의 꿈은 속초가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과 만든 영화들이 속초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속초의 아름다움과 이야기를 알게 되길 바랍니다. 속초에서 예술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꿈입니다.



속초영화인협회와의 연계

정태진 작가는 속초영화인협회의 부지부장으로, 속초의 문화와 예술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사진 전시회 ‘장인전’은 단순한 예술 전시를 넘어 속초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와 예술인들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간다. 속초영화인협회는 정태진의 예술적 열정과 봉사 정신을 통해 지역 예술의 발전과 확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정태진의 활동은 속초영화인협회의 목표와도 일치하며, 앞으로도 그의 예술적 성취가 속초와 영화인협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수련이 피어있는 연못

50X72cm
oil on canvas

수련이 피어 있는 연못하면 모네의 그림들이 떠오릅니다.
원주 여행길에 들렀던, 연과 수련이 가득한 연못 풍경 한
조각을 화폭에 얹어 봤습니다.
여행길에 만나는 풍경은 늘 목마른 그리움이 됩니다.



김도연

개인전 6회
2023 속초아트페어전
2023 피노디아 아트갤러리 마끼롤리 개관 초대전
2020, 2024 국립산악박물관 기획전
필코리아세계우편전시회초대전
서울리빙디자인페어전
봄나들이전(우리집에 그림 한 점)
대한민국공무원미술협회전/상록회전, 단체전 다수
한국미술협회강원지부전/속초지부전
지방행정공무원미술전 대상/ 강원미술대전 특선/ 공무원미술대전 수상/ 강릉신사임당미술대전 특선
현, 한국미술협회/ 대한민국공무원미술협회/ 상록회회원



김 병 택

개인전 4회
캐나다빅토리아아트홀 그룹초청전
한국현대미술아트페스티벌전 (뉴욕, 밀라노, 모스크바, 하와이, L.A, 파리)
한국미술협회전, 국제작은미술전, 한중미술교류전, 공무원상록미술전, 힘내라대한민국특별전,
한국미술의새물결전, 한반도평화미술특별초대전, 강원“예술가 와”유화전, 홍익구상작가전,
서울국제호텔아트페어전, 신사임당미술대전, 한국창조미술협회전, 속초작가아트페어전 등
현, 한국미술협회회원, 한국창조미술협회 운영위원

울산암가는 길목 46×53cm
oilcolor on canvas



강아지

40.9×31.8cm
oil on canvas



김유훈

제49회 ~ 47회 : 국제공모 일본신원 전 금상, 은상, 가작상 수상
제23회 ~ 22회 : 국제공모 마스터스 대동경 전 금상, 은상 수상
제40회 ~ 37회 : 국제 HMA 예술제 우수상, 장작상, 신작품상, 특별상 수상
사) 한국예술작가 협회회원
비) 한국동물사랑 화가회 회원
사) 한국미술협회 회원



그리움

35*47
한지.수묵채색

고향들녘엔 해마다 하늘하늘 핀 코스모스가 나의 감성을 자극해 어린 추억까지 소환해 오기에 충분하다.
어우러져 핀 코스모스를 볼때면 항상 부모님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떠오른다.
해마다 가을이면 문살에 창호지를 바를때 그 위에 코스모스로 예쁘게 문양을 넣어바르던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고향코스모스를 그려보았다.
꽃의 화사함을 강조하기 위해 물감에 먹을 살짝 이용해 배경을 어둡게 표현하였다.



김태완

2014 제35회 근로자미술제 동상수상
2014 제42회 강원미술대전 한국화부문 입선
2014 제32회 대한민국 신미술대전 한국화부문 입선
2015 제16회 신사임당 미술대전 특선
2016 강원진로교육원 먹노리 초대전
2014~2020먹노리 회원전(설악문화센터, 속초시립박물관)
2020~2021대한민국 신미술대전 한국화부문 특선
현, 대한민국 신미술대전 초대작가, 설악한국화동우회 먹노리회원, 한국미협 속초지부회원



설악산 계곡
72.7X53cm
Watercolor on paper



박귀례
개인전3회
대한민국 신미술 대전 추천작가.
속초여류작가5인전, 속초미협전, 강원도 미협전, 내설악미술인전,
국립산악박물관기획전, 피노디아개관전, 홍익대(창작과시선전)
수상)신사임당 미술대전 특선 및 입선, 인사 미술대전 장려상,
대한민국 신 미술대전 특선 및 입선
현)한국 미술 협회 회원/ 속초 미협 회원, 설악 수채화 회장
내설악 예술인 협회 회원

낙수천석

30×60cm
화선지에 먹

落水穿石(낙수천석)
떨어지는 물이 돌을 뚫는다



박종철

2022. 2 최우수 작가상 수상
2022. 12. 대한민국을 빛낸 브랜드 대상
2011. 7. EBS한국기행출연
2011. KBS한국의 재발견 출연
GTV 가훈씨주기 출연
중국 산둥성 국영방송 출연





박흥기

개인전(강릉문화원)
한국현대미술 프라하초대전(프라하)
파리가람아트 초대작가(파리)
서울현대미술제
아오아마갤러리 초대전
강원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운영위원 역임
현. 강원미술대전 초대작가

기억공간2403

31.8×40.9cm
Acrylic,oil



회귀 : 그냥 돌이고 싶은 돌

100×100×250cm
영주산 화강석



무분별한 인간들의 지나친 욕심으로 환경이 급격히 파괴되고,
이에 따라 터프해지는 자연의 현상들을 보며 늦었지만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
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담았으며 아울러 인생의 귀로를 바라보며
우리도 때가 되면 자연의 품으로 되돌아감이 필연이라는 생각을 형상화하였다.



장국보

2025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25 작가선정 (코엑스)
2024 한국미협속초지부전/ 한국조각가협회전/ 춘천 MBC 현대조각초대전/ 박인환문화관 현대조각 초대전
2023 일본 난토시 이나미 국제조각캠프 초대/ 한국조각가협회전/ 강원조각가협회전/ 마키아올리 개관 초대전
2022 강원현대미술초대전(춘천국립박물관)/ 춘천 MBC현대조각초대전/ 박인환미술관 현대조각 초대전/
한강조각프로젝트 낙람유람 초대/ 춘천조각심포지엄 참가
2015 평창국제비엔날레 특별전
2010 송추아트벨리현대조각초대전
2006 공주국제미술제 초대 (임립미술관)
2023 ~ 현 장국보 조각마당 상설개인전 (고생대로872)
현 한국조각가협회, 한국미술협회, 강원조각가협회, 속초미술협회 회원



설악산 울산바위 좌편에 비스듬히 자리하고 있는 비범한 산 달마봉이 있다. 나름의 멋진 태태와 풍기는 위용에 반해 강력한 울산바위의 명성에 가려 존재감이 미미하다, 어쩔 작가가 달마봉에 관심을 품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지난 긴 세월 동안 울산바위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짐은 물론 화가들이나 사진가들의 작품 소재로 각광 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 역시 언젠가 울산바위를 작품의 소재로 삼을 것이다. 그에 앞서 묵묵함으로 자리를 지켜온 달마봉에 마음이 다다른 것이 작가 자신에겐 다행한 일이기도 하고 그 매력적인 모습에 매료되어 평소 눈여겨보며 정을 주고, 많은 시간 바라보며 머리와 그려보며 받은 그 인상인 ‘여름의 달마봉’을 먼저 그리게 되었다. 지난 2023년 여름 수채화 기법으로 그렸으며 앞으로도 기회 되면 달마봉의 다른 면을 그려보기를 꿈꾸고 있다. 지금도 의연한 모습으로 울산바위의 이웃이 된 설악의 달마봉이 참으로 멋지고 자랑스럽다.



장국철

개인전/부스전 17회 / 기획 그룹전 190회
KOREA ART FESTIVAL/2005-세종문화회관 · KCAF/한국현대미술제/2006~2013-예술의전당
Art Sydney/2006.6.21.~25-RH & Hordern Pavilion Moore Park, Sydney, Australia
AKA SEOUL gallery 초대전/2008 · 한문수교19주년기념초대전/2009-몽공국립현대미술관
SIGHTLY AMAZING ART FESTIVAL/2011 · FAFE 갤러리 초대전/2013
강원국제미술전람회 특별전(1)post 박수근/2016 · 강원아트페어 강릉전/2018
담다전(Damda)/2018-강릉시립미술관 · 강원미술 60년 조망 (화가들의 회갑展)/2022
강원도미술협회전/2022 · 2022 ART FESTIVAL SEOUL · 2024 속초미술협회전
강원구상작가전/2024 · 움찬나래특별전/2024-인사마루아트 · 강원갤러리초대전/2024-인사마루아트센터
현) 강원예술고등학교 재직, 움찬나래작가회,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강원구상작가회.

설악의 달마봉

130cm×80cm
watercolor on paper 2023



최월순

한국미협속초지부전, 사랑나눔자선미술전(2010~2024)
설악한국화동우회먹노리회원전(2014~2024)
국립산악박물관기획초대전, 속초시지역작가초대전
개인전(강원진로교육원)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강원미술대전, 공무원미술대전, 신사임당미술대전특선
인사미술대전우수상수상
대한민국신미술대전초대작가
한국미협회원, 속초미술협회원, 설악한국화동우회회원

화양연화-접시꽃

30F
수묵채색(2024)

꽃과 나비 그림 화접도
오직 상상과 상징으로서뿐 아니라 현실 세계에 살아있는
꽃과 나비의 이야기를 그리고 싶다.
일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 화양연화,
꽃과 나비는 언제나 아름답고 행복한 풍경을 만든다.
분홍빛 노을 아래 화사하게 피어난 접시꽃과 함께 노니는 나비를 그렸다.





바단지린 사막

바단지린 사막은 내몽골 자치구, 닝샤 후이족 자치구, 간쑤성에 걸친 사막이다.
면적은 49000km2로 중국에서 3번째로 큰 사막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정된 사구들이 있는데 평균 200m, 최대 500m다.
가장 높은 사구는 세계에서 3번째로 가장 높은 사구이자 가장 높은 고정된 사구다.
바단지린 사막의 사구 사이사이에 호수 100개 이상이 있는데 이들 중 몇몇은 담수로 채워져 있지만 다른 호수들은 염호다.
이로 인해 몽골어로 '미스터리한 호수들'이라는 뜻을 갖는 바단지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유홍균
부지부장



선종용
사무국장

2019 문화다양성사진공모전 대상 등 다수(2019.11)
2016~ 2019, 『사랑 자유 평화의 땅 철원』DMZ 자연생태 두루미 사진작가 초대전/철원평화공원
2018 ~ 2024, 양양생태사진연구회 『남대천의 생명들』회원전/양양문화복지회관

유난히 뜨거운 여름 폭염은 언제인듯 지나고 어느덧 가을이 깊어지고 있다.
요즘 자주 듣는 노래 중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 있는 길 향기로운 가을길을 걸어 갑니다' 라는 가을 노래가 흘러 나온다.
코스모스는 9월 중순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해 지금은 노란색, 분홍색, 하얀색 등 형형색색의 화려한 모습으로 자랑한다.
어린 시절 재학 중 한적한 시골의 굽이굽이 학교 가는 길 양옆에 호미로 흙을 파서 심었던 기억이 많이 난다.
가을이 오면 어김없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피는 코스모스는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아련하게 떠오르게 한다.

가을날 아침





배현숙
재무간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꽃분과, 환경분과, 민속분과, 특수분과위원회 위원
대한민국 사진축전 DDP 사진 개인전
강원 관광사진 공모전 특상
강원도 사진대전 회원전 삼걸상 수상
일본 요나고 국제 사진 교류전시회 외 그룹전 다수

해변의 바위들이 안개속에 잠긴 모습을 담고있습니다.

긴 노출 촬영기법을 사용하여 물이 부드럽고 흐릿하게 표현 되었으며, 바위의 녹색이끼가 선명하게 드러나있습니다.

이사진은 자연의 고요함과 신비로움을 강조하며, 바위와 물의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이사진은 바위의 견고함과 물의 유연한 흐름을 대비 시켜 더욱 매력적입니다.



안개속의 바위들



작은일상

손에 작은 흔들림을 이용해서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핸드헬드라는 기법이다.

다양한 구성이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에도 담으려고

오늘도 끝나지 않는 나의 작업을 시작한다.



이금자
설외간사



별의 흐름

꼬불꼬불한 산길을 배경으로, 하늘의 별과 산길을 장시간 노출로 촬영하여 마치 우주의 흐름을 담아낸 듯한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밤하늘에서는 별들이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도는 궤적이 보이고, 산길에서는 자동차의 불빛이 길게 이어진 선으로 나타나면서 지상과 우주가 연결된 느낌을 줍니다. 이 작품은 우주적 시각에서 지구와 인간의 흔적을 동시에 포착하며, 밤의 고요함 속에서 움직임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예술적 장면입니다.



(사)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국 심사위원, 촬영지도자
인사동 동덕아트갤러리,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개인전,
한·중·일 수교 전시회 등 다양한 전시회 참여
제11회 한국 어장,어항, 어촌 사진공모전 대상 (해양수산부)
제11회 전국 하천 사진공모전 대상 (국토교통부)
제41회 대한민국 사진대전 특선 (한국사진작가협회)
제35회 강원도 사진대전 대상 (한국사진작가협회)

장 창 근

본부이사 / 속초예총부지회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장 역임
(사)한국프로사진가협회 속초지부장 역임
(사)한국프로사진가협회 추천작가
제17회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미술교류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공로상
국제 프로사진가촬영대회 은상수상
강원사진대전 특선 외 다수
HAHOE MASK DANCE HWMM DIPOLA(PDF)
KOREA PHOTO ART International Exhibition 2024 Club Gold



김용한

제4·5대 지부장 역임

라오스 루앙프로방 인근 숲속마을에서 만난 어린소녀
무엇이 그리 소녀를 웃게 하였을까요.
집채만한 삶에 무게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웃음을 잃지않는 소녀
앵글속에 소녀는 차라리 천사였습니다.

Hard Work





강영진

제주도 애월해변의 아름다움을 담은 사진이다. 여행 중 우연히 지나가다 그 풍경에 매료되어 이 장면을 포착하였다.
바다 위를 스치듯 흐르는 물안개와 잔잔한 파도는 마치 꿈속에서나 볼 법한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푸른 하늘과 그 아래 펼쳐진 푸른 바다는 끝없이 이어지는 듯한 무한함을 느끼게 한다.



파도 속의 꿈결

카메라를 향해 함박웃음을 던져주던 벚꽃,
그날은 경주보문정에 완벽한 봄이 그려진
날이다 나무사이로 보여 지는 야경 정자엔
연인들의 속삭임에 추억소리 들리는 듯
오묘하다.



봄을 그리다



김정희
지부장 역임

(전)양양문인협회 5대지부장
(전)양양예총 부지회장
(전)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장
시인&사진작가



고성의 바위

고성은 특이한 형상의 바위가 많다.

잘 알려진 바위는 죽왕면 송지호 해수욕장 인근 해안에 위치한 서낭바위로서

납작한 부채가 서 있는 듯한 바위 형상에 쓰러질 듯 가냘프게 무게중심을 잡고 어렵게 서 있는 모양의 바위이다.

이곳은 약 1억 3,000만년 전에 형성된 화산지형 이며 파쇄·풍화작용으로 생성됐다고 한다.

지면을 통해서 소개 하고자 하는 이곳의 잘 알려지지 않은 특이한 형상의 바위는

낮에 사람눈에 띄지 않고 바위뒤로 해가 뜨면서 곰형상이 나타나는 바위이다.

열의가 없으면 얻어지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바위에 일출각을 맞추기 위해서는 11~12월중 해뜨기 30분 전에 촬영장소에 나와
여명과 함께 바위의 형상을 담아야 아름다운 곰바위 형상의 사진을 촬영할수 있다.

이곳은 서낭당(성황당)이 위치해 있고, 서낭신(성황신)을 모셔놓은 이 일대는 함부로 파거나 헐지 않는 금기가 지켜져 온 곳이다.

때때로 소원풀이를 위해 돌탑을 쌓거나, 무당을 불러 굿을 벌이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다.

신성한 곳이기에 우리 스스로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아껴서오랫동안 간직 하여야 할 장소이다.



엄창운



이춘자
기록간사

베트남 흥옌성반옌난 전통간장 마을을 가다.

베트남 요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많은 베트남요리에 꼭 필요한 것이 간장입니다.

특히 흥옌성반옌난 마을만큼 품질이 우수하고 풍미가 풍부한 간장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없을 것이라 합니다.

이곳 간장 전통 대대로 이어져 왔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번성하고 반마을에서 생산되는 간장은

베트남 전역의 모든 가정에 공급되며 베트남인이 있는 다른 나라의 슈퍼마켓에서 간장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전통 간장의 맥을 찾아서



김춘만

도치

흔하던 도치가
한 말 쌀값이라지만
먹어본 사람들은 한겨울엔
그래도 도치를 찾는다

커다란 올챙이쯤으로
생각하고 돌아설 일 아니다
알 도치가 쏟아내는
붉은 알이 한 양푼이고
데쳐낸 솥도치의 꼬들꼬들함은
횃감으로 일품이다

무엇보다도 묵은김치에
온갖 내장 넣어 볶은
두루치기 맛이라니
온 가족 둘러앉은 두레반에
도치 알만큼이나 쏟아내던 웃음판

푸짐한 웃음 뚱뚱 떠오르는 날
알만한 사람은 도치를 찾는다.



김춘만

- 월간문학으로 등단
- 시집「두타연 고양이」외 4권
- 설악문우회(갈매동인) 한국문협회원



박대성

설악산



모두 산으로 오르지만
속초 사람들은 산에 오르지 않는다
산이 아래로 내려오고 싶어 하는 걸 알기 때문이다.
날이 어두워지면 절에 들고
길이 막히면 물가를 찾아
산이 내려오는 걸 안다.

금강은 일만 이천 첨봉으로 끝없이 하늘을 오르고
설악은 일만 이천 폭포로 산을 내려온다.
속초 사람들은 산에 오르지 않는다.

산이 내려와 청초호에 영랑호에 몸 씻으면
속초 사람들은 그 물로 밥 짓고 빨래하고 목욕한다.
설악산은 사람이다.
속초 사람이다.



박대성

- 2001 강원일보 신춘문예 詩 당선 등단
- 시집 「아버지 액자는 따스한가요」 외 3권 출간
- 속초 물소리詩낭송회 회원
- 최명길 시인 선양회 회원
- 속초문인협회 회원

신민걸

돈돌라리



사자야 사자야 북청사자야 이북에서 푸른 춤길 놀아 형클어진 돈나리 사자야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라 사자야 사자야 북청 춤사위 힘찬 해치야
이제는 속초라도 말짱하게 신명지는 이북내기 춤꾼아 돈돌라리 돈돌라리라
리라나리요 휘영청 대보름달 춤가락에 낙양 동천 이화정 말고 화려한 이화주라
끄덕끄덕 크낙한 머리 사랑사랑 따라오라 앞다리 죽자사자 짝 맞춰라 뒤탈리 췌
흔드는 긴 꼬리 돈돌라리 돈돌라리라 리라나리요 모래 청산에 돈돌라리요
불서러워라 여기도 청산이라 상전이라 벽해라 모래불이라 춤바람 난 너랑 나랑
마실 한껏 돌아보자 춤판 힘껏 돌아보자 돈돌라리 돈돌라리라 리라나리요



신민걸

- 2024 제1시집 <울산바위의귀> 출간
- 속초 물소리詩낭송회 동인 활동 중

정명숙

갯배와 철삭*



정명숙

- 2006년 문학마을 시인상 수상으로 등단
- 시집: 『섬이 바다에 머무는 것은』, 『그 많은 인연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 강원문협 이사, 설악문우회 갈매 동인, 현 속초문협 사무국장,



내가 너에게 묶인 건지
네가 나에게 묶인 건지
알 수 없지만

내가 너를 끌고
네가 나를 끌고
해 저물도록 개를 건넌다

가끔
먼바다로의 일탈을 꿈꾸지만
바람길 열어줄 뜻이 없어
늘어진 철삭 팽팽히 당기는
청호동 갯배

*철삭: 쇠로 만든 밧줄

지영희

속초에는 섬이 살고 있다



지영희

- 1994 월간문학 등단
- 시집 <사람이 두렵습니다>2001, <가까운 별 내 안의 새들>2020
- 속초문인협회 지회장, 시마을 사람들 이장 역임
- 현 한국문인협회, 강원문인협회 이사, 속초문인협회 회원, 설악문우회(갈매) 회장, 산까지 동인

속초에는 섬이 살고 있다

일상에 쏠려 모래알처럼 흩어졌던 그리움들이
골목마다 섬을 이루어 살고 있다

수평선 팽팽한 푸른 숲에 별을 찍는다
누군가는 열어지는 얼굴을
누군가는 발가락 사이로 헤엄치는 꿈을
잠시 물 위로 고개 내밀어 따 먹는 섬표를

짙내 나는 시간과 발효된 돌멩이로
드문드문 길을 키우는 섬

먼 길 온 그림자가 오래 바라보게 손을 흔들어주고
파도가 깨어지며 쏟아내는 심층수 말씀도
바람 사이로 전하는

줄며 명상하는 한 줄 나무울타리에
생명줄 불끈 쥐어 살점 흘뜨려 피우는 나팔꽃
그처럼 살고 있는 섬

속초에는
누구든 살게 하는 그리움이
섬 되어 살고 있다



최명선

모노드라마



최명선

- 《문학세계》등단
- 시집『환승의 이중 구조』외 2 권
- 현 한국문인협회, 강원문협 이사
- 속초문인협회 부지부장



아래층으로 소리를 키우는 아이가 있어요
문밖은 폭염이고 다섯 살의 무료를 생각하면
제 이해가 뽕족하기는 해요

하품 탓이에요
귀로 들어가려던 아이의 발소리가
낮잠에서 막 깬 제 입속으로 들어간 거죠
너무 단단해 씹다가 뱉다가 소화가 안 된다고
조금만 더 부드럽게 해달라고 부탁할까 하다가
차곡차곡 쥔여놓은 레토르트 식품 같은
미안해요, 감사해요
내 표정보다 빠른 젊은 엄마의 말이 생각난 거죠

이해해요, 이해하고 말고요
사는 건 늘 넘치고 모자라는 거지요
가슴은 이미 바닥이 났지만 머리를 달래 볼게요
우아하게 막 내림을 하려고
주섬주섬 생각을 챙기는데 뭐 하니? 뭐 하니?
오후 두 시 햇살이 유리문 밖에서 깔깔거려요

꼬불꼬불 퍼지지 않는 뜨거운 날이네요
알면서도 속은 것 같은 불닭 라면처럼요

권정남

자일리톨을 씹다



권정남

- 1987년 『시와 의식』, 2016년 『현대수필』 등단
- 시집 『나사뿔의 기억』 외 5권, 수필집 『겨울 비선대에서』 출간
- 전영택 문학상, 강원문학상, 강원사랑 시화전 대상 외 다수 수상,
-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국 시인협회 강원문인협회 및 속초문인협회 활동



입안에 자작나무가
자라고 있다
자작나무 향기에 취해
뿌리를 씹듯 자일리톨을 씹는다
씹을수록 우러나는 자일렌에 현혹되어
삶의 상처가 타액에 씻겨 나가는
희열을 맛보다가
그 누군가를 자꾸만 씹고 싶어진다
씹을수록 우러나는 매혹적인 단맛에 취해
눈 껌뻑이며 그 누군가를
오래도록 씹다가 보니 끝내
허무 같은 타액이 입속에 뒹굴다가
혓바닥을 깨물고 만다
자일리톨*이 주는 희열과 허무의 이중주
문득, 핀란드 호숫가 세찬 바람 소리와 물결소리
몸에서 진액을 뺀 자작나무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내 귀를 때린다

*자일리톨 : 핀란드 자작나무에서 추출한 자이레톨이 껌의 재료가 됨

심재현

공부 시간에



심재현

- 수원 출생
- 현재 속초 거주
- 아이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중

<동시>

국어 시간에
글자 위로 날아와
오른손으로
사부작사부작

수학 시간에
숫자 위로 날아와
왼손으로
사부작사부작

파리야
공부를 좋아하는 파리야
나 대신 앉아있으렴
너 대신 내가 날아갈게



‘세발자전거’의 부가 가치

극작가 최재도

그때 나는 세발자전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 친구는 「카스텔라」빵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집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배가 고프던 터였으므로 빵 반 조각과 바꾸자는 그 친구의 제안에 동의해, 내 자전거를 만나질 동안 빌려주었다.

그 친구는, 내 자전거를 끌고 마을 공터로 나가더니, 갖가지 놀이방법을 개발해 동네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발시켰다. 그리고는 한 번씩 타보게 해주는 대가로 알사탕이나 구슬, 또는 딱지 몇 장씩을 받아냈다. 그는 결국, 자전거 주인인 내게 지불했던 빵 반 조각의 몇 갑절되는 이익을 남기고, 거덜 난 빈 자전거만을 되돌려 주었다.

그의 교활한 상술에 나는 크게 분개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의 술수에 말려들어 내 자전거가 거덜 난 것도 약 오르는 일이고, 고작 빵 반 조각을 투자한 그가 그토록 많은 소득을 얻은 것도 배 아픈 일이다. 자전거 타보는 것이 소원이라며 애원할 때와는 달리, 그것으로 영리 행위를 했으니 패심하기 짝이 없지만, 나도 그에게 빵 반 조각을 얻어먹고서 자전거를 내준 것이니, 기실 할 말이 없었다.

그 후 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 소득이 보잘것없는 이들이나,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채 궁색하게 지내는 이들을 보면 늘 그 시절을 떠올리곤 한다. 아주 똑똑하고 예쁜 여자가 백수건달과 결혼해 힘겹게 사는 것을 볼 때도 그렇고, 비상한 재주를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의 꿈을 접고 박봉에 허우적대며 사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때도 그렇다.



최재도

- 1957년 강원도 속초생.
- 1977년 KBS라디오드라마 현상공모 당선
- 1983년 계몽사 아동문학상 동극부문
- 1985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희곡부문
- 최재도 단막희곡집 「멈춘 곡선의 우아한 고독」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다렸더라면, 자기 자신에 좀 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조금만 더 자신에게 투자했더라면, 한 발짝만 더 진취적으로 나섰더라면 종내 그 꿈을 이루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한순간의 고통에 굴복하거나 조급한 마음에 포기하고 말아, 끝내는 저렇듯 초라한 현실만을 가지게 된 것일 게다.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그에 걸맞은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나는 존경한다. 세속적 의미의 출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믿는 일에 전념하며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욱 그렇다. 자기 성취를 위한 끊임없는 시도, 자신의 가치관이 인정하는 최대의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 스스로를 연마하는 사람들은, 끝내 자신의 노력만큼 보상을 받게 되리라 믿기 때문이다.

다시 생각해 보면 세발자전거 하나로 그토록 훌륭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낸 그 친구가 자랑스롭다. 비싼 자전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있던 나보다, 그 사소한 것에서조차 그토록 많은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었던 그가, 월등히 높은 사회적 성취를 얻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때때로 나는, 아직도 「세발자전거」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하곤 한다. 집에 금은보화를 쌓아두고도, 길거리에서 구걸로 연명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있다.



모네의 정원에서

서미숙

올 여름방학 그림책 수업을 하면서 모네의 정원이라는 책으로 수업을 했다.

인상파의 화가의 시대적 흐름을 이야기 해주고 평소에 좋아하는 화가이기에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이 책을 선택했다. 아이들은 글이 많다는 이유로 투정이 많았던 그림책 수업이었다. <모네의 수련> 이야기를 해주며 많은 그림들을 보여 주었으나 아이들을 그다지 그림에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다. 막바지에 선생님도 수련을 그렸다 하면서 예전에 경향미술대전에서 입상한 수련그림을 보여주었다. 그제 서야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우와” 하는 탄성을 지른다.

<모네의 정원>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로 수업을 진행하고 나니 모네의 이야기를 알고 싶어졌다.

클로르 모네는 빛의 화가로 불리는 대표적인 인상주의 화가이다. 1860년대 파리의 미술가들이 주도 하기 시작한 인상주의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전통적이고 주류적인 예술 스타일에 대한 거부로 시작되었다.

화가들은 그들의 감정과 인상을 실험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고 한다. 인상주의 그림들은 빛에 의해서만 그리는 기법이어서 그리다 말았다는 느낌이 강해 모네의 그림도 처음에는 좋은 반응을 받지 못했다. 1874년 모네의 그림 중 <인상-해돋이>라는 작품을 보고 어느 비평가는 그의 그림을 보고 ‘그리다 말았다’는 표현 등으로 비평을 해 그 단어가 사조가 되었다고 한다.

그는 빛과 함께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색채 변화 속에서 자연을 묘사하고 색채나 색조의 순간적인 효과를 이용하여 눈에 보이는 색에서 오는 느낌을 그대로 표현했다.

바다가 파란색이라면 빛에 반사되어 하얗게 보이는데 그렇게 비추는 짧은 순간을 묘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같은 장소라 해도 빛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묘사했다.

그러다보니 모네는 연작으로 한 가지 장소를 빛의 방향에 따라 다르게 그린 그림들이 많다.

사람들은 한 가지 장소를 똑같이 여러 장 그리는 모네를 이상하

다고 생각했다.

모네는 수련을 소재로 한 작품을 많이 그렸다. 모네가 그린 수련의 그림은 두 송이가 그려진 그림인데, 어찌 보면 얼룩 자국처럼 보이고 물감을 그냥 덩지덩지 칠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 그림을 멀리며 보면 수련이 연못에 떠있는 진짜 수련처럼 보이는 참 신기한 그림 이라고 한다. 지베르니는 “연못의 수련”을 그린 것은 원래 꽃을 대상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물이 라는 속성이 빛을 반사시키고 보이는 것을 표현하는데 가장 이상적이고 어떠한 색들이 나타나는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라는 때문에 수련을 그렸다고 한다.

그 시대의 다른 화가 들은 그의 그림들을 보고 미완성으로 보인다는 비평을 많이 쏟아내기도 했지만, 폴 세잔(Paul Cézanne)은 빛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네의 능력에 감탄하면서 ‘모네는 신의 눈을 가진 유일한 인간’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한다.

모네는 어린 적 화가가 꿈이었으나 그이 집은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그가 가게를 돕기를 바랐다. 다들 그렇지만 그 시대의 화가들은 무척 이나 가난했다. 다행히 화가인 고모가 있어 모네가 파리에 가서 그림 공부를 하게 도와주었다고 한다.

모네는 카미유 라는 여자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경제적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모네의 그림을 사주던 부자 지인이 파산을 맞으면서 떠나 버린데다, 지인의 아내의 다섯 아이와 뱃속의 아기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자신의 아이들까지 여덟명의 아이들을 키워야 했지만 형편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 큰 불행이 닥친 것은 아내인 카미유도 결핵을 앓다 죽게 되었고 그의 아들 또한 건강이 나빠져 죽고 말았다, 모네는 절망에 밖에 없는 상황에 이지만 지인의 아내와 아이들의 생계를 책임 질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도 파산하고 버리고 간 그의 아내와 아이들까지 거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다. 요즘 같아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그들은 형편상 파리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서 시골의 별장에 머물렀다.

별장에 머물면서 그린 그림이 몇 점 팔려 그가 좀 더 나은 집을 구



하러 다니는 중 그는 지베르니 마을의 분홍색 집을 발견하고 그 집에 세를 들어 살았다. 지베르니의 분홍색 집은 그에게 행운을 가져다주었다. 나중에 그 집을 매입 할 만큼 그림은 유명해 졌고 모네가 죽을 때까지 살았다. 그곳이 지금 그 유명한 <모네의 정원>이다. 해마다 50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가는 명소가 되었다 한다.

모네는 그 집에 살며 제일 먼저 정원부터 가꾸기 시작하였다. 그는 꽃을 엄청 좋아해서 많은 꽃을 심었다, 모네는 정원을 참으로 좋아했고, 식물에도 관심이 많았다.

그들은 식물에 관한 책을 써서 출판하고 개양귀비와 들 양귀비를 교배하면서 성공을 하며 새로운 품종의 양귀비를 탄생시켰는데 그 양귀비의 학명은 파파베르 모네티라고 한다.

그런 이유로 모네는 양귀비가 나오는 그림도 많이 그렸다. 그중 양산을 든 여인과 아이들이 산책하고 있는 <양귀 들관>작품이다. 이 그림에서도 꽃을 양귀비처럼 묘사 했지만 사실 양귀비처럼 보이지 않는다. 빠른 붓질로 표현한 것들이 모여서 양귀비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의 그림들은 연꽃을 하나, 하나 자세하게 그리지는 않았지만 그림의 하나 ,하나가 모여서 연꽃처럼 보이는 마술 같은 그림들을 그렸다.

모네의 가족들은 모두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네의 가족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직업이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상한 눈으로 보기도 했다고 한다.

온 가족이 점심을 한 끼 먹으려고 양산과 도시락 바구니를 들고 멀리 나가곤 했다고 하니 말이다, 내가 보기는 아주 낭만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고 싶다.

더구나 지인 부인인 알리스와 모네는 결혼도 하지 않고 살고 있었으니 참으로 묘한 집이기도 하기는 했다. 그 시대의 상황이 파산을 맞고 떠나버린 지인의 아내였고 그 당시 아무도 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몇 년 뒤 그 지인이 죽고 나자 둘은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죽어야만 새로운 사람과 살 수 있는 시대라 난감하다.

이후 모네의 그림이 유명해 지면서 멀리 미국에서도 찾아 왔지만 모든 화가들이 그렇듯이 자신의 그림들을 판다는 것이나 멀리 보내는 것을 고통스러워했다고 한다. 화가들이 그림을 남에게 보낼 때는 딸을 시집보낸다는 표현을 많이 쓴다. 그만큼 자신이 그린 그림은 아까워 남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래서 같은 화가들끼리는 절대 다른 이의 그림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 남의 그림을 함부로 달라 하거나 그림을 그냥 가져하는 것은 더구나 예의가 아니다.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도 보내기는 고통스러운 것이다.

모네는 인상주의자의 창시자였다, 그의 <작품 인상. 해돋이>이름을 따왔기 때문이다.

모네 작품은 인상주의의 급진적인 새로운 세계를 개척한 셈이다. 그 당시에 모네의 혁명적인 발상은 시각적인 현실을 환기하고 탐구하는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첫 인상파라는 조롱에도 꺾끗하게

흔들리지 않고 작품의 세계를 밀고 나갔다.

그의 그림에서 가장 유연한 그림들은 역시나 수련이다. 그가 사망하기 전까지 그렸던 수련의 그림들은 250여종이나 된다. 인상주의 그림은 빛에서 오는 것을 중요시하는 그림들이다.

매번 달라지는 빛의 효과를 그려야 하기에 때문에 빛이 나오는 시간에 맞춰 작업을 해야 하는데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다 보니 그의 눈은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된다.

말년에 그의 그림이 사물의 경계가 흐릿하고 뿌옇게 그리는 현상을 추상적으로 그렸다고 이야기들을 했지만 사실 그 이유는 백내장 때문이었다. 사물이 부엌게 보이거나 눈부심이 심해지는 현상으로 빛을 잘 통과하지 못하는 백내장의 특성이라고 한다. 백내장으로 시야가 흐렷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을 그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는 그런 와중에도 수많은 그림들을 그렸다. 그 밖의 유명한 그림으로 <건초더미>, <일본식 다리>, <루앙대성당>, <산책> 등이 다수 있다.

요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7년 만에 붓을 잡고 그림을 그려보았다. 그동안 그림을 안 그렸냐는 등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물어두고 붓질을 시작했다. 멋지게 그려졌다. 늘 다니는 출근길의 모습을 그렸는데 실력은 줄지 않았다. 30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화구박스 그 속에 굳어져 간 붓들, 그리고 기름통 20센티나 되는 기름이 엉겨 붙어 있었다. 수건을 몇 개 버려가며 닦아내다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렸으나 다시 사려니 좀 값이 나갔다. 기름통을 닦아내고, 붓들을 닦아 내고 그리고 붓질을 하는 내 모습을 보며 갑자기 많은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지 옷을 만드는 사람인지 한동안 옷 만들기에 빠져 붓을 놓았나? 아니면 붓이 싫어 옷 만들기를 시작했나? 많은 생각들에 한숨이 깊어 졌다.

어쨌거나 계기가 되어 다시 시작한 붓질...

트라우마에 빠져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었던 지난 시간들 문득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계 위해 마지못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옛날 시절과는 다르다. 하지만 결국 그림을 가르치면서 생계를 잇는 나도 다를 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에게 그림책 수업으로 클로드 모네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막연하게 들었다. 유명한 화가가 된 것도 아니고 디자인을 하다, 유향을 하다, 수채화를 하다, 미인도를 하다, 그리고 한국화를 하다 시간을 허비한 나, 아니 그 많은 다양한 그림들을 그렸기에 이렇게 아이들을 수업할 수 있어 라고 합리화를 시켜가며 나를 토닥거리는 시간이 되었다.

클로드 모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정원에는 내가 평생 추구하던 물과 빛과 색이 있네. 내가 그토록 여행하고 야외로 나갔던 이유이기도 하지.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네. 나의 정원에 다 있으니”

나도 나만의 정원을 가꾸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깊이 들었다. 클로드 모네처럼 나만의 생각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리다 보면 유명해 지려나? 나도 꼭 모네의 정원을 방문하고 싶다.

*도움 받은 책 -크리스티나 비외르크, 『모네의 정원』에서 미래사.2014.



서미숙

2021년 『신문예』로 등단했다. 현재 속초문협, 설악문우회 갈매 회원, 속초예총 부회장, 속초 어린이 책 읽는 어른모임 리더, 속초문화관광재단 시민활동가, 속초·양양·고성 지역 미술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제35회 설악학생미술작품 공모전

“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는 설악권(속초, 고성, 양양, 인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작품 공모전을 개최하여 총403명이 참가하여 심사를 통해 전체 대상 및 각 부문 금, 은, 동, 장려, 입선까지 총217명에게 시상하였다. 수상한 작품은 일본 요나고시, 중국 훈춘학생들의 작품과 함께 제29회 국제아동미술교류전에 전시하였다.



지승빈 전체 대상, 설악중

이채은
고등부 금상, 속여고



남지우 초등2부 금상, 간성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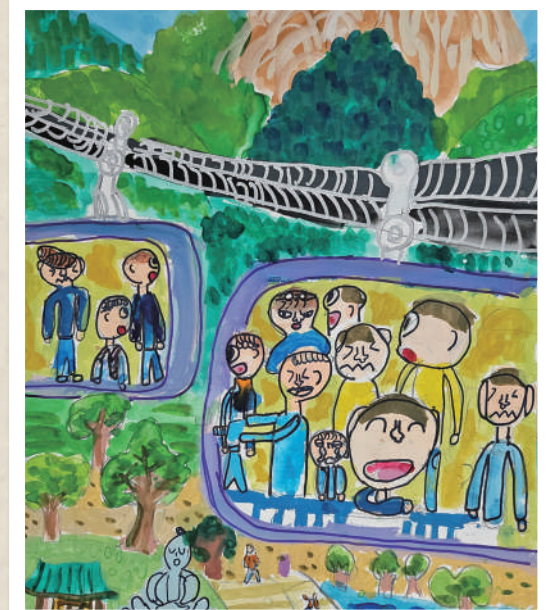
유리현 유치부, 금상, 간성초병설유치원

김나현
중등부 금상, 설온중



박찬영
초등3부 금상, 영랑초

전현준 초등1부, 금상, 청봉초



총 평론

“ 자연 경관과 경험화를 주제로 한 2024 설악학생미술작품 공모전에서 산, 바다, 호수등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양한 시각에서 표현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각 연령대 학생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창의적인 시선을 담아낸 작품들은 그 자체로 소중한 기록이자 예술적 표현이었습니다. 각 작품속에 담긴 개성과 창의력은 앞으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으며 모든 참가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 속초예총 사무감사

(사)한국예총속초지회는 1월 24일(수) 오후1시 정경숙 감사가 속초예총 사무실에서 2023년도 사업추진 전반 및 예산 집행에 대한 사무 감사를 진행했다.

일시 : 1월 24일(수) 평일 오후 1시
장소 : 사)한국예총속초지회 사무실



◆ 사)성남예총 선진지 견학

사)속초예총과 사)성남예총은 1992년 7월 11일 (사)속초예총 회장 김영복, (사)성남예총 회장 김성태는 지역간의 예술문화교류를 통한 예술인의 권익증진과 지역예술문화 창달을 위하여 자매결연을 맺은 관계였다.

이에 사)속초예총 박치영 회장님과 사무국이 함께 방문하여 앞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예총간의 교류는 물론 더 나아가 각 협회간의 교류와 우호증진을 기대한다.

일시 : 2월 6일(화) 10시
장소 : 사)성남예총



◆ 속초예총 제1차 이사회의

속초예총 제1차 이사 회의가 2월 7일(수) 오후 4시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이루어졌다.

재적이사 32명 중 23명이 참여해 제1호 의안 2023년 수입·지출 결산(안), 제2호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안), 제3호 의안 제 35회 정기총회 개최 및 부의의 건 의결, 제4호 의안 속초예총 사무국장 임명 동의의 건을 의결하여 제1호부터 4호 의안 모두 찬성으로 의결, 그 중 제3호 의안은 2월 17일(토) 15시에 속초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 진행했다.

일시 : 2월 7일(수) 16시
장소 :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



◆ 속초예총 제35회 정기총회

속초예총 제35차 정기총회가 2월 17일(토) 오후 4시에 속초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대의원 57명 중 48명이 참여, 2023년 감사보고 및 주요 업무 경과보고, 2024년 수입·지출 결산(안),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속초예총 감사 보선의 건으로 진행했다.

일시 : 2월 17일(토) 15시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소강당



◆ (사)속초예총-동해장례식장 상호협력 업무협약식(MOU)

사)속초예총과 동해장례식장은 2월 17일(토) 정기총회에서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속초예총 회원과 가족들에게 동해장례식장에서 우대서비스와 이송차량 및 시설 이용, 식·음료 비용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 지역의 장례문화 및 서비스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일시 : 2월 17일(토) 15시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소강당



◆ 김정희 작가 '눈물나는 날' 출판기념회

사진작가 겸 시인인 김정희 작가가 첫 시집 <눈물나는 날> 출판 기념회를 3월 9일 14시에 속초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시집에는 1부 '블랙코미디', 2부 '은행을 털다', 3부 '눈물나는 날', 4부 '사랑, 아픔, 그리고 고독'으로 나눠 모두 104편의 시를 담았다.

일시 : 3월 9일(토) 14시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2024 강원연극제 in 태백

제41회 강원연극제가 3월 16일(토)부터 3월 23일(토)까지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졌다. 극단 '청봉'이 '탄'으로 금상을, 하늘천 땅지가 '만리향'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극단 '청봉'의 금상 수상작 '탄'은 극단 파·람·불과 협업으로 제작됐다. 청봉의 최은희 대표는 배우로 출연했고, 파·람·불의 김강석 대표는 제작PD로 참여했다.

일시 : 3월 16일(토) ~ 3월 23일(토)
장소 : 태백문화예술회관



◆ 속초예총 제2차 이사회의

속초예총 제2차 이사 회의가 2월 17일(일) 오후 2시 속초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이루어졌다. 재적이사 31명 중 16명이 참여해 제1호 의안 2024년 속초예총 조직 및 운영규정 개정(안), 제2호 의안 2024년 속초예총 자문위원회 및 후원회 구성설치(안)을 의결하였고 기타 안전으로는 체스터튼스 호텔과 상생업무제휴 협약, 24년 속초예술제 추진계획, 속초예총 홈페이지 개선의 건으로 진행했다. 제1호 의안과 제2호 의안 모두 찬성으로 의결, 체스터튼스 호텔 업무협약은 3월 28일(목) 체결하기로 하였으며, 속초예술제는 실무자 중심으로 추진, 홈페이지는 업체 비교 견적 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일시 : 3월 17일(토) 14시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소강당



◆ 속초예총-체스터튼스호텔 상생업무 제휴 협약식

3월 28일(목) 속초예총은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상생 협력을 위해 체스터튼스 호텔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속초예총은 체스터튼스 호텔에서의 다양한 공연, 전시회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체스터튼스 호텔은 속초 예술인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 및 시설을 제공하게 된다.

일시 : 3월 28일(목) 15시

장소 : 체스터튼스 호텔 멀티룸



◆ 극단 파.람.불 2024년 지역연계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 T.I.E 교육연극 - “미래의 장례식”

매년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자살을 합니다. 많은 매체와 뉴스에서 이런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어린 학생들의 자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왜 그 학생들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어떤 상처가 있기에...그런 선택을 하였을까요?...그 와중에 우리 친구들과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했나요?...저 자신도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른으로서 학생들의 고민을 진심으로 귀기울려서 들어주는 사람인가에 대해 많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공연을 보고 나면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제가 흑시라도 내가 힘들어져서 그런 도움이 절실히되는 순간에 나 스스로를 돕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왕따는 있었고, 그로인해 상처받고 힘들어 했을 겁니다. 쉽게 모든 게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공연을 관람한 후에 내 주위의 친구를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극단 파.람.불은 10년째 교육청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시 : 3월 ~ 10월

장소 : 속초·고성·양양 초·중·고 관내



◆ 속초예총-강원충청권 교육기부 문화 확산 업무 협약

속초예총과 강원충청권 교육기부 거점지원센터가 4월 2일 문화 확산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일시 : 4월 2일(화)

장소 : 속초예총 사무실



◆ 상상이상-강원충청권 교육기부 문화 확산 업무 협약

영화인협회 상상이상과 강원충청권 교육기부 거점지원센터가 4월 2일 문화 확산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일시 : 4월 2일(화)

장소 : 상상이상 교육공간



◆ 국립산악박물관, 첫 번째 작은 전시 ‘산, 거닐다’

국립산악박물관에서는 4월 2일(화)부터 30일(화)까지 박물관 내부에서 ‘산’을 주제로 작은 전시가 개최되었다.

작은 전시는 국립산악박물관 내부에서 개최되는 소규모 전시로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전시를 보여주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속초예총의 사진작가협회, 미술협회의 사진/미술 작품과 박물관 대표유물 10선, 박물관 소장품 그리기 체험 참가작품이 함께 선보여졌다.

첫 번째 작은 전시 ‘산, 거닐다’는 한국사진협회 속초지부 회원들의 작품으로 김진수 지부장의 작품 <토왕성폭포 추경> 9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일시 : 4월 2일(화) ~ 4월 30일(화)

장소 : 국립산악박물관



◆ 속초예총-춘천예총 업무협약식(MOU)

속초예총과 춘천예총은 4월 24일(수) 15시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속초와 춘천예총은 문화예술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며, 특히 춘천예총은 11월 속초에 무료 공연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일시 : 4월 24일(수) 15시

장소 : 속초예총 사무실



◆ 속초영화인협회 - 상상이상 더나은교육지구 사업 “속초의 고래와 사자를 찾아서”

영화인협회 상상이상은 4월 27일 ~ 7월 6일 간 2024 속초 더나은 교육지구 “속초의 고래와 사자를 찾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속초지역 초등학교 3-6학년 대상으로 진행된 본 프로그램은 속초지역의 대표적 경관자원이자 자연환경인 속초해변과 영랑호를 공간적 배경으로, 인류세(人類世)의 난제인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융합형 예술작품을 만드는 미디어 창작 교육이었다.

일시 : 4월 27일(토) ~ 7월 6일(토), 오전 10시~12시, 13시~15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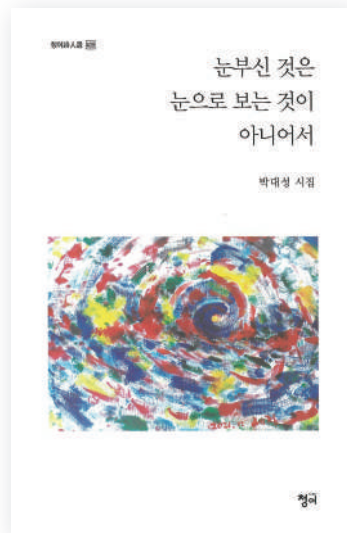
장소 : 상상이상 교육공간, 속초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꿈이랑



◆ 박대성 시인 네 번째 시집
“눈부신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어서” 발간

박대성 시인이 네 번째 시집 <눈부신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어서>를 출간했다. 이번 시집에는 1부 ‘서울 가는 길’, 2부 ‘사랑하기 때문에’, 3부 ‘체온에 대하여’, 4부 ‘실패한 반찬들로 나누어 총 87편이 실렸다. 2011년 강원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박대성 시인은 첫 시집 <아버지 액자는 파스한가>를 시작으로 <파도 땅은 아바이>와 <아사달로 가는 갯배>를 발표한 바 있다.

일시 : 4월 30일(화)



◆ 신민걸 시인 첫 시집 ‘울산바위의궤’ 발간

신민걸 시인이 첫 시집 <울산바위의궤>를 출간했다. 현대시세계 시인선 163번으로 나온 이 시집에는 총 80편의 시가 4부로 나누어 실렸다. 시집 ‘시인의 말’에서 신민걸 시인은 “삼라만상의 품에서 더불어 살아가며 경외하고 설렌 사유를 기록했다”고 밝혔으며 시집의 제목인 ‘울산바위의궤’를 주제로 한 시가 6편이 포함되어 있다. 일시 : 5월 20일(월)



◆ 국립산악박물관, 두 번째 작은전시 ‘산, 풍경 속으로’

국립산악박물관에서는 두 번째 작은 전시 ‘산, 풍경 속으로’가 5월 1일(수)부터 31일(금)까지 개최되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와 진행했던 사진 전시에 이어 지역과 협업하는 두 번째 전시로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회원들의 미술작품, 김도연의 <은하수_기다리는 마음> 외 11명의 작가가 참여하였다. 유화, 수채화, 수묵담채, 섬유 재료로 만든 작품 등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된 산의 모습을 미술 작품을 통해 감상할 수 있었다.

일시 : 5월 1일(수) ~ 5월 31일(금)

장소 : 국립산악박물관



◆ 극단 파.람.불 2024년 속초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
- “ 학교를 만들면 ”

· 작품 주제 : 도박,흡연예방연극 - “ 학교를 만들면 ”

* guilty pleasure (길티플레저: 어떤 일을 할 때 죄책감을 수반하지만, 그럼에도 쾌락을 만끽하는 것을 말한다.)

- 청소년들도 그만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친구의 권유와 호기심으로 첫 도박(돈내기) 게임에 참여하는 평균 연령이 12.5세이고 도박을 즐기는 청소년의 연령은 2017년 18.2세에서 2022년에는 12.6세까지 어려졌다. 피해 금액 또한 1,344만원에 달한다. 청소년은 아직 경제 관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만큼 도박에 과몰입하기 쉽다. 또한, 고리 대출의 위험성도 알지 못해 불법 고리 대출을 이용해 더 큰 빚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죄책감이 드는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는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돈내기”를 하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된다. “첫 돈내기”는 그것이 도박인지도 모르고 시작 되어 지고, 그것은 어느새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 그것이 잘못됨을 알게 되었을 때는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태. 그때부터 죄책감을 동반한 쾌락이 시작된다.

* 일시 : 2024년 5월 21일

* 장소 : 설악중학교 체육관

* 시간 : 오후 3시 2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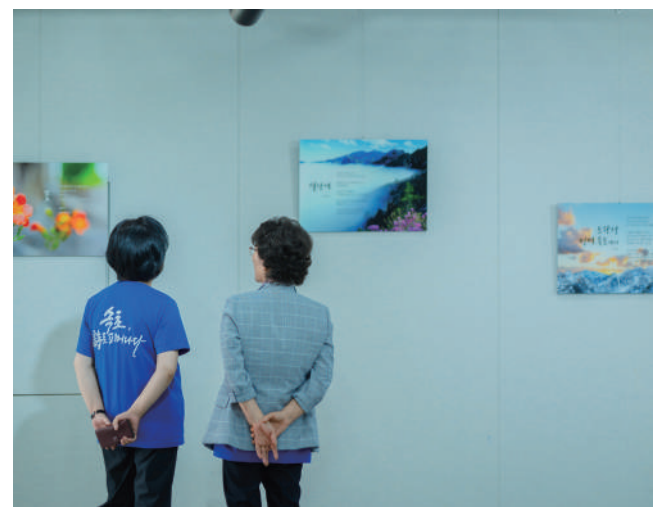


◆ 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 시화전-속초,詩로 피어나다

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 주관 시화전이 5월 21일(화)부터 24일(금)까지 속초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속초 문인협회 회원들이 참여하여 작품을 선보였으며, 특히 시와 어울리는 사진을 함께 담아내어 아름다움을 한층 더 빛내주었다.

일시 : 5월 21일(화) ~ 24(금)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고명녀 개인전 ‘갈전의 보물창고’

오래된 시골집 헛간의 빗장을 열었다. 그곳의 잠들어 있는 우리 선조님들의 유물을 깨워 오래전부터 미뤄왔던 숙제를 하듯이 세월이 빚어낸 묘한 빛과 토속적인 색감을 뿜어내는 매력이 내 눈을 사로잡았고 그들이 들려주는 전설에 귀 기울이며 작업을 했다. 제사에 사용했던 제기와 낫그릇, 세월 속에 삭아가고 있는 삼베 한필, 더 나은 시대를 꿈꾸며 유학길에 올랐을 가방 속의 서적과 미니족보, 딸에게 보내는 애뜻한 편지, 시제나 기일에 사용하던 낡은 병풍 등등. 모든 물건 하나하나에는 간절한 소망, 가슴 벅찬 영광, 애잔함 등 다양한 정서가 남아있다고 느끼며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고 잊혀져 가는 가풍과 강원의 전통문화와 그 아름다움을 깊이 이해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담았다.

일시 : 5월 21일(화) ~ 26일(일) / 장소 : 강릉아트센터 제2전시실

일시 : 10월 27일(일) ~ 11월 30일(토) / 장소 : 한국여성수련원 갤러리 ‘솔’



◆ 제35회 속초예술제 ‘ART 모꼬지’

사)한국예총 속초지회(지회장:박치영)는 5월 21일부터 6월 13일까지 속초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제35회 속초예술제‘ART 모꼬지’를 개최하였다. 속초예총은 행사명을 기존 ‘속초종합예술제’에서 ‘속초예술제’로 변경했다. 올해는 ‘ART 모꼬지’를 주제로 전시, 무대공연, 야외공연, 체험, 단편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본 행사는 속초예총 소속의 9개 예술협회(문인협회, 미술협회, 연극협회, 음악협회, 국악협회, 사진작가협회, 무용협회, 연예예술인협회, 영화인협회)예술인들이 지난 1년간 준비한 창작 결과물을 속초시민과 관광객에게 선보이는 자리로 각종 체험과 공연, 쉽터가 제공되었으며, 특히 이번 예술제에서는 행사기간 3일 간 행사 참가자에게 추첨을 통해 즉석에서 골드바를 선물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되었다.

일시 : 5월 21일(화) ~ 6월 13일(목)

개막식 : 5월 24일(금) 19시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일원

◆ 제35회 설악학생미술작품 공모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주관 제35회 설악청소년 학생미술작품 공모전은 4월 15일(월)부터 5월 13일(월)까지 작품 공모를 통해 창의성 개발 및 꿈과 희망을 심어 주며, 지역 미술 인구 저변 확대를 통한 지역 미술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했다. 입상자들은 속초예술제 개막식에서 시상식이 진행되었으며, 입상자들은 속초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전시되었다.

일시 : 4월 15일(월) ~ 5월 13일(월)

시상식 : 5월 24일(금) 속초문화예술회관 광장

전시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2024 속초국악협회 정기공연 ‘속초유람’

한국국악협회 속초지부 주관 제21회 정기공연 및 개막공연이 5월 24일(금) 저녁 7시 30분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그림과 아름다운 속초 이야기 「속초유람」이라는 주제로 난타 퍼포먼스, 신속초사자놀이, 도리원농악 판굿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일시 : 5월 24일(금) 19:30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속초영화인협회 - 상상이상

2024 강원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 “상상, 속초를 비추다”

2024 강원문화재단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상상, 속초를 비추다” 프로그램이 5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속초 꿈이랑에서 진행되었다.

“미디어 문화예술로 주인공이 되는 시간”을 주제로 진행된 본 프로그램은 지역에서의 나의 생각과 상상, 경험을 이야기화하여 AI, VR과 같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미디어아트를 제작, 전시회를 개최하는 프로젝트 활동 속에서 “예술로 성장하는 나”, “문화로 대화하는 나”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일시 : 5월 24일 ~ 9월 13일, 10시 30분 ~ 13시 30분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제49회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展 ‘설악의 향연’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주관 제35회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展 ‘설악의 향연’이 5월 25일(토)~5월 30(목)까지 속초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설악의 향연은 아름다운 설악산과 동해, 호수와 꽃, 그 옆에서 살아가는 우리 지역의 작가들도 아름다움을 작품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전시회가 문화적 삶을 희망하는 많은 시민들과 작가들의 소통의 공간, 작은 단비가 되길 희망하며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미술 전시회로 한국화, 서양화, 조소, 공예, 서예 부문 총 60여점의 작품을 전시했다.

일시 : 5월 25일(토) ~ 5월 30일(목)

전시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속초예총-군포예총 업무협약식(MOU)

5월 25일(토), 사)한국예총 군포지회와 속초예총 간의 업무협약(MOU)이 속초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협약식은 두 지역의 문화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군포예총 지회장을 비롯해 4명의 군포예총 지부장과 군포국악협회 회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속초예총에서는 박혜정 수석부회장, 문인협회 김향숙 지부장, 미술협회 김만두 지부장, 김영미 부지부장 등을 포함하여 여러 회원들이 함께하여 행사를 축하하였다.

협약식은 두 지역 예술인들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문화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와 교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속초예총은 9월 7일(토) 군포예술제에서 교류 공연을 예정하였다. 이로써 양 지역의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식은 속초와 군포가 서로의 예술적 가치를 존중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일시 : 5월 25일(토) 10:00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사)군포예총 교류 공연 ‘군포국악협회 국악한마당’

5월 25일(토), 속초예술제 “ART 모꼬지”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사)군포예총 국악협회의 ‘국악한마당’ 공연이 속초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에서 열렸다. 이번 공연은 속초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교류 공연으로, 많은 관람객들에게 국악의 아름다움을 선사하였다. 군포국악협회 회원들은 다양한 국악 공연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전통 음악의 매력을 한껏 발휘하였다. 이 공연은 속초와 군포간의 문화 교류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두 지역의 예술인들이 서로의 예술적 감성과 경험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일시 : 5월 21일(화) 11:30~12:00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



◆ 속초음악협회 ‘VOICE IN SOKCHO’

속초음악협회에서 주관 ‘VOICE IN SOKCHO’가 5월 25일(토) 오후 4시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공연에서는 테너 이우석과 소프라노 이주애가 솔로로 무대를 빛내주었으며, 속초음악협회 소속의 안단테와 속초음악당(SMP)이 연주를 하여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였다.

테너 이우석의 깊이있는 목소리와 소프라노 이주애의 청아한 음색이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안단테와 속초음악당의 연주가 공연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주었다.

‘VOICE IN SOKCHO’는 클래식 음악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속초 지역의 음악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데 기여하였으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일시 : 5월 25일(토) 16시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제35회 속초예술제 ‘ART 모꼬지 버스킹’

5월 26일, 속초예술제 ‘ART 모꼬지’의 행사 중 하나로 속초 K실 용음악 학원 학생들이 속초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였다.

이번 버스킹 공연은 속초예총이 주관하여 아이들에게 소중한 무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버스킹 공연에는 밴드 1팀, 여성 보컬 3명, 남성 보컬 2명이 참여하여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학생들은 평소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관객들에게 멋진 공연을 선사하였다.

이번 공연을 통해 학생들은 무대에서의 자신감을 키우고, 관객들과 소통하는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속초예총은 학생들의 열정적인 무대를 지원하고, 속초의 젊은 예술가들의 미래를 응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청소년 및 신진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무대를 마련하여 그들이 꿈을 키우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시 : 5월 26일(일) 11:00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



◆ 속초연예예술협회 ‘JAZZ와 POP의 만남’

5월 26일, 연예예술협회 속초지부 주관으로 ‘JAZZ와 POP의 만남’ 공연이 속초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에서 열렸다. 이번 공연은 속초예술제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속초 시민들과 예술제 기간 동안 축제를 찾는 관객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JAZZ와 POP의 만남’ 공연의 재즈 부문에서는 김희나 가수가 ‘Over the rainbow’, ‘Besame Mucho’ 등 유명 곡을 포함해 총 9곡을 선보였으며 그녀의 깊이 있는 목소리와 감미로운 선율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팝 부문에서는 김진우 가수가 ‘거꾸로 강을 거슬로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을 포함해 5곡을 열창하여 많은 이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번 공연에서는 기타-김남웅 최재영-피아노, 최승환이 드럼을 맡았으며, 콘트라베이스는 연예협회 회장인 박재근이 연주하여 무대의 완성도를 높였다.

일시 : 5월 26일(일) 13시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



◆ 속초무용협회 정기공연 ‘우리 춤 속으로’

대한무용협회 속초지부 주관으로 정기공연 ‘우리 춤 속으로’가 열렸다. 한국창작무용, poppin 한국무용 콜라보, k-pop 댄스-아름다운나라, 신명나는 날, 화양연화, 설악의 향기, 조선 힙스터 k-pop 댄스, 밀양아리랑 등 작품을 5월 26일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선보였다.

일시 : 5월 26일(일) 15시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속초연극협회 배우들과 함께 즐기는 ‘속초연극상회’

5월 24일(금)부터 26일(일)까지 속초연극협회에서 주관한 ‘속초연극상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체험극은 무대 공연이 아닌 열린 공간에서 진행되었으며, 새로운 형태의 창작 활동을 통해 문화상품화를 기획하고, 속초예술제 기간 동안 축제를 찾는 관객들에게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하였다.

‘속초연극상회’는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역할로 분장한 배우들이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며 재미있는 상황극을 만들어가는 체험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속초연극상회’라는 간판 아래, 다양한 캐릭터로 변신하여 관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객들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직접 연극의 일부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하게되었으며 많은 이들에게 연극의 매력을 재발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일시 : 5월 24일(금) ~ 26일(일)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 제19회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회원전

제19회 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회원전이 6월 1일(토)부터 6일(목)까지 속초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회원전에서는 다양한 주제와 기법을 활용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였다. 풍경, 인물, 추상 등 각기 다른 테마의 작품들은 작가들의 창의성과 열정을 엿볼 수 있게 했으며, 관람객들은 이를 통해 사진 예술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었다.

일시 : 6월 1일(토) ~ 6일(목)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2024 서문일초 초대 개인전

서문일초의 따뜻한 시선과 자연 풍경 V 봄 여름 가을 겨울

6월 1일(토)부터 30일(일)까지 속초 피노디아 아트갤러리 마키아올리에서 속초미술협회 서문일초 작가의 초대 개인전이 열렸다. 서문일초 작가는 ‘따뜻한 시선과 자연풍경’이라는 주제로 속초의 풍경, 오색의 소나무, 꽃 인물 등을 담은 수채화 50여점을 전시하였으며, 사계절을 나누어 구성한 도록도 선보였다.

일시 : 6월 1일(토) ~ 30일(일)

장소 : 속초 피노디아 아트갤러리 마키아올리



◆ 제29회 국제아동미술교류전 ‘세상은 넓고 그림은 좋다’ 및 제35회 설악학생미술작품 공모전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주관 제29회 국제아동미술교류전 및 제35회 설악학생미술작품 공모전이 6월 8일(토) ~ 13일(목)까지 속초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어린이와 학생들의 창의성과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국제아동미술교류전에는 일본 요나고시와 중국 훈춘시에서 보내온 그림들이 전시되어, 각국의 어린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예술을 통해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제35회 설악학생미술작품 공모전에서는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을 포함한 200여개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참여한 학생들은 각자의 개성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주제와 기법으로 작품을 완성하였으며, 그 결과물들은 전시장을 찾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일시 : 6월 8일(토) ~ 13(목)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무산만해축전 문화체험 프로그램

6월 7일(금)부터 9일(일)까지 속초엑스포 공원 일대에서 무산만해축전이 열렸다. 무산만해축전은 무산의 화합과 상생 정신을 기념하는 범종교적인 문화행사이다.

이번 축전의 주 대상은 청소년들이었으며 속초예총은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였다. 영화인협회 ‘상상이상’에서는 3D펜 체험, VR체험, 레고로봇 체험, 특수촬영 체험, 특수분장 체험 등 다양한 첨단 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체험을 마련하였다.

국악협회는 전통놀이 체험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사진작가협회는 인생네컷 부스를 운영하여 참여자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였다.

속초예총의 프로그램은 축제 기간 동안 큰 인기를 끌었으며, 총 210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체험에 참여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였다.

속초예총은 앞으로도 문화축제를 통해 지역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일시 : 6월 7일(금) ~ 9일(일)

장소 : 속초 엑스포 일대



◆ 2024 설악무산문화축전 공연

6월 8일(토), 무산만해축전의 공연팀으로 국악협회(갯마당)의 ‘국악실내악’, 영화인협회(위시리스트) ‘영화음악 ost’, 연예협회(팝스앙상블)의 ‘JAZZ와 POP의 만남’, 음악협회(SMP 속초음악당)의 ‘클래식 앙상블과 뮤지컬 갈라’ 총 네 팀의 공연이 준비되었다. 아쉽게도 오전에 예정되었던 두 개의 공연은 우천으로 인해 취소되었으나, 오후에 진행된 두 개의 공연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 500여명의 관객이 참석하여 공연을 즐기고 무산만해축전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다.

일시 : 6월 8일(토)

장소 : 속초 엑스포 잔디공원



◆ 2024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힐링 코메디언극 ‘11번가 불청객’

극단 파람볼에서는 2024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으로 힐링 코메디 연극 ‘11번가 불청객’을 공연하였다. 정직하지만 가난한 톱과 앨리스 커플이 신혼여행 중 돈이 가득 든 캐리어와 톱의 캐리어가 바뀌면서 벌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속초시민들은 50% 할인된 가격인 10,000원에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고, 네이버와 현장예매를 통해 티켓을 구매할 수 있었다. 현장예매 고객 중 선착순 100명에게는 싸이버거와 상남자 스테이크의 치킨덮밥 쿠폰이 제공되었고, 공연 관람 이벤트로는 추첨을 통해 파람볼 벽시계를 선물하는 이벤트도 진행되었다.

이번 공연은 파람볼의 대표 김강석이 연출을 맡았으며, 석경환 배우를 포함한 총 7명의 배우들이 출연하여 관객들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였다.

일시 : 6월 8일(토) 오후 3시 / 7시 (2회 공연)

6월 9일(일) 오후 3시 (1회 공연)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실향민 축제 ‘실향민 문화 예술 한마당’

6월 14일(금)부터 16일(일)까지 속초 실향민축제가 속초 엑스포 일대에서 열렸다. 속초예총은 이번 축제에서 실향민 문화예술 한마당을 운영하며 다채로운 공연과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북무형유산 공연으로는 평양검무, 놀량사거리, 화관무 공연을 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예술단 공연으로는 통일코리아와 남북통합문화센터가 공연을 진행하였다. 지역문화예술공연은 돈돌라리, 속초사자놀이, 도문농요가 공연했으며 과거 개그맨으로 활동했던 최영준이 변사로서 ‘검사와 여선생’을 재치있게 해설한 변사극이 진행되었다.

이번 실향민 축제는 이북의 문화유산과 북한이탈주민의 예술, 지역문화예술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일시 : 6월 14일(금) ~ 16일(일)

장소 : 속초 엑스포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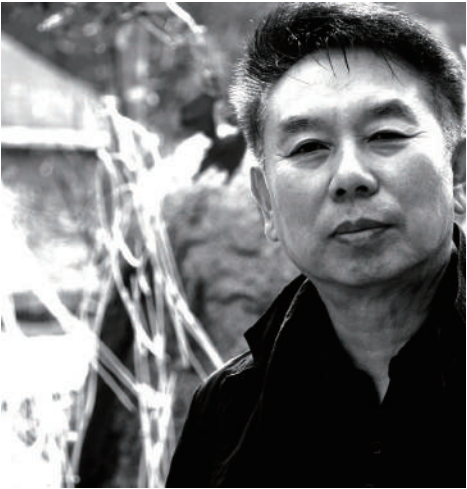


◆ 박동국 화가 제24회 개인전 ‘발길 멈추고 보다’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박동국 작가는 7월 2일부터 29일까지 진부령미술관에서 제24회 개인전 ‘발길 멈추고 보다’를 열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200호 이상의 대작들과 여행지 현장에서의 스케치 소품 등 총 150여점이 전시되었다. 진부령미술관 제1전시장에서는 고성군의 풍광의 화가의 눈으로 재구성한 수채화와 먹을 이용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제2전시장에서는 ‘내린전’, 소나무를 주제로 한 ‘고수’, ‘하늘, 바다 그리고 등대’ 시리즈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여행지에서의 스케치를 감상할 수 있었다. 이번 전시회는 박동국 작가의 예술적 감성과 여행 경험이 어우러진 작품들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일시 : 7월 2일(화) ~ 29일(월)

장소 : 진부령미술관



◆ 속초영화인협회 - 상상이상

2024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빛담양양”

2024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빛담양양’ 프로그램이 7월 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양양 글라시 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다.

“배경에서 예술로, 나를 예술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본 프로그램은 지역민이 직접 작가가 되어 자신이 촬영한 사진, 영상을 전시(상영)하는 프로젝트로, 스스로 살아온 지역에서의 시공간을 미디어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표현, 창작하는 즐거움을 회복하고, 예술적 감수성을 꽃피우는 활동으로 꾸며졌다.

일시 : 7월 2일 ~ 11월 26일, 19시 ~ 21시

장소 : 양양 스튜디오 글라시



◆ 무용협회 춤 ‘화문석을 벗어난 꾀꼬리’

한국무용과 팝핀댄스가 어울려 콜라보를 이루는 작품 “조선 힙스터”와 “모란 동백”, “야단가” 로 이어지는 한국무용 창작작품으로 안무 연출되는 춤을 무대에 올렸다
주관: 양속희무용단
일시: 6월 30일(일)
장소: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故윤홍렬 선생님 10주기 추모 행사 및
갈피 영인본(창간호~27집) 헌정식

7월 3일(수) 속초 마레몬스 호텔 그랜드 연회장에서 故윤홍렬 선생님의 10주기 추모 행사 및 갈피 영인본(창간호~27집) 헌정식이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故윤홍렬 선생님은 갈피를 창간하신 분으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이번 행사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동시켰다.
행사는 속초무용협회 양속희 무용단의 진혼무으로 시작하여 1부 추모식, 2부 문학포럼, 3부 만찬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故윤홍렬 선생님의 10주기를 기념하고 그의 문학적 유산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많은 이들의 참여와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일시: 7월 3일(수) 15시 ~ 19시
장소: 속초 마레몬스 호텔 그랜드 연회장



◆속초영화인협회 - 상상이상
2024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누군가의 그림책”

2024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누군가의 그림책” 프로그램이 7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속초 문우당서림에서 진행되었다.
“그림으로 짓는 상상, 글로 피우는 일상의 꽃”이라는 주제로 예술의 본질인 창작과 소통 속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창작의 과정에서 답변하는 시간을 구성하고자 한 본 프로그램은 속초, 고성, 양양지역의 일반 시민이 그림책을 펴내는 과정에서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오가며 창작하는 과정에서 주제성과 창조성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일시: 7월 4일 ~ 11월 28일, 18시 ~ 20시
장소: 속초 문우당서림 2층



◆극단 파람볼 2024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6월 26일”

극단 파람볼에서 7월 6일, 7일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24년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연극 “6월 26일”을 공연했다.
연극 6월 26일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연극으로,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깊이 있는 스토리와 감동적인 연출을 선보였다. 이번 공연에서는 배우 윤국중과 이용우가 출연하여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주었다. 공연 관람 이벤트로는 포토존에서 사진을 촬영한 후 즉석에서 사진을 인쇄해주는 이벤트가 열렸다. 관객들은 공연 후 포토존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
일시: 7월 6일(토) 오후 4시 / 7월 7일(일) 오후 3시
장소: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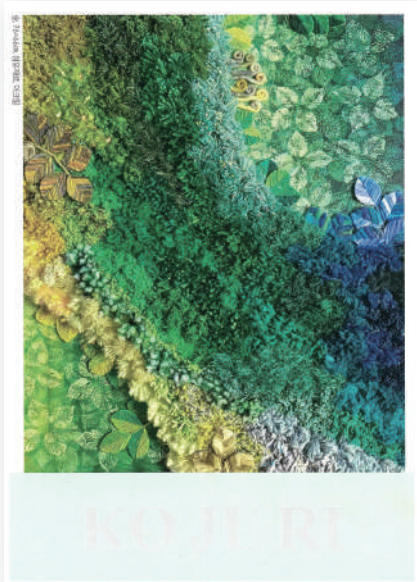
◆속초예총 제3차 이사회

7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 속초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속초예총 3차 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박치영 속초예총 회장을 비롯한 의장 16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4년 속초예술지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 구성과 2024년 속초예술제 ‘ART 모꼬지’ 후원금 사용내역 승인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이 외에도 기타안건으로 송년예술제 진행 방향과 속초예총 회원 확충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열띤 토론을 통해 속초예총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시: 7월 20일(토) 17시
장소: 속초문화예술회관 소강당



◆고주리 작품전 ‘섬유미술의 조형성, 자연과의 조화’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고주리 작가는 7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강릉 아산병원 갤러리에서 개인 작품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회는 ‘섬유미술의 조형성, 자연과의 조화’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고주리 작가는 섬유미술 작품들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인 조형성을 선보였다
작가의 섬세한 감각과 창의적인 표현이 담긴 작품들은 많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일시: 7월 22일(월) ~ 8월 3일(토)
장소: 강릉 아산병원 갤러리



◆먹노리 열한 번째 이야기전

설악한국화동우회는 7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속초시립박물관에서 ‘먹노리 열한 번째 이야기전’을 열었다. 이전 전시회는 속초시립박물관의 2024년 지역작가 초대전으로 마련되었으며, 김태완, 남옥환, 노금희, 이성희, 정다정, 최월순, 최종봉, 김가경, 김동섭, 조정승 회원이 참여하였다. 설악한국화동우회 먹노리(회장 최월순)는 지난 2010년 속초문화교육관 한국화 교실 수강생들이 결성하여, 2014년 먹노리 창립전을 시작으로 해마다 전시회를 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먹의 아름다움과 한국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였다.
일시: 7월 23일(화) ~ 8월 25일(일)
장소: 속초시립박물관 제1기획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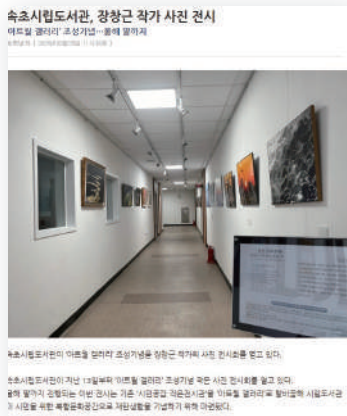
◆ 속초시립도서관, 장창근 작가 사진 전시

속초시립도서관의 ‘아트월 갤러리’에서는 조성 기념으로 속초예총 부회장이인 장창근 작가의 사진 전시회를 열었다.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기존 ‘시민공간 작은도서관’을 ‘아트월 갤러리’로 탈바꿈해 시립도서관이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함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시에는 장창근 작가의 작품 26점을 ‘자연과 풍경’과 ‘속초의 세계’를 주제로 선보였다.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은 속초의 아름다운 자연과 계절의 변화를 사진을 통해 감상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일시 : 7월 24일(수) ~ 12월 31일(화)

장소 : 속초시립도서관



◆ 성남예총 - 속초예총 방문

7월 24일, 속초예총과 자매결연을 맺은 성남예총이 속초를 방문했다.

올해 2월에 성남예총을 방문한 이후 두 번째 만남으로, 성남예총의 방문은 속초예총에게도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번 방문을 위해 속초예총 후원회장이인 박종하 후원회장이 설악

해수욕장에서 장소와 식사를 준비해주었다.

성남예총에서는 무용, 음악, 문인, 국악협회 지부장이 함께 방문하였으며 속초예총에서는 미술협회 김만두 지부장과 김영미 부지부장, 장창근 부회장, 국악협회 김동연 지부장, 전성호 부회장이 함께 해주었다.

또한 성남예총 송위혁 회장은 답례 선물로 자신의 작품을 전달해주었다. 이 만남은 양 예총 간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고 앞으로의 협력과 교류를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일시 : 7월 24일(수) 13:00

장소 : 설악해수욕장



◆ 속초영화인협회 - 상상이상 더나은교육지구 사업 “미래자사전 - 꿈을 담는 카메라”

상상이상은 7월 29일(토) ~ 8월 9일(금) 간 2024 속초 더나은교육지구 “미래 자사전 - 꿈을 담는 카메라”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속초에 살아가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상으로 진행된 본 프로그램은 자신의 삶과 꿈을 아카이빙하는 디지털 미디어 퍼블리싱 프로젝트를 표방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기표현의 수단으로써 사진, 영상 등 미디어 문화예술을 재인식하고, 나의 삶을 모아 글과 함께 엮어 책으로 출판하는 과정에서 “창작하는 나”를 발견하도록 촉진하였다.

일시 : 7월 29일(토) ~ 8월 9일(토), 오전 10시~12시, 13시~15시

장소 : 속초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꿈이랑



◆ 안단테 ‘악기든 김에 세계일주’ 공연

양상블 안단테가 8월 17일(토) 저녁 7시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악기 든 김에 세계일주’ 공연을 하였다. 안단테는 서양악기와 국악기의 조합으로 구성된 연주단체로, 활발한 문화예술교육과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지역 문화 부흥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다양한 대륙의 특성을 접할 수 있는 민속음악을 통해 음악 감상의 범위를 넓혀주는 출발점이라는 컨셉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은 스페인, 스위스, 독일, 러시아의 민속음악과 함께 우리나라의 몽금포타령, 갯마당이 편곡한아리랑으로 구성되었다.

일시 : 8월 17일(토) 19:00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귀연 박귀례 세 번째 개인전 “네가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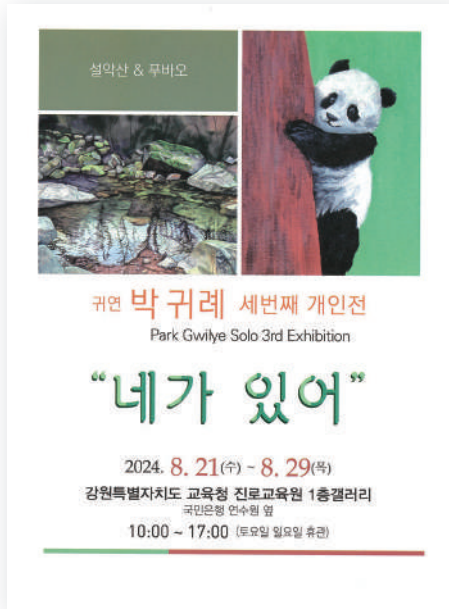
박귀례 설악수채화 회장은 8월 21일(수)부터 8월 29일(목)까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원 1층 갤러리에서 세 번째 개인전 “네가 있어”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설악산과 푸바오를 주제로 한 작품 20여점이 전시되었으며, 설악산의 사계절 풍경과 ‘판다유치원’작품이 포함되었다.

박귀례 작가는 전시장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포토존을 마련하고, 직접 작품 설명도 제공되었다.

일시 : 8월 21일(수) ~ 8월 29일(목)

시간 : 10:00 ~ 17:00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진로교육원 1층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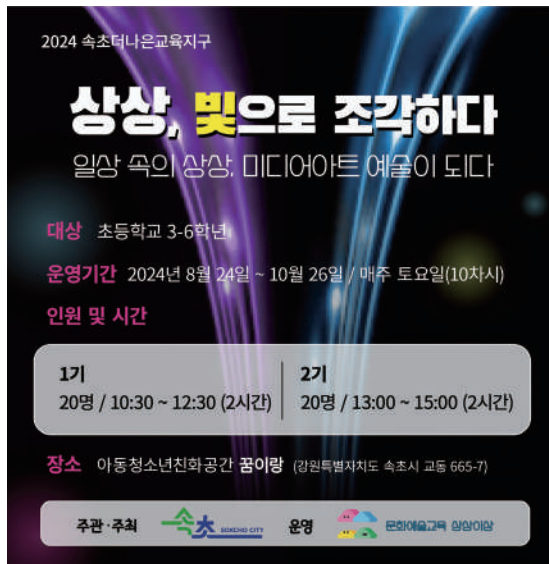
◆ 속초영화인협회 - 상상이상 더나은교육지구 사업 “상상 빛으로 조각하다.”

속초 더나은교육지구 사업으로 진행된 “상상 빛으로 조각하다” 프로그램을 8월 24일 ~ 11월 2일간 진행하였다.

속초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이 초소형 컴퓨팅 보드, 전자회로 등 디지털 창작 도구를 직접 체험해보며 최신의 예술트렌드이자 대표적인 예술 X 기술 영역인 미디어아트를 직접 만드는 과정으로 구성된 본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확장되는 예술의 영역을 체험하고,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융합이 가져올 상상력의 현실화를 실감하였다.

일시 : 8월 24일(토) ~ 11월 2일(토), 10시 ~ 12시, 13시 ~ 15시

장소 : 속초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꿈이랑



◆ ‘설악 사진가’ 성동규, <지의류는 생명이다> 사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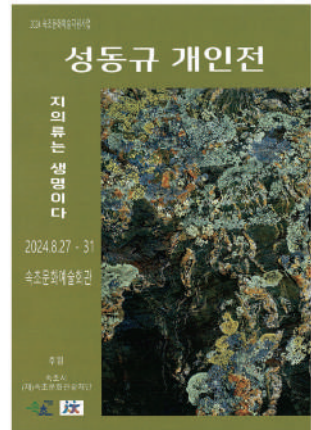
사진작가 성동규 작가가 ‘지의류는 생명이다’ 사진전을 열었다. 이 전시는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 동안 속초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렸으며 작가가 촬영한 설악산 일대의 지의류 사진 25점이 전시되었다.

지의류는 ‘땅의 옷’이라 불리며, 생태적 가치와 아름다움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최근 그 중요성이 밝혀져 관심을 받고 있다. 작가는 다양한 색채와 형상을 지닌 지의류를 통해 자연의 예술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는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예술적 접근으로 주목받고 있다.

성동규 작가는 1928년 대전 출생으로, 1973년 속초로 이주한 이후 설악산의 풍경과 희귀식물로 촬영을 해왔다.

일시 : 8월 27일(화) ~ 31일(토) 10:00 ~ 18:00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권정남 시인

『강원사랑 시화전』 대상 수상

권정남 시인이 아름다운 강원 특별자치도를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강원 예총이 주최하고 강원 문인협회가 주관하는 『강원사랑 시화전』 작품공모전에서 ‘시 법흥사 적멸보궁’으로 대상을 수상하였다.

일시 : 8월 30일(금)



◆ 섬유미술가 고주리 작가 열여섯 번째 개인전

섬유미술가 고주리는 8월 30일(금)부터 9월 13일(금)까지 서울아산병원 갤러리에서 열여섯 번째 개인전 ‘섬유미술의 조형성, 자연과의 조화’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에는 35~40점의 다양한 대작과 소품이 전시되었다.

일시 : 8월 30일(금) ~ 9월 13일(금)

장소 : 서울아산병원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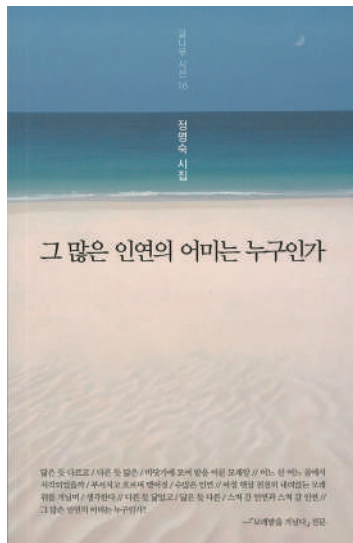
◆ 정명숙 시인 두 번째 시집

『그 많은 인연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출간

정명숙 시인이 두 번째 시집 『그 많은 인연의 어머니는 누구인가』를 출간했다. 이번 시집에는 1부 ‘갯배와 철삭’, 2부 ‘번데기는 수면 중’, 3부 ‘습관 같은 것’, 4부 ‘모래밭을 거닐다’로 나누어 총 63편의 시가 실려있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가 오래도록 우물가에 머물러 詩를 퍼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아드님의 해설로 마무리가 된 따뜻한 시집이다.

일시 : 8월 30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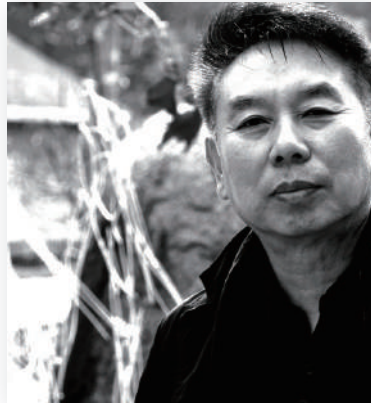


◆ 박동국 화가 제25회 개인전 ‘발길 멈추고 보다’

화가 박동국의 개인전 ‘발길 멈추고 보다’를 고성 진부령미술관에 이어 속초 피노디아 아트갤러리 마키아올리에서 8월 31일(토)부터 9월 22일(일)까지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는 박동국 작가의 제 25회 개인전이자 피노디아 마키아올리의 2024년 다섯 번째 기획전으로, 여행지 풍광을 재구성한 스케치 소품 및 대작 90여점이 전시되었다. 박동국 작가는 여행 시 스케치의 채색 도구를 활용해 현장에서 빠르게 작품을 완성하며, 이후 큰 작업으로 이어진다. 전시작품에는 속초 아바이마을의 갯배 시리즈, 동해안 항구 풍경, 울릉도와 백령도, 제주 바닷가와 마라도의 풍경이 포함되었다.

일시 : 8월 31일(토) ~ 9월 22일(일)

장소 : 속초 피노디아 아트갤러리 마키아올리



◆ 안단테와 함께하는 콘서트 ‘시그널’

경력이 단절된 지역 음악정공자들을 섭외하여 꿈을 접고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예술가들에게 심장은 아직 뜨겁게 뛰고 있으며 찬란했던 그 때와 현재 삶의 가치에 박수를 보내는 콘서트이다.

안단테, 속초음악당 SMP, 소리 박규미, 트럼본 지용호, 테너 황영승, 기타 강명근, 작곡 임정호가 참여했다

일시 : 9월 1일(일)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일상 非 일상 영화상영회 ‘당신은 지금, 어디에’

속초예총 영화인협회 소속인 빛나는 날들이 ‘당신은 지금, 어디에’라는 제목으로 영화 상영회를 개최하였다. 영화 상영은 7월 24일, 8월 7일, 8월 24일, 9월 7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관람료는 5,000원이었다.

1,2회차는 ‘이별의 일상非일상’을 주제로 다박굴 옥례씨와 심장의 별레를 상영했고, 3,4회차는 ‘가족의 일상非일상’을 주제로 전역일과 8월의 크리스마스를 상영하였다. 1회에서 3회차는 모래알에서 4회차는 솔트라운지에서 진행되었다.

참여 대상은 일상을 되돌아보고 싶은 사람, 영화를 매개로 타인과 소통하고 싶은 사람, 지역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었다. ‘일상非일상’ 당신은 지금, 어디에는 강원 시네마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영화를 발견하고 응원하며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로 선별된 영화들을 활용한 소규모 상영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일상’을 주제로 선정된 영화를 관람하고 ‘일상非일상’ 질문 책자를 작성하며 각자의 일상 속에서 영화가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일시 : 7월 27일(토) 19시~21시 (1회차)

8월 7일(수) 19시~21시 (2회차)

8월 24일(토) 19시~21시 (3회차)

9월 7일(토) 19~21시 (4회차)

장소 : 모래알 (1회~3회차) / 솔트라운지(4회차)



◆ 권정아 개인전 ‘우담의 첫걸음’

서예가 우담 권정아가 첫 개인전 ‘우담의 첫걸음’을 9월 3일(화)부터 8일(일)까지 속초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하였다. 권정아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연대기 작품, ‘喜喜樂樂 書’시리즈, 흑백에서 벗어난 콜라보레이션 작품을 선보였다. 전통 서예의 멋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온고지신 정신을 담아 캘리그래피 작품도 함께 전시되었다. 작품에는 윤동주의 ‘쉽게 싸워진 詩’, 이해인의 ‘봄 일기’, 도종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 등 다양한 서체로 구성된 서예 작품과 청호동, 청초호 야경, 설악산의 입구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도 포함되었다.

권정아 작가는 한국미술협회 정회원으로 다양한 전시에 참가하였으며, 속초문화원, 속초교육문화관, 교육도서관 등에 출강 중이며 최근에는 청초호 호수공원 ‘속초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서예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하였다.

일시 : 9월 3일(화) ~ 8일(일)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삶의 가치를 그려낸, 서양화 작품전 ‘설향’

속초시립박물관에서 9월 3일(화)부터 27일(금)까지 2024년 지역작가 초대전, 삶의 가치를 그려낸 서양화 작품전 ‘설향’을 열었다. 이번 전시에는 영아트 회원들의 작품 30여점이 전시되었으며, 설악산, 동해바다, 영랑호 등 속초의 자연경관과 일상의 모습, 아름다운 꽃 등을 주제로 한 서양화가 전시되었다.

영아트 회원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속초의 아름다움과 일상의 여유로움을 감상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일시 : 9월 3일(화) ~ 27일(금)

장소 : 속초시립박물관 제2기획 전시실



◆ 극단 청봉 2024 속초문화예술지원사업 ‘나와 바다 이야기’

속초예총 연극협회 극단 청봉은 9월 7일 저녁 6시에 ‘나와 바다 이야기’를 공연했다. 이 작품은 손미애 작가와 김일태 연출로 김영주, 김성화, 남희영, 김수정, 안효란, 최덕춘이 출연하였으며, 이번 연극은 바닷가 마을에서의 변화된 삶을 배경으로,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 과정을 그려냈다

일시 : 9월 7일(토) 18:00

장소 :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마을 해녀의 집



◆ 김향숙 시인 ‘숲으로 가는 나무의자’ 발간

김향숙 시인이 두 번째 시집 <숲으로 가는 나무의자>를 출간했다. 시집은 1부에서 4부까지 총 80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인은 “시는 질문과 해답 사이에서 세상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영원한 영혼의 별로 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집은 자연을 소재로 한 시들이 두드러지며, 이는 보편적인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조명한다고 평가된다.

일시 : 9월 12일(목)



◆ 김도연 서양화전 ‘하물며 해바라기도 고개를 숙일 줄 아는데...’

속초미술협회 소속 김도연 서양화가의 개인전이 속초 아트플랫폼에서 열렸다.

일시 : 9월 16일(월) ~ 29일(일)

장소 : 아트플랫폼 갯배 갤러리



◆ 제3회 RGB 회원전

국제사진작가를 목표로 결성된 s-RGB는 초대회장 황병진 작가를 대표로 총 13명이 결속되어 2022 창립, 올해로 3번째 정기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회는 참여 작가들의 독창적인 작품과 각 분야의 국제사진공모전에 입상한 작품들의 휴머니즘과 자연 다큐멘터리, 지구환경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수준 높은 작품들을 선보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일시 : 9월 3일(화) ~ 27일(금)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김춘만 시인 네 번째, 다섯 번째 시집 『분단詩 바위詩』, 『산수유는 하늘을 물들이고』 출간

김춘만 시인이 네 번째 시집 『분단詩 바위詩』와 다섯 번째 시집 『산수유는 하늘을 물들이고』를 같이 출간하였다.

『분단詩 바위詩』는 2장으로 1장은 ‘분단의 땅에서 쓴 실향의 시, 2장은 바다와 모래, 바위가 만든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산수유는 하늘을 물들이고』는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산수유는 하늘을 물들이고』에 담긴 시는 ‘그냥 쓴 시다. 세상의 모든 그냥을 알아챈 이의 표정이고 노래이며 혼잣말이자 편지, 그리고 춤이다’

- 김윤아 작가의 해설 중에서

일시 : 9월 15일(일)



◆ 속초 여류작가 5인전 ‘오색의 꿈을 펼치다’

속초 여류작가 5인전 ‘오색의 꿈을 펼치다’가 9월 28일(토)부터 10월 20일(일)까지 피노디아 아트갤러리 마키아울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고주리(섬유미술), 김영미(서양화), 박귀례(수채화), 서문일초(수채화), 조정남(서양화) 작가가 참여해 각자의 특성을 살린 다섯 가지 색깔의 작품을 선보였다.

일시 : 9월 28일(토) ~ 10월 20일(일)

장소 : 속초 피노디아 아트갤러리 마키아울리



◆ 후산 최명길 시인 10주기 추모행사 및 최명길 시인 산문집 출판 기념회

후산 최명길 시인 10주기 추모행사 및 산문집 출판기념회가 9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마레몬스 호텔에서 열렸다. 최명길 시인은 물소리 시낭송을 창단한 인물이다.

행사는 안단텐의 몽금포 연주로 시작해 추모 동영상 시청, 추모 시 낭송, 최명길 시인의 산문집 소개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2부에서는 문학 포럼 등을 통해 다시금 최명길 시인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며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일시 : 9월 28일(토) 15시

장소 : 속초 호텔마레몬스 그랜드볼룸



◆ 강원예술제 - 무용축전 공연(연출 : 양숙희 지부장)

강원도에서 매년 개최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축제인 강원예술제에 속초 무용협회에서 강원 무용인의 창작 의욕 고취와 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무용인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강원 무용축전에 참여하였다.

이날 속초무용협회는 신명나는날(창작) / 장구춤을 선보여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일시 : 9월 29일(일) 17:00

장소 : 춘천 봄내극장



◆ 속초무용협회 설악문화제 성화 채화 - 선녀춤

제 59회 설악문화제의 시작을 하늘에 고하는 제례를 지내고 성화를 채화하는데에 속초무용협회에서 선녀춤을 선보이며 함께 제례를 지냈다.

일시 : 10월 2일(수)

장소 : 설악산 권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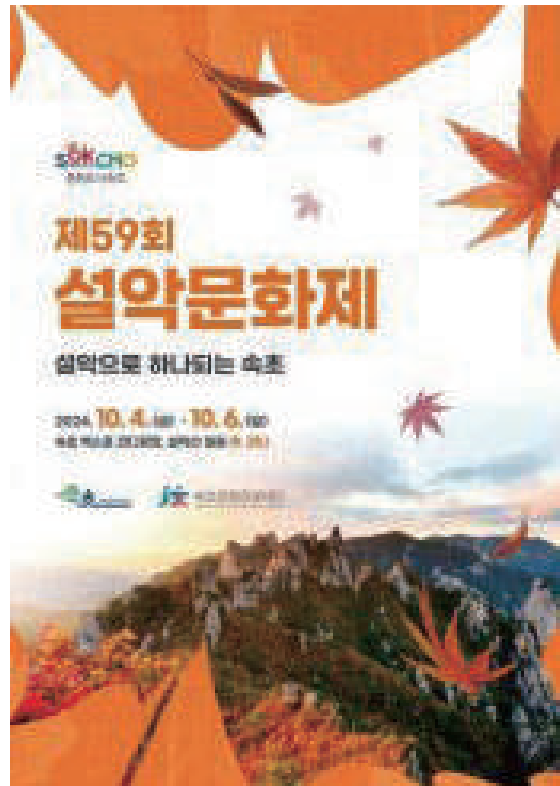
◆ 제59회 설악문화제 설악문화예술 공연 운영

제59회 설악문화제 설악문화예술공연 운영을 속초예총이 맡았다. 행사는 10월 4일 금요일부터 6일 일요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주요 공연으로는 속초시립풍물단, 설악청소년국악관현악단, 속초아리랑, 속초사자놀이, 그리고 속초시 8개 동의 대표 동아리가 참여한 동아리 페스티벌이 있었다. 또한 이토프(ETOF) 회원국 중 하나인 말레이시아 사라왁 예술학교 학생들이 초청되어 공연을 선보였으며, 속초소년소녀합창단과 도문메나리농요의 공연도 진행되었다.

일시 : 10월 4일(금) ~ 6일(일)

장소 :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



◆ 음악극 ‘냉면 한그릇 후루룩 넘기듯’ 공연

극단 파람불이 음악극 ‘냉면 한그릇 후루룩 넘기듯’을 공연했다. 공연은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10월 4일(금) 7시 30분과 5일(토) 오후 3시에 진행했다. 이 작품은 속초의 평양냉면집과 코다리냉면집 사이의 이야기를 담아 관객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였다. 특히 작년에는 낭독 뮤지컬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는 음악극으로 전환되어 갯마당과 함께한 교류 협력 공동제작 작품으로 선보여졌다.

일시 : 10월 4일(금) 19:30 / 10월 5일(토) 15:00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속초문학 4집 출판기념회

한국문인협회 속초지회가 동인지 <속초문학> 4집을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강연화, 권정남, 김종현 등 다수의 시와 산문이 실렸으며, 심재현과 장은선의 동시와 속초교육문화관 문예창작반 수강생들의 작품도 포함되었다. 김향숙 지회장은 발간사에서 “올해는 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가 탄생한지 50년이 되는 해”라며, <속초문학>이 독자들과의 공감대를 넓혀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출판기념회는 10월 5일(토) 오후 3시 속초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열렸으며 회원 작품 낭독과 기타, 하모니카 연주, 독자와의 대화 등으로 진행되었다.

일시 : 10월 4일(토) 13시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소강당



◆ 제41회 청봉 사진 전시회 및 제10회 속초 요나고 사진 교류전

제41회 청봉사진회 전시회 및 제11회 속초·요나고 사진 교류전이 10월 12일(토)부터 18일(금)까지 속초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개전식은 첫날 오후 3시에 열렸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청봉사진회 회원 작품 47점과 일본 요나고시 회원 작품 9점 등 총 56점이 전시되었다. 청봉사진회는 속초의 자연과 인물사진을 중심으로 회원들의 개성이 담긴 작품을 선보였다. 청봉사진회와 요나고시는 2017년부터 격년제로 교류전을 열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 재유행으로 청봉 회원들이 요나고시를 방문하지 못하고 작품만 냈다. 1984년 창단된 청봉사진회는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사진동호회이다.

일시 : 10월 12일(토) ~ 18일(금)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노인의날 기념행사 한마당 축하공연

10월 16일(수)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노인의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속초예총은 후니정, 이미애, 강토 가수를 섭외하여 노인들을 위한 축하공연을 진행했고, 이 공연은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는 6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하였으며, 속초예총은 후원회장 박종하 회장과 연극협회 신오일 지부장이 속초시장 상을 받았다.

일시 : 10월 16일(수) 14:00 ~ 16:00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크루즈 유람선 ‘웨스테르담’ 호 속초입항 환영 - 선석공연

승객과 승무원 등 약 2,700여명을 태운 ‘웨스테르담’호가 입항 후 선석에서 속초무용협회가 크루즈 탑승객들을 위한 환영행사를 진행하였다.

일시 : 10월 20일(일)
장소 : 속초항



◆ 2025 제17회 설악수채화 전시회

설악수채화회(회장 박귀례)는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속초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일곱번째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전시회 오픈식은 첫 날 오후 3시에 열렸으며 이번 전시회에는 20명의 회원이 그린 꽃과 인물, 풍경 등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 가능하였으며, 설악수채화회는 전시회 초청장을 대신해 속초문화관광재단의 2024 속초문화예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회원들의 작품을 담은 탁상 달력을 제작해 배포하였다.

일시 : 10월 23일(수) ~ 27일(일)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상주단체육성사업 갯마당 ‘숫아라 숫아라’

10월 25일 금요일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갯마당이 창작 국악 공연 <숫아라, 숫아라>를 선보였다. 이번 공연은 2024 강원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국악, 그 자유로운 울림’의 일환으로 마련된 우수 레퍼토리 공연이다.

<숫아라, 숫아라>는 영랑화와 청초호에 살던 청룡과 황룡의 설화를 스토리텔링해 국악, 연극, 무용 등을 결합한 창작 작품이다.

◆ 소향 박혜정의 여덟번째 개인전 ‘그림여행’

소향 박혜정 작가의 여덟 번째 개인전 ‘그림여행’이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달홀문화센터 전시마루 1층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고성을 비롯한 강원지역의 자연을 작가만의 독특한 화법과 개성으로 표현한 ‘고향 가는 길’, ‘꽃대마을 라벤더 팜’, ‘미시령의 겨울’ 등 총 24편의 작품을 선보였다.

박혜정 작가는 2008년부터 고성과 속초지역에서 다수의 단체전과 개인전을 가졌으며 현재 속초예총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예술 발전을 위해 꾸준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은 강원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을 박혜정 작가만의 시선으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다.

일시 : 10월 29일(화) ~ 11월 4일(월)
장소 : 달홀문화센터 전시마루 1층



◆ 장세호 세 번째 수필집 ‘설악의 뿌리를 찾아서’

속초문인협회 장세호 작가가 세 번째 수필집 ‘설악의 뿌리를 찾아서’를 출간하였다. 이번 수필집은 작가의 35년간의 공직 생활과 고향 속초를 잊지 않고 살아온 삶의 궤적을 담았다. 장세호 작가는 책 머리말에서 고향 속초와 설악산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며, 공인으로 살아온 삶을 반추하였다. 수필집은 1부 ‘설악의 뿌리’, 2부 ‘공직자의 길’, 3부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4부 ‘살며 생각하며 : 언론 가고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6편의 수필과 28편의 칼럼이 수록되었다.

특히 고향 도문동과 속초의 여러 명소들을 사실적으로 기술하여 역사적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시 : 10월 30일(수)

갯마당은 지역의 설화와 전통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창작 공연을 통해 국악의 대중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앞으로도 갯마당의 활발한 활동과 더불어 강원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기대해본다.

일시 : 10월 25일(금) 19:30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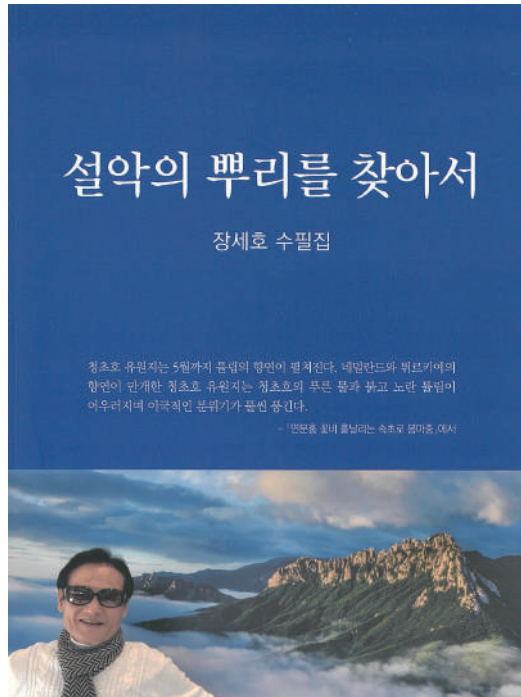


◆ 속초영화인협회 - 상상이상 2024 인문융합교육 전시회 “상상으로 있다”

상상이상은 10월 26일 속초 아동청소년친화공간 꿈이랑에서 2024 인문융합교육 전시회 “상상으로 있다”를 개최하였다. 1년간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조망한 본 전시회에 연인원 150여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였다.

일시 : 10월 26일(토) 13시 ~ 18시
장소 : 속초 꿈이랑





◆ 춤으로 물드는 가을 ‘웃길을 여미며 꽃을 마중하다’

11월 2일 토요일, 속초무용협회에서는 춤으로 물드는 가을 ‘웃길을 여미며 꽃을 마중하다’ 공연이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었다.

일시 : 11월 2일(토)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파람불 공연 ‘옥이가 오면’

속초연극협회 극단 파·람·불(대표 김강석)이 11월 8일 금요일 서울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연극 ‘옥이가 오면’을 공연하였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 주관하는 ‘2024 대한민국은 공연중-또 한번 빛나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에서 창작 개발된 우수한 공연을 전국으로 유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연극 <옥이가 오면>은 이선희 작가의 작품으로 손건우 연출가가 연출을 맡았다. 이번 작품은 지난 해 제40회 강원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사)한국연극협회로부터 베스트 연극단체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일시 : 11월 8일(금)

장소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 2024 춘천과 속초가 함께하는 예술공연

속초예총과 춘천예총은 국내 문화예술 교류의 일환으로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교류공연을 진행했다. 이번 교류공연은 예술 공연을 통해 한국예총 춘천지회와 속초지회 간의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고자 기획되었다.

일시 : 11월 21일(목) 19:30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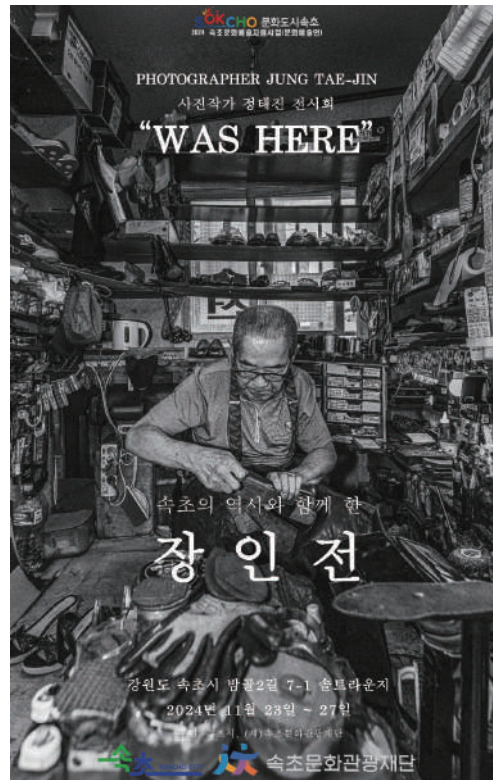


◆ 정태진 ‘장인전’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솔트라운지에서 정태진 작가의 첫 개인 전시가 열렸다. 그의 흑백 인물사진은 지역의 숨은 장인들을 조명했다. 전시된 사진 속에는 구두 수선사, 선박 엔진 수리사, 철물점 운영자, 생선 손질사, 방앗간 부부 등 오랜 세월 동안 한 분야에서 일해 온 지역 장인 9명의 모습이 담겨 있다. 정태진 작가는 현재 속초영화인협회 부지부장으로 활동중이며, 이번 전시는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었지만, 관람객들은 속초의 지난날을 느끼게 해준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태진 작가는 향후 강원도 내 숨은 장인들을 찾아 다채로운 사진 전시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일시 : 11월 23일(토) ~ 27일(수)

장소 : 솔트라운지



◆ 2024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음악극 ‘보름’

갯마당(대표 박치영)이 음악극 ‘보름’을 11월 24일 일요일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공연은 강원문화재단의 2024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연극으로 올린 보름을 음악극으로 새롭게 창작해 선보이는 것이다. 보름은 강원도무형유산인 속초사자놀이의 기원을 담고 있으며 정월대보름 길놀이를 위해 사자춤을 추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다.

이번 공연은 속초사자놀이 공연과 함경도 민요, 속초의 뱃소리와 함께 벽구춤과 LED 소고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전통타악기와 피아노, 드럼 연주로 신구 세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음악극으로 기대를 모았다.

일시 : 11월 24일(일) 오후 4시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2024 속초예총 워크숍

2024년 11월 27일 속초예총은 서울 경복궁과 국회의사당으로 워크숍을 다녀왔다. 박치영 회장님과 박혜정 수석부회장을 포함하여 총 15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눈이 많이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경복궁과 국회의사당을 방문하여 역사와 정치의 중심지인 서울을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국회의사당에서는 국회의장을 만나 면담을 하며 예술인들의 앞으로의 방향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또한 국회를 둘러보며 대한민국의 정치의 중심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서울 방문 후, 속초로 돌아와 저녁 만찬이 이어졌다. 워크숍에 참석하지 못했던 회원들도 합류하여 약 30명이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저녁만찬에서는 서울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예술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워크숍은 속초예총 회원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예술인으로서의 비전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의 활동에 큰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일시 : 11월 27일(수)

장소 : 서울 경복궁, 국회의사당



◆ 갈매 54집 출판기념회 및 송년문학축제

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 소속 설악문우회 주관 갈매 54집 출판기념회 및 송년문학축제 행사가 11월 30일(토) 15시 속초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일시 : 11월 30일(토) 15시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소강당



◆ 2024 송년미술제와 함께하는 ‘음악 품은 전시’ 공연

송년미술제와 함께하는 ‘음악 품은 전시’는 매일 2회 총 10회 공연으로 클래식, 국악 등 다양한 장르로, 전시장을 찾는 관객에게 음악을 즐기며 관람하는 즐거움을 선보였다.

일시 : 12월 7일(토) ~ 12일(목)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2024 송년미술제

속초미술협회 주관 사랑나눔 자선미술전이 12월 7일(토)부터 12일(목)까지 속초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일시 : 12월 7일(토) ~ 12일(목)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축구연극 - PASS

남북으로 갈라진 혼란의 시기에도 사랑과 희망을 잃지 않은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은 축구 연극 <패스>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속초 무대에 올랐다. 2024 강원도립극단 기획공연으로 속초연극협회 극단 파·람·불(대표 김강석)과 협력해 12월 14일과 15일 오후 4시에 속초문화예술회관에서 연극 <패스>를 공연했다.

일시 : 12월 14일(토) ~ 15일(일) 16:00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속초예술 24호 발간

속초예총의 연간지 <속초예술>지 24호가 발간됐다. 속초예총 및 9개 협회별 지난 1년을 회고하며 한 해 동안의 창작 및 예술활동 내용이 실렸다.

일시 : 12월



속초 예술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속초지회

회장	박치영
수석부회장	박혜정
부회장	서미숙, 김강석, 유영준, 남인영, 장창근, 김문성, 송애숙
명예회장	김영복, 장규호, 정봉재
문인협회 회장	김향숙
미술협회 회장	김만두
연극협회 회장	신오일
음악협회 회장	강명근
국악협회 회장	김동연
사진작가협회 회장	김건수
무용협회 회장	양속희
연예예술인협회 회장	박재근
영화인협회 회장	윤철형
홈페이지	사단법인 한국예총 속초지회 www.artsokcho.or.kr  속초예총 홈페이지

<통권 제24호> 이 책은 속초시 보조금으로 발간

속초최초 생 전문식당

생죽마을

디자인
광고마을

우 성 옥

JuganDo
주식회사 유건도

속초 동해장례식장
SOKCHO DONGHAE FUNERAL HALL

(주)동해용역

(주)초원환경

함지 뷔페

SD.KOREA

NH농협은행
속초시지부

김 송 순
아마이젓갈

함경도 아바이 젓갈

한국예총 속초지회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예총 속초지회 행사에 항상 관심을 주시는
속초시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문예술법인 한국예총 속초지회가 지역예술문화의
창의력 및 상상력의 단초가 되어 시민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촉발하는 역할을 함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284
45